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세경본풀이〉 구조와 인물 연구

지도교수 이화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송영은

2015년 8월

석사학위논문

〈세경본풀이〉 구조와 인물 연구

지도교수 이화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송영은

2015년 8월

# 〈세경본풀이〉 구조와 인물 연구

지도교수 이화형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한국문화전공

송영은

2015년 8월

# 송영은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교수 \_\_\_\_\_ (인)

부심교수 \_\_\_\_\_ (인)

부심교수 \_\_\_\_\_ (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5년 8월

## 〈세경본풀이〉 구조와 인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송영은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의 큰곳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로서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장편이며, 뛰어난 작품” 평가되고 있다. 〈세경본풀이〉는 ‘주인공 자청비가 일련의 수난을 극복하고 세경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주로 ‘제의적 연행방식’을 통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스토리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놀이성이나 연극성을 찾을 수 있다. 무가 속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위, 사건의 전개는 하나의 극적 장면을 연상케 한다. 연극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해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공간적 유형과 마치 ‘~인 것처럼 하다’라고 하는 가상의 사건 또는 행위 양식들이 제주 무가에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무가의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장성과 ‘~인 것처럼 하다’라는 이야기성은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고에서는 서사무가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인 〈세경본풀이〉를 ‘굿’이라고 하는 전체적 연행과정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행과정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텍스트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차용해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분석하고, 인물을 성격과 역할로 나누어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독립적인 텍스트로서의 무가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제주도 무속의 특징을 설명하고, 스토리텔링의 문자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스토리텔링과 무가와와의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자의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분석의 틀로 사용한 아크플롯, 시퀀스 어프로치, 영웅의 여행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III장과 IV장은 본격적인 〈세경본풀이〉 분석이다. III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세경본풀이〉를 분석하였다. 아크플롯은 이야기의 보편성을, 시퀀스 어프로치는 역동성과 극성을, 영웅의 여행은 자발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구조 분석의 결과 〈세경본풀이〉는 제시한 분석의 틀에 적합한 이야기임을 증명하

였다. 아크플롯을 통해 <세경본풀이>가 보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환이라는 소통 방식을 표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퀀스 어프로치를 통해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극적 의문에 대해 극적 긴장감, 극적 아이러니, 따라다니는 요인, 텔레그래핑이라는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 답변을 제공하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웅의 여행을 통해 <세경본풀이>를 자청비의 자발성을 부각시키며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하는 영웅의 모습을 완성시키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어 감정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이야기임을 증명하였다.

IV장에서는 <세경본풀이>의 인물을 인용문을 통해 성격과 역할로 나누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여, 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주인공인 자청비는 미를 탐하지만 정리와 신의를 중시하는 성격을 가진, 지혜로운 영웅이 되어가는 인간으로 해석하였다. 문도령은 목표의식이 결여된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현재적 진실에 충실한 성격으로, 정수남이는 근심걱정 없는 교활한 성격을 가진 코믹한 장난꾸러기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인물의 역할만이 중요시되는 등장인물은 관문 수호자와 정신적 스승이라는 역할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주제어: <세경본풀이>, 무가, 스토리텔링, 자청비, 문도령, 정수남이, 아크플롯, 시퀀스 어프로치, 영웅의 여행

## 목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방법 .....	6
II. 이론적 배경 .....	7
1. 제주도 무속 .....	7
2. 무가의 스토리텔링 .....	10
3. 구조 분석 .....	13
III. 구조로 본 <세경본풀이> .....	19
1. 보편성: 아크플롯(archplot) .....	19
2. 역동성과 극(劇)성: 시퀀스 어프로치(sequence approach) .....	38
3. 자발성: 영웅의 여행(the hero's journey) .....	52
IV. 인물로 본 <세경본풀이> .....	64
1. 지혜로운 영웅이 되어가는 인간: 자청비 .....	64
2. 감정에 휘둘리는 우유부단한 성격: 문도령 .....	72
3. 교활하고 코믹한 말썽꾸러기: 정수남이 .....	78
4. 관문수호자와 정신적 스승: 기타인물 .....	82
V. 결론 .....	90
참고문헌 .....	92
Abstract .....	95



## 표 목차

〈표 1〉 큰굿의 제차순서와 내용 .....	8
〈표 2〉 자청비의 행동을 통해 부여된 임무 .....	20
〈표 3〉 인물 간 교환 관계 .....	31
〈표 4〉 〈세경본풀이〉의 3막 8시퀀스 .....	39
〈표 5〉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의 여행’과 〈세경본풀이〉의 ‘영웅의 여행’ 구조 비교 ·	53
〈표 6〉 정신적 스승의 역할과 목적 .....	90



# I. 서론

## 1. 연구목적

무속의례는 신성한 종교적 제의이면서 동시에 오랫동안 한국의 서민들에게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이자 즐거운 축제로까지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전 세계의 어떤 샤머니즘도 우리의 무속만큼 역사성과 사회성을 띄면서 다양하고 심오하며 예술적인 의례는 없다.<sup>1)</sup> 이렇듯 무속의례는 오락성과 현장성을 가진 연희이며, 다양성을 갖춘 예술이다.

오늘날 제주도는 1만 8천여 신화가 존재하는 이른바 ‘신들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신화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조건에 따른 정치적 제약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지배질서와 이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유교적 사유보다는 부족 공동체의 토착성과 고대적 사유가 남아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사무가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sup>

본고에서 논의할 <세경본풀이><sup>3)</sup>는 제주도의 큰곳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로서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장편이며, 뛰어난 작품”<sup>4)</sup>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경본풀이>는 ‘주인공 자청비가 일련의 수난을 극복하고 세경신이 된다’는 이야기(story)<sup>5)</sup>를 담고 있으며, 작가인 심방들이 여전히 구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비문학이라는 담화(discourse)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주로 ‘제의적 연행방식’을 통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그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스토리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놀이성이나 연극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나 행위 또는 그로 인해 전개되는 사건들은 마치 살아있는 배우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극적 장면을 연상케 한다. 즉 무가의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위에는 극의 다양한 기

1) 이화형, 『민중의 꿈, 신앙과 예술』, 푸른사상, 2014, 89면.

2)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사, 2011, 23~24면 참조.

3) 지금까지 채록된 <세경본풀이> 이야기는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 <서경본> 등으로 다양하지만 서사원형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09면.

5) 이야기를 지칭하는 용어는 스토리, 내러티브, 서사, 담화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그 의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야기를 논할 때, 흔히 서사, 내러티브(narrative), 스토리(story), 담론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서사란, 인간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어적 재현 양식이라고 정의된다. 내러티브는 실제 혹은 허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것 또는 기술(writing)이라는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국내의 연구에서 ‘서사’개념을 ‘이야기’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사’개념을 ‘내러티브’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채영, 원형서사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 ‘춘향’ 원형서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62면.

본고에서는 채트먼의 논의에 따라 서사(narrative)의 구성요소인 이야기(story)로 용어를 한정한다.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호적 요소들이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연극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해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공간적 유형과 마치 ‘~인 것처럼 하다’라고 하는 가상의 사건 또는 행위 양식들이 제주 무가에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6)</sup>

즉 무가의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장성과 ‘~인 것처럼 하다’라는 이야기성은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스토리텔링<sup>7)</sup>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서사와 드라마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개념이 모호해졌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서사와 드라마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현장성과 이야기성을 동시에 갖춘 무가의 내적 연구는 신화의 측면으로 바라본 외적 연구에 비해 그 성과가 미진하다. 이는 다양한 신화적 모티프, 다채로운 삽화, 탄탄한 구조, 매력적인 등장인물 등 무가를 분석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사무가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인 <세경본풀이>를 ‘굿’이라고 하는 전체적 연행과정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행과정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텍스트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차용해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분석하고, 인물을 성격과 역할로 나누어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독립적인 텍스트로서의 무가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무가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세경본풀이>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속농경신화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 주인공인 자청비의 원형을 밝혀형상화하려는 연구,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적 수용이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본풀이가 신의 내력을 소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무속농경기원 신화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이수자<sup>9)</sup>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이수자는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남장과 여장은 남성의 여성화 또는 여성의 남성화를 의미하며 곧 남녀양성의 내재적인 성결합상태인 양성구유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주적 풍요, 오곡의 풍년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세경본풀이> 전체를 통해 반복하여 나타나는 남녀결합담은 풍농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여성이 가진 생산과 번식의 신비를 연유로 세경신을 여성신으로 해석하고, 농경신의 본풀이 속에 목축신에 대한 본풀이가 함께 구술되는 것은 농경에 가축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6) 배진섭, 「제주도 12본풀이의 ‘놀이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 실행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2면 참조.

7)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본 논문의 II장 ‘2. 무가의 스토리텔링’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8) 신아영, 『스토리텔링과 영화』, 연극과 인간, 2011, 8면 참조.

9) 이수자, 「제주도 무속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뒤이어 강진옥<sup>10)</sup>은 남녀인물들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죽음과 재생의 구조는 농경적 원리에 기반한 생명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세경본풀이>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출산화소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살해된 남성인물의 반복되는 소생 의례가 농경적 원리를 반영하는 그 대안적 관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재용<sup>11)</sup>은 자청비의 서사적 일생이 탄생, 사랑, 투쟁, 그리고 결실이라는 네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이 농경의 신이라는 자청비의 신직을 염두에 둔다면 앞서 말한 네 단계는 계절의 순환과 맞추어 농경의 진행을 반영한다고 해석하였고, 오세정<sup>12)</sup>은 자청비의 서사가 문도령으로 대표되는 천상의 신성성에서 여성이 가진 대지의 출산력으로 초점이 바뀐 것에 주목하고 정수남과의 새로운 관계맺음을 농경문화 체제 내 목축문화를 흡수하는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세경본풀이>를 농경풍요의 원리를 가진 신화로 보고 풍요의 근원이 천상에 있으며 천상에서 유래한 곡종은 지상의 풍요를 보장한다는 신화적 관념의 소산으로 해석하는 정진희<sup>13)</sup>의 논의와 제주도라는 지역이 가진 특수성에 주목하여 하늘과 땅의 관계가 불안정한 것은 소통의 일방성 때문이며, 목축과 농경의 관계가 불안정한 것은 조건적 상호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류정월<sup>14)</sup>의 논의가 있다.

한편 서사의 주인공인 자청비가 상세경이 되지 않고 중세경으로 좌정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허남춘<sup>15)</sup>은 <세경본풀이>의 주역이지만 중세경이 된 자청비와 상세경인 문도령, 하세경인 정수남의 관계를 농사가 하늘의 자연적 기후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수자의 견해에 동조하여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을 천지의 부조화로, 만남의 성사를 천지의 조화, 수확물의 결실로 해석한다. 문도령은 하늘의 존재로 상위질서를 상징하고, 자청비는 땅의 존재로 하늘의 조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자연의 힘을 상징한다고 보고, 자청비의 심술은 일기의 부조화와 조화의 반복과정이며 자청비의 행동양식 자체가 자연의 운행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히며 그 기저에는 시간의 질서라는 과학적 지식이 흐른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원오<sup>16)</sup>는 자청비가 중세경으로 좌정하고 문도령이 상세경으로 좌정한 이유를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사회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정인혁<sup>17)</sup>은 자

10)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구비문학회, 2005.

11) 김재용, 「무속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비평학회, 2009.

12)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남성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3) 정진희, 「풍농의 원리: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14)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3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5)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16) 최원오, 「곡물 및 농경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흡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청비가 중세경에 좌정한 이유가 자청비의 생태적 세계관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자청비가 실현하는 윤리적 가치는 선과 악을 이분법적 대립의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악한 것도 세계의 일부로 인정하는 조화로운 세계관을 보인다고 설명하며 천상과 지상, 우주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上도 下도 아닌 中세경에 위치한 자청비의 생태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신동흔<sup>18)</sup>은 자청비가 일련의 행적을 통해 땅을 살리고 또 하늘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균형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농경신인 중세경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세경본풀이〉가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경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유일한 신화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작품의 여성 주인공 자청비가 가진 독특한 성격도 연구의 목적에 한 몫을 한다. 자청비의 주체적인 성격을 강조한 연구로는 고은지<sup>19)</sup>, 임명숙<sup>20)</sup>, 권태효<sup>21)</sup>의 논의가 있으며, 사랑의 여신이라는 점을 부각한 연구로는 좌혜경<sup>22)</sup>의 논의가 있다. 자청비가 양성론적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있다는 김정숙<sup>23)</sup>의 논의와 젠더역전을 통해 남성성을 획득하지만 여성성을 잃지 않는 개성적 인물로 보는 구은모<sup>24)</sup>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전반부의 자청비와 후반부의 자청비의 성격이 다른 점에 주목하여 주체적 여성과 남성 지배문화에 의해 주체화된 여성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라는 시각을 제시한 조현설<sup>25)</sup>의 논의도 간과할 수 없다.

수난담과 좌정담을 중심으로 자청비라는 여성신의 원형이나 형상화를 밝히는 연구로는 수난에서 좌정으로의 여행이 자청비의 질적 변화라는 길태숙<sup>26)</sup>의 논의를 시작으로 풍요와 창조의 여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진은진<sup>27)</sup>, 이유경<sup>28)</sup>, 오정미<sup>29)</sup>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여행이 자청비에게 신직을 부여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17)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연구 -‘中’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18) 신동흔,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3.

19)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20)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21)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22)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 30-1, 한국민속학회, 1998.

23)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4) 구은모, 「〈세경본풀이〉와 운영전의 인물비교 연구, 여성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5) 조현설, 「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6) 길태숙,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 〈발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16, 열상고전연구회, 2002.

27)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8)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는 심치열<sup>30)</sup>, 염원희<sup>31)</sup>의 논의가 이를 확인한다. 즉 수난에서부터 좌정하기까지의 고단한 여행은 인간과 신으로서의 간극을 매워나가는 길이며 이를 통해 자청비는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양민주<sup>32)</sup>는 자청비의 남장이 가부장적 사회를 극복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여성인물이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기 위해 요구되는 힘의 획득 과정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 외의 논의로는 이본을 연구한 박경신<sup>33)</sup>, 배진희<sup>34)</sup>, 최영숙<sup>35)</sup>의 논의와 적층양상을 연구한 권태효<sup>36)</sup>, 이영지<sup>37)</sup>, 조현희<sup>38)</sup>의 연구가 있으며, 김병주<sup>39)</sup>, 김선희<sup>40)</sup>의 심리학적 연구, 강정임<sup>41)</sup>, 김재성<sup>42)</sup>, 황은진<sup>43)</sup>의 교육학적 연구 등이 있다.

〈세경본풀이〉가 가진 신화적 의미나 자청비가 보여주는 세계관은 앞서 언급한 연구로써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본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동윤<sup>44)</sup>, 김은정<sup>45)</sup>, 송태현<sup>46)</sup>은 이야기에 주목하여 현대적 변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세경본풀이〉가 가진 신화적 의미를 밝히고 여주인공 자청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의 변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성과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 
- 29)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 30)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 31)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수난과 신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32) 양민주,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男裝)의 기능과 의미-여성영웅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 33)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 34) 배진희, 「〈세경본풀이〉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5) 최영숙,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6) 권태효,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 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1, 한국민속학회, 1999.
- 37) 이영지,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의 적층양상」, 『배달말』 42,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8.
- 38) 조현희, 「〈세경본풀이〉의 연구: 양산백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39) 김병주, 「여성신화 〈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한국심리학회, 2010.
- 40) 김선희, 「〈세경본풀이〉 연구: 분석심리학적 접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1) 강정임, 「〈세경본풀이〉의 전승양상 및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2) 김재성,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무속텍스트의 문학교육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3) 황은진, 「〈세경본풀이〉의 교육적 효용과 활용방안 연구 -서사구조와 여성상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4)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양상 연구: 자청비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1, 한국비평문학회, 2009.
- 45) 김은정, 「자청비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46) 송태현, 「신화와 문화콘텐츠 - 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독립된 텍스트로서 <세경본풀이>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 요소보다는 곳의 연행과정이라는 제차의례의 맥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본고의 <세경본풀이>가 연행과정과는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이며, 아직까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작품을 분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그 틀을 통해 <세경본풀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본고의 목적은 <세경본풀이>를 연행과정과는 독립된 하나의 스토리로 보고,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시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자는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세경본풀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드라마 이론은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sup>47)</sup>의 『시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지만 현대극에 이르러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후 서사화 경향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와 서사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대안적 관점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여기에서 스토리텔링의 문자적 의미를 제시하고, 스토리텔링과 제주 무가와와의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자의 관점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분석의 틀로 사용될 아크플롯, 시퀀스 어프로치, 영웅의 여행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III장과 IV장은 본격적인 <세경본풀이> 분석이다. III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세경본풀이>를 분석한다. 아크플롯은 이야기의 보편성을, 시퀀스 어프로치는 역동성과 극(劇)성을, 영웅의 여행은 자발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IV장에서는 <세경본풀이>의 인물을 인용문을 통해 성격과 역할로 나누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여, 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를 고찰한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할 텍스트는 제주도의 본풀이 중 하나인 <세경본풀이>이다. 제주도 본풀이의 내용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1980,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0,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문무병, 『제주도 무속 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집』, 칠머리 당굿 보존회, 1998 등이 있다. 연구자는 이 중 진성기가 채록한 이달춘 본을 기본으로 한다.

47) 『시학』은 흥미로운 연극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책으로서 여전히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살아 있는 작업서이다. 마이클 티어노는 『시학』을 바탕으로 영화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 역, 『시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마이클 티어노, 김윤철 역,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우라, 2008.

48) 신아영, 앞의 책, 3면.

## II. 이론적 배경

### 1. 제주도 무속

#### 1) 제주도 무속의 일반적 특성

제주도는 한국반도의 남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제일의 큰 섬이다. 감자형의 대화산도인 본섬과 비양도, 상하 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등 8개의 유인도와 54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제주도 통계에 의하면 조선시대 말기 19세기에는 8만여 명대를 유지했고, 해방 후 도로 승격하여 1950년대에는 20만 명대에서 점차 인구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에는 50만 명 선을 넘었으나 지금은 그 선을 보합선으로 유지하고 있다.<sup>49)</sup>

제주도의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위치와, 한국 제일의 큰 섬이라는 그 면적과, 일정한 인구를 계속 간직해 왔다는 점 등의 이 세 조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이 세 조건이 종합적 유기체로서 제주도로 하여금 한국문화의 한 지방형과 고행(古型)을 유구히 온존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기 때문이다.<sup>50)</sup>

따라서 탐라는 부족공동체의 고유성을 강하게 지키며 당분풀이를 유지할 수 있었고, 중세사회로의 전환 속에서도 고대 자기중심주의의 전통을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무속이 배척당하기보다는 무속 안에 유교와 불교를 포용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sup>51)</sup>

중세화를 강하게 경험하지 않았던 이유 이외에 무속 의례인 굿이 소멸되지 않고 강한 생명력을 유지했던 이유는 바로 그 유연성이다. 제의의 장소가 헐리거나 훼손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가차 없이 이전을 하는 유연성, 의례의 까다로운 절차를 줄여 평상복으로도 의례를 담당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 탐라 굿의 특징이다. 그리고 사제자가 권위적이지 않아 단골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세속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탐라 굿이 지속성을 가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굿이 제의의 기능 이외에 놀이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고, 신화 또한 신성한 신의 기원이란 측면 이외에 재미있는 이야기란 흥미성의 측면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sup>52)</sup>

따라서 중앙 권력의 작용이 다소 느슨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와 제의의 유연성이 제주도의 무속이 다른 지역보다 원형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무속 의례인 굿에서 진행되는 본풀이는 신화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내

49) 제주도청, 『제주도지』 제1권, 1991, 41~47면, 장주근, 장주근 저작집 간행위원회 편,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민속원, 2013, 37면에서 재인용.

50) 장주근, 위의 책, 38면.

51) 허남춘, 앞의 책, 23~24면 참조.

52) 허남춘, 위의 책, 25면.



용의 흥미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2) 제주도의 굿

한국에서 무당의 제의를 굿이라 하고, 굿을 주재하는 사제를 무당(제주도의 경우 심방)이라고 한다. 굿을 하자면 먼저 신앙 대상으로서의 신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신과 신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전문적인 무당이 있어야 한다. 굿은 이 삼자의 긴밀한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의 관계에 따라서 무속신앙의 존립과 붕괴, 융성과 침체가 결정된다.<sup>53)</sup>

제주도의 굿은 규모에 따라서 ‘비뉘’, ‘족은굿’, ‘큰굿’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필요에 따라서 어디서나 언제나 개인 가정적으로 그 단골심방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의례들이다. 먼저 ‘비뉘’이란 ‘기원’이란 말로서 심방 한 사람만이 단지 요령만을 흔들고 악기들의 사용이나 춤도 없이 한 시간 내외로 끝내는 간단한 의례를 말한다. ‘족은굿’은 악기의 반주가 따르고 춤도 있으며, 그 굿의 목적에 따르는 특정 신격만을 모시는 개별 의례로서 하루 안에 끝내는 소규모의 굿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큰굿’은 3~4일, 도는 그 이상도 걸리며, 모든 신격을 그 위계 순에 따라서 다 모시고, 모든 필요한 기원을 연속적으로 다 올리는 큰 종합의례이다.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고, 춤도 물론 따르고, 차례로 모시는 신에 따라서 제상 차림도 다양하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신들의 본풀이가 일정한 제의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 모두 가창되며 종교와 신화의 모든 체계를 종합 제시해준다는 점이다.<sup>54)</sup>

	제차순서	내용
1	초감제	서제(序祭)로서의 청신의례, 창세신화인 천지왕본풀이 가창.
2	초신맞이	초감제에서 일단 1만8천 신을 다모셨으나, 떨어진 신이 없도록 하는 재청신의례.
3	초상제	다시 한번 더하는, 떨어진 신들의 위한 재청신의례.
4	추물공연	차린 재물을 신들께 권하고 소원을 비는 제차.
5	석살림	신들께 술, 음식을 권하고 심방, 제주, 가족들이 춤추며 신인공략하면서 기원하는 제차.
6	보세감상	신들께 폐백과 공물을 바치고 기원하는 제차.
7	불도맞이	삼승할망에 대한 산육기원의례. 삼승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들 가창.
8	일월맞이	일월신을 맞이하여 모시는 의례.
9	초공본풀이	무조신 초공 삼형제의 신화를 가창하고 기원하는 제차.
10	초공맞이	무조신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의례.
11	이공본풀이	서천꽃밭의 주화를 관장하는 이공신 신화의 가창의례.
12	이공맞이	이공신을 맞이하고 기원하는 의례.
13	삼공본풀이	전상을 관장하는 삼공신 신화의 가창의례.
14	제상제	보통 다음날 아침 시왕맞이 전에 하는 제차 청신의례.
15	시왕맞이	저승의 시왕과 그 사자를 맞고 기원하는 의례. 차사본풀이 가창. 차사와 기본성격이 같은 맹감본풀이도 가창.
16	세경본풀이	농업신 세경할망의 신화 가창과 기원의례

53) 서연호 · 김현철, 『한국연희의 원리와 방법』, 연극과 인간, 2006, 48면.

54) 장주근, 앞의 책, 103~104면.

17	삼공맞이	일면 '전상놀이'. 삼공을 맞아 사악을 구축하는 연극적 의례.
18	세경놀이	바보 농군으로 분장한 심방이 농업의 과정들을 연극적으로 실현하여 대풍을 거두는 연극의례.
19	문전본풀이	문신과 그 본처(조왕할망)과 첩(변소귀신), 자식들에 대한 신화가상으로 가내 안전을 비는 의례.
20	본향드리	그 마을 본향당신을 맞아들어 기원하는 의례. 그 마을 본향본풀이 가장.
21	각도비뉘	부엌, 고팡, 오방토신, 올래 등 집안 각처의 수호신들에게 비는 의례. 고팡의 곡물신 칠성에게 칠선본풀이 가장.
22	물놀이	여러 신들이 타고 돌아갈 말을 몰아다 신들을 태우는 내용을 노래로 부르는 송신의례.
23	도진	소위 1만8천 신을 위해 순으로 노래로 돌려보내는 송신의례.
24	가수리	신들이 돌아간 후, 아직 남아있을 잡귀들을 풀어 먹여 보내는 송신의례.

〈표 1〉 큰굿의 제차순서와 내용

큰 굿의 이러한 구성은 (1)초감제에서 (3)초상계까지는 신을 청하는 청신의례로 볼 수 있고, (4)추물공연에서 (6)보세감상까지는 모셔온 신들을 위해 공연을 하고, 폐백을 올리는 등 오신과 기원의 성격을 갖는 의례이며, (7)불도맞이에서 (21)각도비뉘까지는 개별 신들을 모시는 의례이고, (22)물놀이에서 (24)가수리까지는 송신의례이다.<sup>55)</sup>

이러한 각각의 의례에서 심방들은 신들을 불러, 그들을 위해 공연하고, 불러낸 신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굿의 구경꾼인 청중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라는 속담처럼 ‘굿도 보고 떡도 먹’으며 굿의 제의의 기능과 놀이의 기능을 모두 즐기게 되는 것이다.

### 3) 제주도의 본풀이

제주에는 1만8천 신이 산다는 신들의 고향이다. 신들의 내력을 담은 신화가 많이 남겨져 있어서 신화의 수도라고 할 만하다. 그리스·로마 신화가 기록된 것으로 최고라면 제주의 신화는 구비전승되는 것으로 최고라 할만하다. 기록된 신화는 책 속에 죽어 있는 신화다. 제주의 신화는 말과 노래 속에 살아 있다. 그래서 신화라 하기보다는 ‘서사 무가’라고 해야 하고, 신들의 근본을 풀어내는 것이니 ‘무가 본풀이’라고 불러야 옳다. 심방과 당골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어서 그냥 ‘본풀이’라고 해도 좋다.<sup>56)</sup>

‘본풀이’의 어의는 글자 그대로 ‘본을 푼다’의 명사형이다. 그것은 ‘초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식으로 그 신의 ‘본을 푸는’ 것이며, 신의 ‘근본을 해설하는 것’이다. 명사 ‘본’은 근본, 내력, 본원, 본래, 역사 등을 의미하는 말이며, 동사 ‘풀다’는 해설, 해석, 설명 등의 의미가 있다.<sup>57)</sup>

내용면에서 볼 때에는 본풀이는 신화가 가지는 설명성을 지니고 있다. 신화적 설명

55) 장휘주, 「박자와 한배로 본 제주도 무가(巫歌)의 유형과 특징」,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117면.

56) 허남춘, 앞의 책, 25~26면.

57) 장주근, 앞의 책, 77면.

성이란 원초적 과학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어린이의 흥역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어떤 신을 어떻게 위할 것인가? 죽음에 임한 병자는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를 ‘삼승할망본풀이’와 ‘차사본풀이’가 잘 설명하고 있다. 각기 신의 본이 풀리면 그것은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의 파악과 대응책의 획득이 된다.<sup>58)</sup>

제주의 본풀이 신화 속에는 음악, 미술, 문학, 춤, 연극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서사물인 신화, 서정시, 희곡의 다양한 문학 장르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주변의 예술 장르와 어떻게 교섭하면서 발전해 왔는가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특히 민중문화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굿은 민중 공동체 속에서 살아 있었고, 굿의 구술상관물인 신화에는 민중의 고난과 고난 극복의 의지, 좌절된 꿈과 부활하려는 의지, 현실 일탈과 초월의 꿈이 다채롭게 반영되어 있다. 결국 제주 신화 속에는 역사시대 이전의 오랜 과거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예술사가 담겨 있고 인생사가 담겨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sup>59)</sup>

## 2. 무가와 스토리텔링

### 1) 스토리텔링

서사(敍事), 이야기, 담론,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이야기’관련 개념들이 최근 문학 뿐 아니라 산업, 일상, 디자인, 정보통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인쇄매체 영역에서 활발하던 내러티브, 서사 개념이 이처럼 21세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이유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매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시되는 분위기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sup>60)</sup>

스토리텔링은 사건 내용인 이야기(story)와 사건 진술 형식인 말하기(Telling)의 합성어로 사건과 인물,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시작과 끝이라는 흥미 있는 사건으로 묘사되는 생동감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이것은 서사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 서사는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매체의 이야기 장르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호작용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텔링(-ing)에서 현재진행형을 사용하는 것도 상호작용적 시간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계속 말하여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형식은 문자나 언어가 될 수가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이미지, 사물, 공간까지 가능하다. 서사는 음성언어 또는 문자언어

58) 장주근, 앞의 책, 93면.

59) 허남춘, 앞의 책, 27~28면.

60) 한혜원,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용방안 연구」,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2,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회, 2007, 1~2면.

의 형식으로 인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변화하고 진보하였다. 전통적 의미의 서사는 1인의 화자(혹은 저자)가 선형적이고 종결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면 스토리텔링은 비선형적이고 끝나지 않는(개방성)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5감을 지속적으로 자극, 접촉함으로써 화자(혹은 저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게 된다.<sup>61)</sup>

전통적인 의미에서 서사와 드라마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분을 처음 제기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서, 그가 『시학』에서 제기한 이러한 구분은 이후 서양문학사와 서양연극사를 통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왔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구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극 연대사에서 그러한 징후는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후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종래 비(非)극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서사적 요소와 기법을 브레히트가 연극에 적극 차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대 드라마의 중요한 징후 중의 하나는 현대 드라마의 서사화경향이라고도 받아들여진다.<sup>62)</sup>

그런데 최근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서사와 드라마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 장르에서 흔히 쓰이는 말”<sup>63)</sup>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 특징은 “이야기성 · 현장성 · 상호작용성”<sup>64)</sup>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야기에 참여하는 현재성 · 현장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장성과 상호작용성은 바로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이 다른 예술장르와 구분되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5)</sup> 특히 이러한 현장성과 상호작용성은 관객으로 하여금 독특한 연극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데, 스토리텔링에서 주목하는 요소 또한 수용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참여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동”<sup>66)</sup>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토리텔링이 “옛날이야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며<sup>67)</sup> “오래전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부터 존재해온 인간의 전통적인 이야기방식”으로써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창조하는 허구의 공간은 문자 이전 시대에 인간이 구연적 상황에서 이야기를 즐기던 실제공간을 디지털로 가상현실화시킨 대체공간”<sup>68)</sup>이라고 할 수 있다.<sup>69)</sup>

61) 김기국, 「스토리텔링의 이론적 배경 연구, 기호학 이론과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회 2007년 춘계학술발표회, 2007, 153면.

62) 페터 손디, 안동집 역, 『현대 드라마의 이론』, 탐구당, 1989.

63)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18면.

64) 김수복,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위한 『질마재 신화』 공간 분석」, 『한국문예창작』 7, 한국문예창작회, 2008, 203면.

65) 신아영, 앞의 책, 9면.

66) 최혜실, 앞의 논문, 2006, 112면.

67) 박덕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활성화를 위한 시론」, 『한국문예창작』 7-1, 한국문예창작회, 2007, 4면.

68) 강상대,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연구」, 『한국문예창작』 6, 한국문예창작회, 2007, 4면.

69) 신아영, 위의 책, 같은 면.

## 2) 스토리텔링과 무가의 상관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의 특징은 이야기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을 흔히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말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환희, 우울, 기쁨, 슬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감정을 말한다.<sup>70)</sup>

이러한 감정을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굿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당들이 굿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보자. 제물을 차려 놓은 굿상을 중심으로 굿판이 펼쳐지고, 그 굿판을 중심으로 구경꾼들이 모여든다. 공수를 하고 춤을 추며 굿판을 뛰어다닌다. 신명이 난다.

무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모셔 놓고, 혹은 신을 향하여, 마치 그 신이 그 자리에 실재하듯이, 모든 절차와 행동과 말을 연출하고 시행한다. 흡사 일인극 배우처럼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능숙하게 해낸다. 무당은 실제 시간과 공간과 현실적 삶을 굿의 시간, 공간, 행위로 즉 굿의 세계(굿판)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하여 굿판은 성스러운 제의 장소가 되고, 놀이판과 같이 되고, 연극무대와 같이 된다. 무당굿이야말로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종교적으로 가장된 놀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굿은 일종의 종교극, 제의극 혹은 진지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sup>71)</sup>

무당의 변신과 가장은 굿놀이의 본질적인 연행방법이다. 무당은 인격이지만 신격이 되기도 하고, 놀이를 위해 여러 역할(굿의 등장인물)로 변신을 거듭한다. 굿 가운데서 어떤 신격이나 인격의 성격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 그런 성격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면 할수록, 그 굿은 놀이성이 강해지면서 연극적인 표현방법이 보다 다원다양(多元多様)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신과 더불어 무당은 굿의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매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수시로 가장을 반복한다. 이러한 행위는 제의인 동시에 연희이기도 하다. 제의는 연희에 의해 실현되고, 연희는 제의를 상상적인 놀이로 끊임없이 변화시킨다.<sup>72)</sup>

굿에서의 갈등은 일상적인 사실로부터 모방되는 것이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선행적·예행적·모방으로 발전하며 결과적으로는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상상적·창조적 모방에 까지 이른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굿에서의 갈등은 ‘장차 일어나야 할’,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의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들은 일단 현실 그 자체는 아니며 현실과 구별되는 집약된 갈등의 구조를 별도로 형성하게 된다.<sup>73)</sup>

70) 황신웅, 『스토리텔링 교육을 아우르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32면.

71) E. T. Kirby, Ur-drama: The Origins of Theatr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서연호·김현철, 『한국 연희의 원리와 방법』, 연극과 인간, 2006, 50면에서 재인용.

72) 서연호·김현철, 위의 책, 73면.

73) 이두현, 「풍년을 비는 농경의례 소놀이굿」, 『한국의 굿』 13, 열화당, 1989, 80~98면 참조, 서연호·김현철,

그리고 그 곳의 놀이성과 연희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은 곳의 사실 혹은 곳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무가라는 텍스트이다. 무가의 등장인물의 대화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장성을 나타내며 ‘~인 것처럼 하다’라는 이야기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중과 심방의 관계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는 가감되고 윤색된다. 즉 무가는 과거부터 전해져 온 스토리텔링의 한 방식인 것이다.

### 3. 구조 분석

#### 1) 아크플롯(archplot)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영화, 소설, 연극, TV, 라디오 드라마 등 모든 종류의 구술, 기술, 영상 서사물을 통틀어서)를 접한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스토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의 스토리는 소설, 영화, 연극 등 다양한 표현 형식을 빌어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와 각기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전이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 내부에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고유의 패러다임이 들어 있으며, 그것들은 각각의 표현 영역들(구술언어, 기술언어, 영상, 음향 등의 매체)과는 상관없는 개념이기에 가능하다. 부연하면 이야기의 패러다임이란 하나의 이야기가 이야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구성 요소인 것이다.<sup>74)</sup>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방식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 아크플롯(고전적 설계), 미니플롯(미니멀리즘), 안티플롯(안티플롯)이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작가들은 진실성과 삶의 방식, 세계관을 보여 준다.<sup>75)</sup> 이러한 이야기의 삼각형의 정점에는 고전적 설계를 구성하는 원칙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 근본적이고 불변하는 이야기 구성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sup>76)</sup> 따라서 아크플롯은 고대의 것도 현대의 것도 아니며, 서양의 것도 동양의 것도 아니다. 모든 인류에 공통된 것이다.<sup>77)</sup>

아크플롯의 특징은 다음의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진다.

아크플롯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로 외부의 저항 세력에 맞서 싸우는 활동적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주인공의 활동은 연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연속적이고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허구적 사실성 속에서,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마감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된다.<sup>78)</sup>

앞의 책 73면에서 재인용.

74) 서정남, 『영화서사학』, 생각의 나무, 2004, 9면.

75) 로버트 맥기, 고영범·이승민 역,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황금가지, 2002, 75면 참조.

76) 맥기, 위의 책, 같은 면.

77) 맥기, 위의 책, 100면.

78) 맥기, 위의 책, 96면.

아크플롯은 닫힌 결말, 즉 이야기 속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지고 불러일으켜진 모든 감정들이 충족되는 결말을 가진다. 독자들은 완결되고 닫힌 경험을 안고 극장을 떠난다.<sup>79)</sup> 닫힌 결말에서 이야기의 절정은 절대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며 관객들의 감정 역시 충족된다.<sup>80)</sup>

아크플롯은 외적 갈등에 중점을 둔다. 등장인물들이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보다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 사회 기관들과의 갈등 또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힘들과의 갈등 등이 더 강조된다.<sup>81)</sup>

고전적인 이야기들에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아이이건 단 한사람의 주인공만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있다. 하나의 주된 이야기가 영화의 상영 시간 전체를 장악하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82)</sup> 아크플롯의 단일 주인공은 계속해서 고조되는 긴장과 변화 속에서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나간다. 활동적인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과 세계의 직접적인 갈등 속으로 뛰어든다.<sup>83)</sup>

아크플롯은 어떤 한 시점에서 시작하여 대개 연속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중간 중간을 생략하기도 하면서 진행하다가 결국 시작보다 시간적으로 진전된 지점에서 결말을 맺는다. 회상 기법이 사용될 경우에도 관객들이 일시적으로 변한 사건 배열의 시간적 순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용된다.<sup>84)</sup>

아크플롯은 이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의 원인이 어떻게 특정한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 효과는 또한 어떻게 해서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지 등에 주목한다. 아크플롯에서는 삶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관계의 가능성들을 눈에 보이게 뻗은 것으로부터 불가해한 것까지 아주 작고 긴밀한 것으로부터 대서사에 이르는 것까지, 개인의 신분에서부터 국제적인 정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해 놓는다. 이 분류표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파악할 경우 등장인물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과성의 네트워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sup>85)</sup>

아크플롯은 일관되는 사실성 속에서 펼쳐지지만, 이 경우에 사실성이란 실제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관되는 사실성이란 인물들과 세계 사이의 관계 방식을 설정해내는 허구적 장치로서, 이야기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 관계에 의해

79) 맥기, 앞의 책, 79면.

80) 맥기, 위의 책, 80면.

81) 맥기, 위의 책, 같은 면.

82) 맥기, 위의 책, 81면.

83) 맥기, 위의 책, 82면.

84) 맥기, 위의 책, 83면.

85) 맥기, 위의 책, 85면.

서만 의미는 창조될 수 있다. 일단 이야기의 인과율을 만들어내고 나면 아크플롯을 사용하는 작가는 스스로 창조해 낸 규범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sup>86)</sup>

즉 아크플롯은 단일 주인공, 활동적인 주인공, 연속적인 시간, 외적 갈등, 인과성, 일관된 사실성, 닫힌 결말이라는 특성을 가진다.<sup>87)</sup>

## 2) 시퀀스 어프로치(sequence approach)

전 세계의 영화 산업을 주도하는 할리우드 영화는 보편적인 이야기 법칙<sup>88)</sup>을 가지고 있다. 이 보편적인 이야기 법칙은 할리우드 작가들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힌 전형적인 드라마의 구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극을 ‘전체적인 활동’이라고 묘사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전체란 시작, 중간, 그리고 결말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드라마를 간명하게 세 부분으로 묘사한 시초이다.<sup>89)</sup>

사실 3막 구조<sup>90)</sup>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하기까지 대략 20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설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가정을 꾸리고 퇴사를 하기까지 40년을 전개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퇴사하여 인생을 마치기까지 20년을 해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3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3막 구조는 극적 긴장감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다. 캐릭터가 뭔가를 원할 때 그 캐릭터는 과연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극적 의문(dramatic question)’이라고 알려진 이것이 3개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문의 제기, 그 의문에 대한 숙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것이다. 1막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2막에서는 캐릭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난국을 헤치면서 그 의문을 풀어내는 ‘숙고(deliberation)’가 이루어지며, 3막에

86) 맥기, 앞의 책, 87면.

87) 맥기, 위의 책, 79~87면 참조.

88)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시간짜리의 할리우드 영화일 경우엔 대략적으로 1막이 30분, 2막이 1시간, 3막이 30분인 비율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흥행을 보장해 주는 6개의 법칙이 있다. 권승태, 『3막의 비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1~2면 참조.

89) 폴 조셉 줄리노, 『시나리오 시퀀스로 풀어라』, 황매, 2009, 19면.

90)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는 3막 구조를 제시한 이후 할리우드에서는 시드 필드(Syd Field)의 『시나리오란 무엇인가(Screenplay)』, 1979에서 3막 구조를 통한 이야기 작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이야기의 3막 분할을 시작, 대립 해소로 묘사했고 그것들은 각각 전환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외에 다른 의견들도 존재하는데 크리스틴 톰슨은 『스토리텔링 인 더 뉴 할리우드(Storytelling in the New Hollywood)』, 1999에서 191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제작된 100편이 넘는 작품을 검토한 끝에 3막이 아니라 4막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발견해내었고, 이를 배치, 분류를 일으키는 액션, 전개, 절정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데이비드 보드웰은 『픽션 필름에서의 내레이션(Narration in the Fiction Film)』, 1985에서 자신이 ‘표준적’이라고 일컫는 스토리 포맷을 여섯 부분으로 정리해 환경과 인물의 소개, 현 상황에 대한 설명, 분류를 일으키는 액션, 뒤따르는 사건들, 결과, 결말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었다. 줄리노, 위의 책, 20면 참조.



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sup>91)</sup>

시퀀스 어프로치는 학문적으로는 80년대 초반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최근에는 채프만 대학에서 교육되었다. 시나리오 작법 교수 중 한 명인 프랭크 대니얼은 학생들이 더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쓸 수 있도록 시퀀스라는 개념을 부활시켜 역동적이면서도 극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sup>92)</sup>

이 시퀀스 어프로치는 3막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인 극적 긴장감 속에서 극적 의문을 연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퀀스들은 실제의 결말이 나오기도 전에 관객들에게 매우 여러 가지 가능한 결과들을 제시한다.<sup>93)</sup> 시퀀스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3막 8시퀀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퀀스 1과 2는 1막으로서 주인공의 소개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 긴장 축을 형성한다. 2막은 시퀀스 3에서 6까지이며 문제의 등장과 해결 등을 담당한다. 3막은 시퀀스 7에서 높아지는 위기감과 격앙되는 진행 속도를 보여주고 시퀀스 8에서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는 특성을 가진다.<sup>94)</sup>

### 3) 영웅의 여행

모든 이야기는 신화, 민담, 꿈 그리고 영화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조상의 공통 요소로 구성되어 있<sup>95)</sup>는데, 그것을 ‘영웅<sup>96)</sup>의 여행’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영웅의 여행’이라는 개념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조셉 캠벨(Cambell, Joseph)의 책을 통해 세계의 신화를 분석하여 정리한 개념으로서, 그는 신화들이 모두 동일한 이야기를 밑바탕 삼아 무한한 변용을 이루어 가며 끝없이 되풀이된다는 점을 발견했다.<sup>97)</sup>

그는 모든 스토리텔링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고대 신화의 패턴에서 일탈하지 않으며, 모든 스토리는 조악한 농담에서부터 지극히 고상한 문학에 이르기까지 영웅의 여행이라는 용어, 즉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그 원리로 그려낸 ‘원질신화

91) 줄리노, 앞의 책, 28~29면.

92) 줄리노, 위의 책, 16면.

93) 줄리노, 위의 책, 32면.

94) 줄리노, 위의 책, 32~40면 참조.

95) 크리스토퍼 보글러, 함춘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무우수, 2005, 35면.

96) 영웅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복종(자기 극복)의 기술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복종인가? 이것은 바로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수수께끼이며, 영웅의 바탕이 되는 미덕과 역사적 행위가 풀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영웅은 과거 개인적, 지방의 역사적 제약과 싸워 이것을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정상의 인간적인 형태로 환원시킬 수 있었던 남자나 여자를 일컫는다.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29~33면 참조.

97) 보글러, 위의 책, 48면.

(monomyth)'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up>98)</sup> 따라서 영웅의 여행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 심연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영원히 용솟음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정도로 요지부동한 요소들의 집합체이다.<sup>99)</sup>

그것은 환상적인, 불가능한, 혹은 비실재적인 사건을 그린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면에서 타당성을 담지하며 감정적인 면에서도 매우 현실적이다. 이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지닌 보편적 힘을 설명해 준다. 영웅의 여행을 모형으로 삼아 구축된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가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에 내재하는 보편적 연원에서 나와 보편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까닭에,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sup>100)</sup>

영웅의 여행은 단 하나로서 실재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여러 차원으로 확장된 듯이 보이는 일종의 패턴이며 기쁨과 절망, 인생에서 영혼의 성장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또한 고금의 이야기 내에 세심하게 구축된 삶의 교훈에 대한 길잡이로도 읽힐 수 있다.<sup>101)</sup>

변주가 무한정 가능하여도, 본질에 있어서 영웅의 이야기는 항상 여행이다. 영웅은 편안한 일상적 주위 환경을 떠나 도전적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위험을 감수하는 여행을 한다. 그것은 미로, 숲, 동굴, 낯선 도시 혹은 국가 등의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의 외부로 향한 여행일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장소는 영웅이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세력과 대결하는 장이 된다.<sup>102)</sup>

조셉 캠벨이 제시한 영웅의 여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원래 살던 오두막이나 성에서 떠난 신화 속 영웅은 꿈에 빠지거나, 납치당하거나 자진해서 모험의 문턱에 이른다. 여기에서 영웅은 길을 안내할 그림자 같은 부정적인 존재를 만난다. 영웅은 이를 퇴치하거나 이 권능을 지닌 존재와 화해하여 산 채로 암흑의 왕국으로 들어가거나(골육상잔, 용과의 싸움: 제물 헌납, 혹은 호부에 의지하여), 적대자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의절, 고난). 이 문턱을 넘어서 영웅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한 힘에 이끌려 이 세계를 여행하는데, 경우에 따라 위협을 받기도 하고(시련),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기도 한다(협력자). 신화적인 영역의 바닥에 다다르면, 영웅은 절대(絶代)한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긴 보상을 받는다. 이 승리는 세계의 어머니인 여신과의 성적 결합(신성한 혼인), 창조자인 아버지에 의한 인정(아버지와 화해), 그 자신의 신격화(神格化), 혹은 적대적인 능력이 그의 힘에 벽찰 경우에는 전리품 가로채기(신부 훔치기, 불 훔치기)로 나타난다. 원래 이 승리는 자기의식의 확장이며, 존재와의 합일이다(깨달음, 변모, 자유), 마지막 단계는, 귀환이다. 영웅이 그 권능의 축복을 받은 경우 전리품은 영웅을 보호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웅은 도망치고, 부정적인 세력

98) 보글러, 앞의 책, 48면.

99) 보글러, 위의 책, 26면.

100) 보글러, 위의 책, 49면.

101) 보글러, 위의 책, 14면.

102) 보글러, 위의 책, 52면.

의 추격을 받는다(모습을 바꾸며 도주하기, 장애물을 피하며 도주하기). 귀환의 관문에서 초월적인 권능의 소유자는 뒤에 남아야 한다. 영웅은 혼자서 그 무서운 왕국에서 귀환한다(귀환, 부활). 그가 가져온 전리품(홍익)은 세상을 구원한다(불사약).

조셉 캠벨<sup>103)</sup>

이 영웅의 여행이라는 캠벨의 개념은 할리우드의 작가, 프로듀서, 감독, 디자이너에게 스토리텔링을 정교화 하는 데 필요하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로 채워져 있는 훌륭한 연장통<sup>104)</sup>의 역할을 하였다. 이 신화적 패턴을 자신의 목적과 특성문화의 필요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까닭에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05)</sup>

103) 조셉 캠벨, 앞의 책, 316~317면.

104) 보글러, 앞의 책, 47면.

105) 보글러, 위의 책, 50면.



## II. 구조로 본 <세경본풀이>

II장은 본격적인 <세경본풀이>의 분석이다. 앞에서 살펴본 분석의 틀로써 <세경본풀이> 이야기 전반을 분석한다. <세경본풀이>는 제주도 큰 곳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로써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장편이며, 뛰어난 작품”<sup>106)</sup>이다.

먼저 아크플롯을 통해 <세경본풀이> 이야기의 전반을 분석하고 세계관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는 <세경본풀이>를 시퀀스 어프로치로 분석하여 작품이 극적이며 역동적인 이야기임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영웅의 여행을 통하여 <세경본풀이>가 인생의 기쁨과 절망, 영혼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여 감정을 충족시키는 이야기임을 증명한다.

### 1. 보편성: 아크플롯(archplot)

#### 1) 단일 주인공

아크플롯에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아이이건 단 한사람의 주인공만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있다.<sup>107)</sup>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독자들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작품은 단 한사람의 주인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독자들은 자청비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작품의 첫머리에서부터 자청비가 주인공임을 분명히 한다.

세경본을 풀네다. 세경할으방은 동의와당 집진국 노불이우다. 세경할망은 서이와당 조진국 노불이우다. 세경아방은 수영대장 누비 전상이우다. 세경어명은 전제석궁 외똥애기우다. 상세경은 문도령이우다. 중세경은 자청비우다. 하세경은 정수남이우다.

집진국 대감님광 조진국 부인님이 열다섯 시오세에 부배간을 무어 근삼십이 근당후여도 일신 서러 엇어 호호근훔테다.

세경신의 내력을 푸는 <세경본풀이>는 상세경은 문도령,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은 정수남이라는 것을 이야기의 서두에 밝히고 있다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이가 모두 세경신이다. 그러나 세경 할아버지는 집진국이고 세경 할머니는 조진국이며, 세경 아버지는 수영대장 누비 전상이며, 세경 어머니는 전제석궁 외동딸이다. 세경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진국과 조진국이 되려면 문도령, 자청비, 정수남이가 모두 형제여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집진국, 조진국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인물은 단 한 명뿐이다. 집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이 바로 세경신, 주인공이다.

106) 조동일, 앞의 책, 109면.

107) 백기, 앞의 책, 81면.

짐진국대감님광 조진국부인님은 작별 불공을 드려두고 집으로 돌아오라 합궁일을 택일하고 천상배필 무엇더니 붉는날부편 태기가 시였구나. 혼 두 돌이 지나가고 아홉돌 열일이 초가니 혼룰날을 월궁선녀가 솟아났쑤다.

조진국부인님은

“낭군님아! 애기 봄서 오죽 곱쑤짱! 우리가 이 애기 낳젠 혼난 주자지고 공이 들어시매 일흠이랑 주청비로 헝기가 어떻헝우파?”

“그 일흠 지원 보난 쑤쑤다.”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공을 들여 태어난 여자아이, ‘자청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바로 <세경본풀이> 이야기를 이끌어 갈 주인공인 것이다. 따라서 자청비가 <세경본풀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활동적인 주인공

단일 주인공은 계속해서 고조되는 긴장과 변화 속에서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나간다.<sup>108)</sup> 영웅은 철저히 능동적이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영웅은 스토리의 결정적인 행위를 수행해야 하고<sup>109)</sup>, 그 행위는 가장 위험천만한 것 혹은 무거운 책무를 떠맡게 되는 것을 내포하여야 한다.<sup>110)</sup>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는 <표 2>와 같이 등장하는 인물들과 끊임없이 부딪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주인공에게는 언제나 임무를 맡거나, 임무를 맡아 위험천만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sup>111)</sup>

자청비와 대립하는 인물	공간	행동(⇒)	부여된 임무
+ 문도령	주천강 연하못	빨래 문도령과 만남	이동(서당)
+ 문도령	서당	글짓기 활쏘기, 씨름, 오줌싸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 사랑을 확인	문도령을 기다림
+ 정수남	신산(神山)	문도령을 만날 기대로 점심을 지고 산을 오름 자신을 죽이려는 정수남을 살해함	정수남을 되살림
+ 서천꽃밭 주인공대감	서천꽃밭	변괴를 부리는 부영이를 잡음 환생꽃 획득	과거급제 후 서천꽃밭 주인공대감 셋째딸과 혼인
+ 부모	집	되살린 정수남을 데리고 집으로	이동(청태산)

108) 맥기, 앞의 책, 82면.

109) 맥기, 위의 책, 같은 면.

110) 보글러, 앞의 책, 81면.

111) 보글러, 위의 책, 같은 면.

112) 점구 중 하나로 신칼(또는 명두칼)의 하나이다. 길이 20cm 내외의 가느다란 낫쇠 칼에 60cm 내외의 한지

		돌아옴	
+ 청태산 마귀할망	청태산	수양딸이 되어 마귀할망을 보살핌 문도령의 혼사에 사용할 베를 짠 문도령을 바늘로 찢러 재회하지 못함	이동(상주사)
+ 상주절 대사(大師)	상주사(上住寺)	중의 행색을 함	이동(인간세계)
+ 하늘옥황 선녀	인간세계	하늘옥황 선녀를 도움	이동(하늘옥황)
+ 문도령	하늘옥황	문도령과 재회	서수왕 셋째딸과 칼선다리 <sup>112)</sup> 건너기 시합
+ 서수왕 셋째딸	하늘옥황	칼선다리 건넌 문도령과 혼인	쾌자 짓기
+ 문도령 부모	하늘옥황	쾌자를 짓고 인정 받음	이동(인간세계)
+ 동네 청년	인간세계	베를 짜며 생활함 문도령을 살해한 동네 청년을 물리침	문도령을 되살림
+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	서천꽃밭	환생꽃 획득 문도령 되살림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과 혼인
+ 문선왕	하늘옥황	셋째딸과 혼인을 해결할 방안 요구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과 한 달에 15일씩 나누어 살 것
+ 문도령	인간세계, 서천꽃밭	문도령을 서천꽃밭으로 보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좌절함	이동(하늘옥황)
+ 문선왕	하늘옥황	문도령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요구 오곡씨를 획득함	오곡씨를 골라먹고 살것
+ 부모	집	그 동안의 사연을 이야기 함 정수남을 내어 줌	이동(세경당)
+ 정수남, 문도령	세경당	자신이 가진 능력을 보여줌	세경신으로 좌정

〈표 2〉 자청비의 행동을 통해 부여된 임무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청비는 누군가를 만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 서당으로 이동하고, 정수남이를 죽임으로써 그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는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는다. 이는 자청비가 〈세경본풀이〉의 결정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활동적인 주인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할 수 있다.

### 3) 연속적인 시간

아크플롯은 또한 어떤 한 시점에서 시작하여 대개 연속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중간 중간을 생략하기도 하면서 진행하다가 결국 시작보다 시간적으로 진전된 지점에서 결

끈을 달은 한 쌍을 말한다. 칼날은 서있지 않다. 가무 사제시에도 쓰고, 잡귀를 찢어서 구축하는 시능도 한다. 한지끈을 쥐고 내던진 두 칼날의 모양으로 점을 치고, 그것의 신의(神意)를 알고 기원주에게 해석 전달을 하게 된다. 칼선도리는 두 칼날이 다 상향한 것으로 불길함을 나타낸다. 장주근, 위의 책, 55면 참조.

말을 맺는다.<sup>113)</sup> 〈세경본풀이〉 또한 자청비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세경본풀이〉의 시간은 자청비의 탄생 전, 자청비의 부모의 나이가 서른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시작한다.

김진국 대감님광 조진국 부인님이 열다섯 십오세에 부배간을 무어 근삼십이 근당후여도 일신 서리 엇어 호호 근흡데다. 춘삼월 호시절이라 김진국광 조진국은 고장귀경을 나아가니 에미 본 내비는 에미품에 하올하올 애비 본 내비는 애비쿰에 하올하올. 고장낭 알에선 어떤 게와시 두갓 새가 혼 시술 난 애기 후나을 놀리멍 배설이 그차지게 크게 웃엄고나,  
“저런 게와시도 애기 후나을 농왕 크게 웃임을 웃이는데 나는 무신 일로 후연 애기 후나가 엇인 고?”

자청비의 부모인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열다섯에 결혼을 하였지만 15년이 지난 서른 살이 되어도 슬하에 자식이 없다. 꽃피는 봄도, 세상의 아름다움도 자식이 없는 김진국 대감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 매일을 눈물로 보내던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의 집에 한 대사가 찾아와 자신의 절에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

김진국광 조진국은 눈물로 시술 후염떠니마는 어떤 중이 올래에 들어오멍  
“소승 뱀네다” 후연 정술대기가 나아가고  
“어느 절에서 읍디강?”  
“동개남 상주절입네다. 권제 삼문 내여줍서”  
김진국 대감님이 그 말을 들은우젠  
“소서중이건 어서 들어옵서”  
소서중이 들어가난 김진국 대감님은  
“우리 팔제나 굴리어 줍서”  
소서중은 대문전으로 권제 삼문 도올리고 늬이 나라 소청역광 우리나라 대청역을 내여놓고 초 장 이장 제삼장을 걷어보완  
“주식 엇일 팔제우다”  
“게민 주식 엇일 팔젠 알곡 주식 실 팔젠 몰릅네까?”  
“주식 실 팔제도 앓네다.”  
“아이구! 고마움도 고마울서!”  
소서중은 말을 후대,  
“동개남 상주절로 왕 수룩을 들이민 주식 볼 수라 싶수다.”

자청비의 부모는 동개남 상주절 소서중의 말을 믿고 상주절에 수룩불공을 드리게 된다. 이후 조진국 부인님은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잉태하고 열 달 뒤 여자아이를 낳게

113) 맥기, 앞의 책, 83면.

된다.

합궁일을 택일하고 천상배필 무엇더니 붉는날부면 태기가 시였구나, 한 두 돌이 지나가고 아옴 들 열돌이 차오가니 호를날은 월궁선녀가 솟아났쑤다.

월궁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아이는 세 살이 되던 해에 ‘자청비’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흔 시술 나는 해엔 생일날이 돌아오란 짐진국 대감님이 애기 보레 들어가난 조진국 부인님은 애기?라

“느 아방이여, 선신문안을 드리라.”

“낭군님아! 애기 봅서 오죽 곱쑤광! 우리가 이 애기 낳젠 혼난 주자지고 공이 들어시매 일흠이 랑 쭈청비로 호기가 어떻호우파?”

“그 일흠 지완 보난 쑤수다.”

자청비라는 이름을 받은 후 주인공은 15세가 될 때까지 특별한 사건이 없이 여종인 정술더기와 함께 별채에서 생활한다.

애기 일흠을 ‘주청비’로 지우고 그 날부떠 늦인덕정술더기를 불르고

“주청비를 열다섯 시오세?지만 벨충당엘 두랑 강 질루라.”

정술더긴 주청비를 두란 벨충당엘 느려간다. 벨충당에 드러가고 주청비 열다섯 시오세?지 잘 슬퍼 질롭네다.

하지만 이러한 자청비의 일상에 의문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자청비가 15세가 된 어느 날이다.

주청비가 연하못에서 스답을 호염터니 난디엇이 몰방울소리가 나 고개를 들고 보난 하늘옥황 문국성문도령은 청충매를 타고 물 물그리암시카푸덴 연하못 물을 맥이레 오는구나. 주청비는 못본것처록 호명 스답을 호여가난 문국성문도려은 심술을 부려 주청비 스답호는 앞테레 간 청충매 머릴 확 돌리명 물을 꾸겨겨부는구나. 주청빈 경호여도 속숨호연 스답을 호여가난 문도령은 주청비가 미신 말을 호릴 지드리단 아무 말도 안호여가난 이젠 호릴 수 엇이 춤단 춤단 벼천, “애기씨! 물이나 혼 박새기 떠 줍서, 먹영 가져.”

여종 정술더기를 따라 연하못에 빨래를 하러 간 자청비는 하늘옥황 문국성의 아들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보고도 못 본 척하지만 문도령은 자청비와 대화를 시도한다. 자청비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사건의 시작인 것이다. 하늘옥황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알게 되고, 그 공간에 속한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문



도령을 만나게 된 자청비는 문도령과 서당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된다. 자청비의 나이 15세의 일이다.

집도령과 문도령은 곧이 나산 집으로 오게 되었쑤다. 집으로 오는 중간에 주천당 연하못덜 근 당후난 집도령이 말을 후되,  
“문도령아, 우리 연삼넨간 그늘에서 글공부사 후연쑤만 몸에 탕들 엇느냐? 우리 이 연하못디서 목욕이나 후영 감이 어땡후코?”  
“어서 걸랑 기영 후자.”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서당으로 가서 3년 동안 함께 동문수학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3년 동안 그늘에서 글공부만 하였’다며 함께 목욕을 하기를 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는 15세에 문도령과 함께 서당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였고, 서당을 나온 것이 3년이 지난 시점이니 이때 자청비의 나이는 18세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자청비와 문도령이지만 문도령은 하늘옥황으로 올라가 서수왕 셋째 딸과 혼인을 해야만 한다.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복숭아씨 두 개를 남겨놓고 ‘꽃이 피면 자청비를 만나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하늘옥황으로 돌아간다. 이때부터 자청비의 기다림은 시작된다. 그러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문도령을 자청비는 직접 찾아 나서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청태산 마귀할망의 집에서 자청비는 문도령의 혼사에 사용할 배를 짜고 있는 마귀할망을 돕게 된다.

수양어명이 왈각찰각 배를 차가난,  
“어머님, 이 물품은 미싱것 홀 겨우파?”  
“하늘옥황 문국성 문도령이 장개가는디 흥셋뵈 차 도랜 후연 차는 겨여.”  
“어머님, 나 차 보쿠다.”  
“그여, 어서 차지건 차보라.”  
주청빈 배클 우티 올라앗안, 배클 차는디 텃기 엇이 잘도 찬다.  
“주청빈 수양어명이 엇인 어이에 그 배에 바독을 두는구나.  
‘무심후 문도령아 나를 상봉후레 오키엔 후여 두연 연삼넨을 지드려도 붉은 늦 혼번 못보고 어는제민 상봉후료?’

자청비는 하늘로 올라간 문도령을 기다리는 동안 일련의 사건을 겪지만 문도령을 만날 기회는 전혀 없었다. 마침내 당도한 청태산에서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날 기회를 포착한다. 자청비가 문도령과 이별할 당시의 나이는 18세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년을 내리 기다’린 21세에 마침내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날 기회를 만나게 된다.

마침내 문도령과 혼인한 자청비는 하늘옥황에서 편안히 살다가 인간세계로 내려온

다.

주청빈 씨부무안티 칭찬을 받고 펜안히 살아가는구나. 혼 해 쯔 살아지난 주청비가 씨부무신디 말을 흐되,  
“저는 이젠 인간이 느령 살고프우다.”  
“미싱걸 흐명 살티야?”  
“물맹질 차명 살쿠다.”  
“어서 아맹이나 흐라.”

자청비는 21세에 문도령과 만나 혼인을 한다. 하늘옥황에서의 신흠 생활은 ‘한 해 쯔’인 대략 1년 정도이다. 따라서 자청비가 인간세계로 내려온 시점은 자청비의 나이가 22세가 되던 해이다.

하지만 자청비와 문도령의 혼인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하게 된 자청비는 자신의 대타로 문도령을 서천꽃밭으로 보낸다. 그러나 서천꽃밭으로 간 문도령은 자청비를 잊은 듯하다.

문도령은 주인대감의 말쭈뜰애기광 살명 꽃구경을 흐는 게 세월 가는 줄 몰라진다. 주청비는 문도령 올 덜 지드려도 아니오고 연삼년이 되어도 소식 혼변이 엇고나.

자청비가 자신의 대타로 문도령을 서천꽃밭으로 보낸 것은 자청비의 나이가 22세가 되었을 때이다. 자청비가 22세에 떠난 문도령이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자청비의 나이 25세가 될 때까지 문도령과 헤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자청비와 문도령은 다시 재회하지 않고, 자청비는 정수남과 함께 세경땅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부모인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부의 인연을 맺은 15세부터, 자청비가 태어난 30세까지 15년, 그리고 자청비의 탄생부터 문도령을 만나는 15세를 기점으로 동문수학 3년, 기다림 3년, 혼인생활 1년 그리고 외도 3년의 시간인 총 40년 동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4) 외적 갈등

아크플롯은 외적 갈등에 중점을 둔다. 등장인물들이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보다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 사회 기관들과의 갈등 또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힘들과의 갈등 등이 더욱 강조된다.<sup>114)</sup>

<세경본풀이>의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114) 맥기, 앞의 책, 80면.

주인공인 자청비가 내적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죽이는 지점, 자청비의 부모가 자청비를 내쫓는 사건, 서천꽃밭 주인공대감 셋째 딸과 혼인을 약속하는 사건, 자청비가 3년 만에 문도령을 만나는 사건, 수양어머니인 청태국 마귀할머니가 자청비를 내쫓는 사건, 문도령과의 이별을 선택하는 사건 등이다.

### (1) 정수남이를 살해함

문도령을 만나게 해준다는 말에 정수남이를 따라나선 자청비는 정수남이의 계약에 농락을 당한다. 위기감을 느낀 자청비는 더 이상 정수남이가 자신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기지를 발휘한다.

이젠 정수남이가 용심이 난애 주청빌 죽일팔로 둘러간다. 주청비가 말을 하되,

“정이엇인정수남아 이레 오라, 나영 녹지 전이 느 머리에 니나 잡아주마.”

정수남인 수푸산이 매방석이 닳은 머릴 주청비 은골은 독머립데레 허분듯이 놓는구나. 주청빈 정수남이 머릴 견연 보난 니가 수록짓언 이레 발발 저레 발발 스못 불 춤이 었고나. 주청빈 은골은 손으로 니를 잡아 오독뚝이 죽여나간, 정이엇인정수남인 무정눈에 줌이 오라 줌을 쏙쏙 자는구나. 주청빈 말을 하되,

“이 못된 주숙, 아맹흐민 나 독머립에서 줌을 줄수가 있느냐?”

통설대를 빼여 들고 정수남의 원구로 질르고 누단귀로 빼여내연 죽여두고 몰을 심어 타명 정법을 읽는구나.

자청비는 기지를 발휘하여 죽임을 당할 위험은 피했지만 자신의 무릎에서 잠이 든 종이 달갑지 않다. 가지고 있던 담뱃대를 정수남이의 귀에 꽂아 ‘이 못된 자식’ 하면서 죽여 버린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윤리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자청비와 정수남이라는 인물 사이의 갈등과 그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다.

### (2) 부모에게서 쫓겨남

정수남이를 살해한 채 집으로 돌아온 자청비는 자신의 부모에게 정수남이를 살해하고 돌아온 이유를 정수남의 ‘행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청비의 부모는 정수남이를 살려오라며 자청비를 내쫓는다.

주청비는 집으로 돌아오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사름이 말 아니들을 땀 어떻흐민 줌네까?”

“욕혼다.”

“욕흐여도 안들으민 어떻홈네가?”

“죽여분다.”

“예, 나 정이엇인 정수남이 행실이 부족흐연 죽여두언 오랏수다.”

“지집년이 남도났저, 듨도들었저, 어땡 사름을 죽일 수가 시리, 어서 나 종으로 돌아오라.”  
 주청빈 아방왕이 들어가고,  
 “아바님아 아바님아 정이엇인정수남인 행실이 부족호연 죽여두언 오랴수다.”  
 “이게 미신 말고? 지집년이 남도났저 듨도들었저, 어땡 사름을 죽일 수라 시리, 그 종은 우리 식  
 굴 맥영 살리는 종인디, 어서 나 종으로 살려오라.”  
 주청빈 이만호민 어땡호리 저만호민 어땡호리! 서천꽃밭 꾀을 타당 정이엇인정수남일 잘려내  
 저.

자청비는 부모에게서 쫓겨나지만 자청비의 내적인 괴로움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만하면 어땡고 저만하면 어땡하’냐며 서천꽃밭으로 환생꾀을 따라 향한다. 부모에게서 내  
 쳐진 것에 대해 ‘집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부모에게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어땡한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자  
 청비가 이미 정수남이를 살려오기 위한 방법(환생꾀)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전처럼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의 발현이다.

그러나 정수남이를 살려 돌아온 다음 장면에서도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청비  
 의 부모는 정수남이를 살려서 집으로 돌아온 자청비를 한사코 내쫓는다.

주청빈 정수남일 두란 집으로 완,  
 “어머님아 어머님아 정이엇인정수남이 살려와시메 말씀서.”  
 “남도나고 듨도들었저, 사름을 어땡 죽였당 살리느냐, 느냥으로 두랑 나고가라.”  
 아방왕이 돌려가고,  
 “아바님아, 아바님아 정이엇인정수남이 살려왔수다. 말씀서.”  
 “지집년이 남도나고 듨도들었저, 어땡 사름을 죽이꼭 살린덴 말이나? 꼴보기 싫다. 느냥으로 나  
 고가라.”  
 주청빈 시술 적 입단 옷광 문 주워 지연 집을 나스는구나.

집에서 진짜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자청비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세경본풀이>는 내적갈등이 아닌 외적갈등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자청비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청비의 부모의 내  
 적 갈등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버린다는 고뇌와 자식을 쫓아  
 내야만 한다는 애절함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주인공인 자청비 뿐만 아니라 자청비와  
 관련된 인물들 역시 내적인 갈등이 아닌 인물들과의 외적인 갈등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을 약속함

정수남이를 되살리려고 찾아가던 서천꽃밭에서 자청비는 부엉이를 잡은 공로로 서천꽃밭 주  
 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을 약속한다.

“도령님 덕택으로 생일 문 심어졌습니다. 그 은공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집 말쑥풀에 장개 들기 어떻허우파?”

“감소한 말쑥이우다마는 제가 과거보러 가는 중이난, 과거 보기전인 가속 생각이 없습니다.”

“그영호건 장개랑 가곡 과거호영 오랑 정 섞영 사는 게 어떻허우파?”

“결랑 어서 기영 흡서.”

자청비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금기를 깬다는 두려움은 전혀 없이 서천꽃밭 주인대감의 제안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한다. 서천꽃밭 주인대감과 자청비가 만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고, 자청비가 부영이를 잡음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 따라서 자청비나 서천꽃밭 주인대감의 내적갈등은 <세경본풀이>의 강조점이 아니다.

#### (4) 문도령과의 재회

자청비는 일련의 사건을 겪고 문도령이 떠난지 3년 만에 문도령과 재회한다. 문도령의 혼사에 사용될 혼삿배에 자청비가 수를 놓게 되고, 이것을 알아본 문도령은 청태국 마귀할망의 수양딸이 된 자청비를 만나러 청태국으로 내려온다.

밤중만인 문도령은 자청비 방을 찾아가고,

“자청비야, 이 문씨라, 나 문도령이여.”

“문도령이 뜰밧던 문틈으로 손을 내몰아 봅서.”

문도령은 문틈으로 손을 내민, 귀신 생인을 겁갈라보젠 자청비는 바늘으로 문도령 송까락을 찢러본다. 그영호난 문도령은

“아가기여!”

호명, 송까락을 확 빼여 보난 자주피가 불끈 난다.

“에이, 부정호년 호군!”

문도령은 흥셋배를 7전 옥황으로 도올라간다.

자청비는 청태국 마귀할망에게서 문도령이 밤중에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문도령의 손가락을 한사코 찢러본다. 3년 동안 기다렸던 문도령과 재회한다는 자청비의 기쁨 그리고 자청비를 잊고 지냈다는 문도령의 미안함과 애뜻함은 위의 사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만남에서 만난다는 기쁨과 행복함을 혹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전혀 나타내지 않은 채, 문도령의 손가락을 찢르는 행위를 한다. 그 결과 문도령은 화를 내며 하늘옥황으로 돌아간다. 이 사건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감정이 아닌 두 인물이 만남으로써 벌어지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청태국 마귀할망에게서 쫓겨남

문도령을 사위로 삼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청태국 마귀할망은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찢러 하늘옥황으로 보내버리자 화가 난다.

수양어명은 용심이 나고,

“그영 하니 느 난 부미도 내조찾지? 들어오는 복을 막개로 치는 격이니, 나 눈에도 꼴 보기 싫다. 어서 아무디나 떠나라.”

자청비는 수양어명 눈백기 나난 홀 수 잇이 집을 나완, 삼도전 거리로 나섰구나.

너무나 화가 난 청태국 마귀할망은 자청비를 쫓아내고야 만다. 자청비를 수양딸로 삼고 자식처럼 데리고 있겠다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집에서 쫓아낸다. 청태국 마귀할망과 자청비의 관계는 문도령이라는 인물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갈등을 만들어 낸다. 즉 내적 갈등이 아닌 인물 사이의 관계라는 외적 갈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 (6) 문도령과의 이별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15일을 보내려 간 문도령은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자청비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편지를 보내자 그제야 자청비가 생각난 문도령은 말안장을 거꾸로 엮은 채 자청비를 만나러 온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 자청비는 하늘옥황으로 올라가 문도령과의 헤어짐을 고한다.

“아바님이 아바님아, 문도령이 주인대감 말쑥뿔에 가난, 연삼년이 되어도 소식하난 엇입디다. 편지를 하난 오라십디다마는 물을 거스로 탄 오란 문을 올랜 홀디다마는 나 문 아니 올았수다. 오직 날을 미와사 물을 거스로 탕 올 겨우파?”

“그영 하나때매 문 올라주카푸네, 무사 문 아니 올라주언디?”

“저는 의정엇인 사념을 살 수가 엇수다. 아바님이 저 살을 도래를 닦아줍서.”

자신을 잊고 지낸 문도령에게 실망한 자청비는 3년을 알고 지내고, 3년을 기다리고, 1년의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한 문도령과 이별하기로 결심하고 시아버지에게 이를 알린다. 그렇게나 사랑하던 문도령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자청비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청비와 문도령과의 관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청비나 문도령의 내적인 갈등이 아닌 자청비, 문도령,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관계인 외적 갈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 5) 인과성

아크플롯은 이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의 원인이 어떻게 특정한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 효과는 또한 어떻게 해서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지 등에 주목한다. 모든 것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파악할

경우 등장인물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과성의 네트워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sup>115)</sup>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는 하늘옥황에서 내려온 문도령이라는 인물을 만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는다.

문도령과 자청비의 만남 → 문도령과 자청비의 이별 → 자청비가 문도령을 기다리다가 정수남이의 꼬임에 넘어가지만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수남이를 죽임 → 정수남이를 죽여서 집에서 쫓겨남 → 정수남이를 살리고자 서천꽃밭에 감 → 공을 세워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을 약속함 → 정수남이를 살리지만 다시 쫓겨남 → 길거리를 헤메다 청태국 마귀할망을 만나서 수양딸이 됨 → 문도령과 재회하지만 화가 난 문도령은 떠나감 → 마귀할망에게 쫓겨남 → 옥황신녀를 도와 하늘옥황으로 올라감 → 문도령과 재회함 → 시험을 거쳐 문도령과 혼인함 → 편안하게 살다 인간세계로 내려옴 → 동네청년들이 문도령을 죽이지만 기지를 발휘해 동네청년들을 무찌름 →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구해와 문도령을 되살림 →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문도령을 15일·15일씩 나누어 살게 됨 → 서천꽃밭으로 간 문도령이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음 → 자청비는 자의로 문도령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시아버지 문선왕에게 오곡씨를 받아 인간세상으로 내려옴 → 자초지종을 알게 된 부모님은 정수남이를 내어 줌 → 세경땅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감 → 문도령은 자청비를 찾아 칠곡씨를 가지고 세경땅으로 내려옴(세경신으로 좌정함)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났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해 자청비는 문도령과 이별하게 하고, 이별은 기다림을 낳고, 문도령을 기다리는 동안 정수남이를 죽이게 되는 등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 효과는 다시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인과성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세경본풀이〉가 가지는 세계관<sup>116)</sup>을 밝혀낼 수 있다. 〈세경본풀이〉 표면에 드러난 자청비를 움직이는 동력은 문도령이지만 실제로는 교환이라는 소통의 방식이 자청비를 자연스럽게, 그러나 항상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 3〉를 통해 알 수 있다.

장면	인물		교환물질
1	자청비	⇔ 문도령	버드 나뭇잎 띄운 물 복숭아씨 두 개
2	자청비	⇔ 정수남	말 아홉, 소 아홉, 고운 옷, 점심, 고사 음식(닭 한 마리, 술 한 동이) X
3	자청비	⇔ 어린아이 둘	돈 부영이
	자청비	⇔ 서천꽃밭 주인대감	부영이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
4	청태산 마귀할망	⇔ 자청비	집, 밥 심부름 배짜기

115) 맥기, 앞의 책, 85면.

116)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믿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판단하는지, 어떤 것을 정당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의 기준, 또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가르는 경계가 한 사람의 세계관이다. 페터 비에리, 문항심 역, 『삶의 격』, 은행나무, 2014, 23면.

5	자청비	⇔	문도령 어머니	문도령과 문선왕 쾌자
				X
6	자청비	⇔	문도령	숨을 넣은 옷
	자청비	⇔	동네청년	무쇠 수제비
	문선왕	⇒	자청비	X
7	밭을 가는 두 노인	⇔	자청비	오곡씨
				X
	밭을 가는 다른 두 노인	⇔	자청비	화, 흉년
				점심밥
				풍년, 신분의 변경

〈표 3〉 인물 간 교환 관계<sup>117)</sup>

### (1) 장면 1

장면 1의 주요 등장인물은 자청비와 문도령이다. 자청비와 문도령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 1에서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물 한바가지를 떠달라고 부탁하고, 자청비는 바가지에 버드나뭇잎을 훑어 놓아 문도령에게 전한다. 그러나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어떠한 물질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어진 장면에서야 문도령과 자청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짐도령이 자청비였다는 것을 알게 된 문도령은 술을 많이 먹고 자청비와 하룻밤을 보내려하지만 자청비는 몸을 피한다. 이에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복숭아씨 두 개를 남긴 채 하늘옥황으로 올라간다.

장면 1의 ‘물’은 자청비와 문도령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게 만드는 매개체로, ‘복숭아씨 두 개’는 자청비가 문도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증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자청비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2) 장면 2

장면 2의 주요 등장인물은 자청비와 정수남이다. 장면 2는 두 인물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수남은 나무를 해오겠다’, ‘문도령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자청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물머של 출려 줘서”

주청빈 물 아옴 쇠 아옴을 출려 주난

“정술댁이 종년아, 정수남이 고운 옷 햅여 주라.”

“상제님 먹을 징심이랑 춤그르 닷되에 소금 닷될 농왕 범벅을 호곡, 종 먹을 징심이랑 논쟁이

117) 자청비와 다른 등장인물간의 교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제외하였다.



닭되에 소금 혼쥌 농낭마낭 호영 범벅을 호영 글읍서.”

“예, 독 혼머리에 술 혼동일 출려사 코실 지냅네다.”

“돌머리 코시호여난 음식은 종이 먹는 법이우다.”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청비는 정수남이에게 총 네 번의 물질을 제공한다. 말 아홉 마리, 소 아홉 마리를 내어주고, 고운 옷을 만들어 주었으며, 메밀 닭되가 들어간 메밀범벅을 점심으로 준비하였고, 고사음식으로 닭 한 마리와 술 한 동이를 정수남이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정수남이는 자청비에게 그 무엇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아무런 물질도 교환하지 않는다.

한 쪽의 일방적인 제공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제공은 제공을 하지 않은 상대에 대한 응징으로 나타난다. 자청비는 담뱃대를 정수남이의 귀로 통과시켜 살해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제공은 이미 교환이라는 소통방식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위반은 죽음이라는 커다란 형벌로 다스려 지는 것이다.

### (3) 장면 3

장면 3에서는 교환이라는 소통방식이 한층 견고해진다. 장면 3의 주요 등장인물은 자청비와 서천꽃밭 주인대감이지만 자청비가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 만난 어린아이들과의 일화도 간과할 수는 없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 죽은 부영이를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을 발견한다. 아이들보다 힘이 센 자청비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부영이를 빼앗을 수 있지만 빼앗지 않는다.

“느네들 그영 싸울 게 엇이 그 생일 나신디 풀아불라.”

“어서 걸랑 기영 흡서.”

주청빈 돈 혼냥씩 주어두고,

자청비는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돈을 주고 죽은 부영이를 구입한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죽은 부영이는 돈으로 교환되고, 교환이라는 의사소통 방식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우여곡절 끝에 서천꽃밭에 들어간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에게 서천꽃밭 하늘을 날아다니는 부영이를 잡아주면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듣는다. 아직은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영이를 잡은 자청비에게 서천꽃밭 주인대감은 교환물질을 제시한다.

“도령님 덕택으로 생일 문 심어졌수다. 그 은공을 다 갚을 수가 엇수다. 우리집 말갯풀에 장개

듣기 어떻게우파?”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청비의 부영이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교환된다. 자청비는 장면 3의 도입부분에서 돈과 부영이를 교환하고, 뒤이어 잡은 부영이를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교환한다. 즉 교환이라는 소통방식이 그 형상을 견고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장면 4

장면 4의 주요 등장인물은 청태산 마귀할망과 자청비이다. 문도령이 잠깐 등장하기는 하나 자청비와의 교환은 나타나지 않는다.<sup>118)</sup>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청태산 마귀할망에게 잠을 잘 곳을 청하고 청태산 마귀할망은 자청비에게 집과 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양딸로 자청비를 들인다.

자청비는 수양어머 삼으난 지꺼지고 물 부름씨, 때 부름씨 배차는 부름씨 흐는구나.

청태산 마귀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집과 밥을 제공받은 자청비는 물, 끼니, 베 짜는 심부름을 통해 물질을 교환한다. 물, 끼니, 베라는 것은 물질로서 자청비가 집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청비와 청태산 마귀할망 사이에 교환이라는 소통방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5) 장면 5

장면 5의 주요 등장인물은 자청비, 문도령, 늑인득이정하님, 문도령의 어머니, 서수왕 셋째 딸, 문도령의 아버지이나 교환이라는 소통방식이 성립하는 것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어머니 사이이다. 그러나 진정한 교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청비와 문도령이 혼인한 후, 문도령의 어머니는 무언가를 요구한다.

“자청비야, 문도령광 문선왕의 쾌자를 지영 입지라.”

문도령의 어머니는 문도령과 문선왕을 위한 쾌자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문도령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이 어머니 자신을 위한 물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도령의 어머니가 요구한 물질은 문도령과 문선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문도령과 문선왕에게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장면 5에서는 자청비와 문도령, 문선왕과의 교환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면 5에서 자청비는 문도령이

118) 청태산 마귀할망은 문도령에게 혼사에 사용할 베를 제공하지만 문도령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공인 자청비와의 교환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의미하지 않다.

나 문선왕을 응징하지 않는데 이것은 교환이 아직은 성립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청비와 문선왕의 교환은 장면 6에서 이루어진다.

#### (6) 장면 6

장면 6의 주요 등장인물은 자청비, 문도령, 동네청년들, 서천꽃밭 막내딸, 문도령의 아버지인 문국성이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하늘옥황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살게 된다. 자청비의 미모와 부지런함이 동네에 소문이 나자 동네청년들은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데리고 살려는 계락을 꾸민다. 이러한 계락을 알게 된 자청비는 술을 함께 마시자는 동네청년들을 만나러가는 문도령에게 숨을 넣은 옷을 지어준다.

“잔치집이 가진 술랑 먹는 것츄럭 흥명 옷앞쇼 쏘곱제레 다 비와봄서 옷 앞쇼 쏘곱에 소겔 하여영  
신건 옷을 맹글았수다.”

그러나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어떠한 물질도 제공하지 않는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준비한 옷을 받기만 할 뿐이다. 장면 5에서도 문도령은 자청비가 지은 쾌자를 받고, 장면 6에서도 앞자락에 숨을 많이 넣은 옷을 받지만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준 것이 없다. 문도령과 자청비 사이에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교환이라는 소통방식을 위반한 문도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문도령은 그 술 혼잔 발안 먹고 나오는 게 정신이 아뜩히는구나. 몰우티서 죽었구나.

우리는 장면 3에서 교환이라는 소통방식을 위반할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면 6에서도 소통 방식을 위반한 문도령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만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죽음이라는 형벌로 응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으로 교환이라는 세계관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면 5에서 자청비로부터 쾌자를 받은 문선왕은 자청비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교환이라는 공식을 확실히 한다.

“에이구! 설룬 나 메뉴리야, 오곡씨를 누리와 주커매 씨나 골랑 얻어먹영 살라.”

문선왕은 더 이상 문도령과 살지 못하겠다는 자청비에게 오곡씨를 내어 준다. 즉, 쾌자와 오곡씨가 교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7) 장면 7

장면 7의 주요 등장인물은 자청비, 정수남이, 받을 가는 두 노인, 받을 가는 다른 두 노인, 문도령, 문선왕이다. 장면 7은 교환의 승낙과 거절을 통해 교환이라는 소통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교환의 거절과 승낙을 통해 <세경본풀이>가 교환이라는 세계관을 표상한다는 것을 견고히 한다.

먼저 자청비는 씨를 골라줄 요량으로 정수남이와 자신이 먹을 점심을 받을 가는 두 노인에게 요구하지만 그들은 거절한다. 교환이라는 소통 방식을 처음부터 거절한 것이다.

“정수남아, 저 받가는 디 강 정심이나 홯술 줍셈 호영 빌어 오라, 우리 먹엉 씨나 골라내게.”  
정수남이가 일하는 밭덜 간 그영 곱으난,  
“질가는 간나이들 줄 징심이랑말양 우리 아옴 장남 먹을 징심도 없다.”

교환을 거절한 두 노인에게 자청비는 조화를 부려 별을 내린다. 이 교환의 거절은 앞의 두 거절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이미 물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환이 성립되지 않은 앞의 두 사건에서 정수남이는 이미 자청비에게 말 아홉, 소 아홉, 고운 옷, 점심, 고사 음식(닭 한 마리, 술 한 동이)을 제공 받았고, 문도령은 쾌자와 숨을 넣은 옷을 제공 받았지만 자청비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즉 교환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교환을 처음부터 거절한 것이다. 교환의 거절은 죽음이라는 형벌로 다스려지는 않으나, 교환의 거절 역시 불행이라는 형벌로 다스려진다.

자청비가 제안한 교환 요구를 승낙한 다른 두 노인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면 교환이라는 소통방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이 밭 닷말지기에 다숫바리 나도록 썰 골라내엿수다.”  
“아이구! 감수호우다.”  
“할망 할오바님에 아들 딸들이 있수가?”  
“애길 나보들 못호엿수다.”  
“그영호여시민 할오바님은 제석천왕으로 들어상 일년 열두돌 고수지낼 때 제석천왕으로 청호건 큰 상 받오명 삼셔. 할마님이랑 제석지왕으로 들어상 상을 받읍셔.”

자청비는 자신의 교환 제안을 승낙한 두 노인에게는 밭에 곡식이 잘 나게 씨를 골라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상을 올릴 자식들이 없다는 노인의 사정을 알고 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상승시킨다.

자청비는 각 장면 별로 서로 다른 인물과의 교환을 시도한다. 이러한 교환은 자청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동시에 <세경본풀이>가 표상하는 세계관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환이라는 소통의 형식이 의미하는 것은 한 쪽의 일방적

인 제공이나 거절은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 6) 일관된 사실성

아크플롯은 일관되는 사실성 속에서 펼쳐지지만, 이 경우에 사실성이란 실제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관되는 사실성이란 인물들과 세계 사이의 관계 방식을 설정해내는 허구적 장치로서, 이야기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는 창조될 수 있다.<sup>119)</sup>

〈세경본풀이〉는 작가가 만들어낸 인간세계, 하늘옥황, 서천꽃밭, 청태국, 세경땅이라는 공간에서 이야기가 지속된다. 서천꽃밭, 청태국, 세경땅은 인간세계에 속한 자청비와 천상세계에 속한 문도령 모두의 왕래가 가능하므로 인간세계와 천상세계 간의 관계 설정을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세계에 속한 자청비는 천상세계에 속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늘옥황으로 갈 수 있다.

“하늘옥황 문국성 문도령이 주청비 만나레 간 문 아니 올라주어비난 심매뱅이 나아놓고 ‘주청비 먹는 물이 약이엔’호연 그 물을 질레 오랍쑤다.”

“그영호연 주청비 먹는 물은 내가 질어주커메 나를 혼디 돌아다 줍서.”

“결랑 그영 흡서.”

주청빈 이녁 먹는 물을 질어주난 신녀가 주청빌 허빅바위레 앞전 하늘옥황으로 올라가는구나

문도령은 주청빌 불러간다 불러온다 호여가난, 주청빈,

“오직 날 미와사 물을 거스려 탕 오려!”

호연 뒷마당으로 귀여간, 옥황에 축수를 드리는구나. 주청비가 손을 받아 옥황에 축수를 들이난 노각줄 연두리가 느러온다. 주청빈 노각줄 연두릴 바람 옥황으로 올라간 씨아방 씨어명신디 인수를 드리고,

첫 번째 예문에서 자청비는 하늘옥황 선녀들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타고 하늘옥황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 예문에서도 하늘옥황에 축수를 드려 내려온 노각줄을 타고 하늘옥황으로 올라간다. 즉 인간세계에 속한 자는 천상세계에 속한 자의 허가가 없이는 천상세계로 옮겨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천상세계에 속한 문도령은 인간세계와 청태국, 서천꽃밭을 아무런 제약 없이 활보한다. 즉 천상세계에 속한 자는 그 세계에 속한 자의 허가 없이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청비가 연하못에서 수답을 호염더니 난디엇이 몰방울소리가 나 고개를 들고 보난 하늘옥황 문국성문도령은 청총매를 타고 물 물그리왓시카푸덴 연하못 물을 맥이레 오는구나.

119) 맥기, 앞의 책, 87면.

문도령은 도실남씨 두 방울을 놓안 글을 써되,  
'이 도실씨를 싱건 고장이 피민 주청비 상봉후레 오겠쑤다.'  
문도령은 터나가고 주청빈 줌을 자단 깨여난 방에 간 보난 문도령은 엇고 그영 혼 글만 남았고  
나.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세계에 들어온 문도령의 출입은 자유롭다. 인간세상으로 오고 싶을 때는 말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으며, 돌아갈 때는 하늘옥황에 속한 자의 허가 없이 돌아간다. 이것은 문도령이 바로 하늘옥황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도령은 인간세계로 들어와 언제든지 자청비를 만날 수 있지만 자청비는 하늘 옥황에 속한 자가 도와주거나 혹은 하늘옥황이 내려준 노각줄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다. 즉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주인공이지만 전능하지 않다. 하늘옥황에 속한 문도령은 자유 의지로 자신의 거처를 옮겨 다니는 전능자이지만 자청 비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의 전복이 <세경본풀이>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옥황에 속한 문도령이 자의로 하늘옥황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도령은 집에서 주청빌 찾아봐도 좇질 못후는구나. 문도령은 옥황테레 축술 드린 옥황이서 노 각줄을 누리우난 그 노각줄을 바란 옥황엘 올라간 문선왕 부부님께 수실을 슬좌간다.

문도령은 하늘옥황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의로 거처를 옮길 수 있다. 노각줄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노각줄을 타고 하늘옥황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문도령이 하늘옥황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도령이 하늘옥황의 신격을 잃어버린 셈이다.

<세경본풀이>는 스스로 창조해 낸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의 분리를 통해서 문도령의 신격 상실을 독자로 하여금 유추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자청비뿐만 아니라 문도령도 자유의지로 자신의 거처를 옮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문도령은 자청비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설정이 변화한다. 이로써 신격을 가지고 있던 문도령이 신격을 상실하며, 문선왕에게서 칠곡씨를 받아 세경 땅으로 내려와 천제상(天祭床)<sup>120)</sup>을 받아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이 설명된다.

## 7) 닫힌 결말

아크플롯은 닫힌 결말, 즉 이야기 속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120) “그영후곡, 늘랑 앞으로 천제상을 받아먹으며 살라.” “천제상은 어떠한 상이우파?” “천제상은, 천제, 기우제, 거리도제, 도청제, 지낼 때 출리는 상이여.”

이루어지고 불리일으켜진 모든 감정들이 충족되는 결말을 가진다.<sup>121)</sup>

〈세경본풀이〉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재회할 수 있는가?’, ‘자청비와 문도령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죽은 정수남이는 환생할 수 있는가?’, ‘자청비는 서천꽃밭 셋째 딸과 혼인할 수 있는가’, ‘자청비는 부모와 재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자청비는 세경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가?’로 수렴된다.

〈세경본풀이〉의 결말에서 그 답을 제시한다.

문성왕 부무님이 말을 하되,  
“이 불효 막심헌 놈아, 전제소박헌 죄다. 이제부턴 죽은 매누리신디랑 가지말라.”  
“예, 주청빌 만나게 하여 줘서.”  
“주청비는 세경땅에 오곡씨를 골랑 얻어먹으레 누리갔저.”  
“그영하건 나신디도 오곡씨 내여줍서.”  
“느신단 칠곡씨 내여주키여.”  
“칠곡씨 미신 씨우파?”  
“콩, 팻 녹디, 돛비, 모물, 지장, 피, 이게 칠곡씨여.”  
“예.”  
“그영하곡, 늘랑 앞으로 천제상을 받아먹으멍 살라.”  
“천제상은 어평헌 상이우파?”  
“천제상은, 천제, 기우제, 거리도제, 도청제, 지낼 때 출리는 상이여.”  
영급헌 상세경 분두령 증세경 주청비 하세경 정수남이 세경태우리도 정수남이가 하라.

자청비를 버리고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살러간 문도령은 하늘옥황으로 돌아온다. 화가 난 문국성은 더 이상 문도령이 작은 며느리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칠곡씨를 내어준다. 이 결말은 서천꽃밭에서 돌아온 문도령이 자청비를 찾아 세경땅으로 가서 앞으로 천제상을 받아먹으며, 상세경으로 좌정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청비와 정수남이의 역할도 정해주고 있다.

자청비, 문도령, 정수남이가 모두 신으로 좌정하였다는 결말은 독자들에게 더 이상의 의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완결되고 닫힌 경험을 안겨준다.

## 2. 역동성과 극(劇)성: 시퀀스<sup>122)</sup> 어프로치(sequence approach)

앞서 개괄한 바와 같이, 시퀀스 어프로치는 이야기의 역동성과 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틀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경본풀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세경본풀이〉을 3

121) 맥기, 앞의 책, 79면.

122) 시퀀스는 이야기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한 서사의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시퀀스는 “탄생”이나 “결혼” 같은 다른 중요한 사건들로 귀결된다. 류정월, 위의 논문, 198면.

막 8시퀀스로 분석한 표이다. 표에 의거하여 각 시퀀스 별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막	시퀀스	내용
1	1	<p>프롤로그: 집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15세에 혼인을 하였으나 3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아 시주하여 아이를 얻지만, 시주가 부족하여 여자아이를 낳고 자청하여 낳았다는 의미로 '자청비'라고 이름을 짓는다.</p> <p>무럭무럭 자라던 자청비는 주천당 연하못에서 하늘옥황 문국성의 아들 문도령을 만나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숨기고 남장을 하고 함께 글공부를 떠난다.</p> <p>통합하는 요인: 극적 아이러니                      주인공: 자청비와 문도령                      목적: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러 떠나는 것                      도발적 사건: 문도령과의 만남                      질문: 주인공인 자청비는 어떤 인물일까?</p>
	2	<p>삼년 동안 한방에서 글공부를 하지만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임을 눈치 채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자청비에게 밀린다.</p> <p>상심한 문도령은 하늘옥황으로 돌아가려 하고, 이에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문도령은 증표만을 남기고 하늘옥황으로 올라간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는다.</p> <p>통합하는 요인: 극적 아이러니, 극적 긴장감, 텔레그래픽                      주인공: 자청비와 문도령                      목적: 자신이 여자임을 밝혀 문도령의 사랑을 얻는 것                      질문: 자청비와 문도령은 과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p>
2	3	<p>문도령을 기다리던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하인 정수남이의 말에 속아 정수남이를 따라 나섰다가 농락을 당하고, 화가 난 자청비는 피를 내어 정수남이를 살해한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살해의 이유와 정당성을 밝히려 하지만 부모님은 정수남이를 살려 오라며 자청비를 내쫓는다.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향한다.</p> <p>통합하는 요인: 극적 아이러니, 따라다니는 요인                      주인공: 자청비와 정수남                      목적: 문도령과의 재회                      질문: 자청비는 문도령과 재회할 수 있을까?</p>
	4	<p>서천꽃밭을 어지럽히던 부영이를 잡아 주인대감의 환심을 산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에게 장가들기를 권유받지만 피를 내어 혼인을 유보한다. 사람을 살리는 꽃을 구해와 정수남이를 살려 집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부모님께 쫓겨난다.</p> <p>통합하는 요인: 극적 긴장감                      주인공: 자청비                      목적: 정수남이를 살리는 것                      중간점: 정수남이를 살리지만 쫓겨남                      질문: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려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p>
	5	<p>길을 떠난 자청비는 청태산 마귀할망의 수양딸로 들어가 베를 짜며 살아간다. 마귀할망이 문도령의 혼인식에 쓰일 베를 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청비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을 베에 수놓고, 이를 알아본 문도령과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지지만 자청비의 행동에 문도령이 화가 나서 결국엔 무산되고 만다. 이에 화가 난 마귀할망은 자청비를 쫓아내고 자청비는 중의 행색으로 인간세상으로 돌아온다.</p>



		<p>통합하는 요인: 극적 긴장감          주인공: 자청비          목적: 문도령과의 재회          질문: 자청비는 문도령과 재회할 수 있을까?</p>
	6	<p>인간세상에서 시주를 하러 다니던 자청비는 하늘옥황의 선녀를 도와준 댓가로 하늘로 올라가서 문도령과 해후한다.          자청비와 혼인하겠다는 문도령의 말에 문도령의 어머니는 서수왕 셋째 딸과 칼선다리를 건널 것을 시험하고 자청비는 시험에 통과하여 문도령과 혼인한다.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던 자청비는 물명주를 짜며 살겠다고 문도령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p> <p>통합하는 요인: 극적 긴장감          주인공: 자청비          목적: 문도령과의 혼인          전환점: 문도령과 혼인 후 인간세계로 내려옴          질문: 자청비는 문도령과 혼인할 수 있을까?</p>
	7	<p>인간세상에서 자청비의 아름다움과 부지런함이 소문이 나 동네 청년들은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와 함께 살려는 계획을 세운다.          자청비가 이를 눈치 채고 문도령에게 당부를 하지만 문도령은 결국 죽어버리고, 자청비는 동네 청년들을 기지를 발휘하여 몰리친다.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다시 돌아간 자청비는 환생 꽃을 구해와 문도령을 살린다.          자신과 한 달에 15일,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15일을 나누어살기로 하지만 서천꽃밭으로 간 문도령은 감감 무소식이다.          속이 상한 자청비는 하늘옥황 문국성에게 살아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문국성은 오곡씨를 주어 세경땅으로 보낸다.          집으로 돌아간 자청비가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고하자 불쌍하다며 자청비가 살린 정수남이를 내어준다.</p> <p>통합하는 요인: 극적 긴장감          주인공: 자청비          목적: 문도령과의 행복한 혼인생활          절정/해결: 문도령과 혼인을 자의로 포기하고 오곡씨를 받아 세경땅으로 감          질문: 자청비와 문도령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p>
3	8	<p>자청비는 정수남이와 세경땅에서 오곡씨를 고르고 살아간다.          정수남이를 시켜 음식을 얻어오라고 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승낙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내린다.          뒤늦게 자청비를 찾던 문도령은 아버지 문국성에게 자청비처럼 오곡씨를 달라고 하지만 문국성은 칠곡씨를 주고 앞으로 천제상을 받아먹고 살라고 한다.</p> <p>에필로그: 이렇게 상세경은 문국성,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과 세경태우리는 정수남이가 된다.</p> <p>통합하는 요인: 장소(세경땅)          주인공: 자청비          목적: 세경땅에서 사는 것          질문: 어떻게 (그들이) 세경신이 될 수 있을까?</p>

〈표 4〉 〈세경본풀이〉의 3막 8시퀀스 구조

## 1) 시퀀스 1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1막은 시퀀스 1과 2로 나누어진다. 기본적으로 시퀀스 1은 주인공의 성격과 일상을 보여주며 어떠한 사람인지를 형상화하고 도발적인 사건을 발생시켜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든 이에 반응하게 한다.<sup>123)</sup> 즉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는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한 설명이 시퀀스 1인 것이다.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성격을 보여주기 전에 자청비의 탄생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일화를 삽입하고 있다. 일종의 프롤로그이다.

프롤로그를 제외한 시퀀스 1에서는 자청비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일상 속의 주변 인물들의 관계 설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애기엇인 팔제가 지집주소이민 어떻히고 아들주소이민 어떻히우파, 부처님이 짐지혀주는데로 아무 애기나 받으쿠다.

애기가 아방 독머릅에 강 좃작 앓앗닥 어멍 독머릅에 강 좃작 앓앗닥 하여가난 그제사 집안에 웃음이 낫쭈다.

자청비의 부모는 시주가 한 근이 모자라서 여자아이로 태어난 자청비를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키운다. 자청비와 자청비 부모의 관계는 우호적이라는 관계라는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술더기 밑에서 15세가 될 때까지 성장한 자청비가 정술더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다음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정술더기야 는 어떻히난 손발이 고와점시니?”  
“주천당 연하못에 간 스담을 하여가난 손발이 고와점쭈다.”  
“나도 강 스담히민 손발이 고와지느냐?”  
“예, 곱고말곡마썸!”

15년 동안 자청비를 키워낸 정술더기지만 정술더기와 자청비는 각별하지 않다. 정술더기는 자청비에게 자신의 일을 시키는 교활함을 보이는데, 이것은 자청비와 정술더기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양반과 종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와 주변인물의 관계설정을 끝내고 나서 자청비의 일상을 위협하는 도발적인 사건을 발생시킨다. 하늘옥황 문선왕의 아들인 문도령과의 만남이다. <세경본풀이>의 독자는 선행 정보인 프롤로그를 통해서 자청비가 주인공이라는 정보와 함께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의 결말에서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할 것이라는 정보도

<sup>123)</sup> 보클러, 앞의 책, 34~35면 참조.

가지고 있다. 하늘옥황의 아들인 문도령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인 자청비는 알지 못한다. 즉 극적 아이러니<sup>124)</sup>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자청비가 하늘에서 내려 온 문도령을 따라 나서는 것은 문도령을 통해서 하늘과의 연결 고리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문도령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시퀀스 1에서는 한 번 더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자청비가 글공부를 하기 위해 문도령을 따라 나서기 때문이다. 자청비는 글공부를 하기 위해 남장을 한 채 자신을 짐도령이라고 속이고 문도령을 따라 나서는데, 문도령은 자청비가 주천당 연화꽃에서 만난 여인인지를 알지 못한다. 독자들과 주인공인 자청비는 짐도령이 자청비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문도령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이러한 두 개의 극적 아이러니가 시퀀스 2에서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을 기대하게 하는 장치인 것이다.

## 2) 시퀀스 2

시퀀스 2는 작품의 주요 긴장 축을 설정하며 동시에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 형태를 부여하는 극적 의문을 제기한다.<sup>125)</sup> 그렇다면 <세경본풀이> 전체를 관통하는 극적 의문은 과연 무엇인가. 제목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자청비가 과연 세경신으로 좌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세경본풀이>의 극적 의문이다. 하지만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하기 위해서는 문도령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세경신으로의 좌정은 문도령과의 사랑으로 표상된다. 즉,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세경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퀀스 2는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극적 의문을 제시하는 시퀀스이다.

이러한 극적 의문은 ‘누군가 무엇을 매우 얻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극적 긴장감을 야기한다. 자청비는 서당에서 문도령과 3년 동안 동문수학하지만 자청비는 문도령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아직은 알지 못한다. 문도령은 3년 동안 자청비를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다. 글공부뿐만 아니라 씨름, 활쏘기, 오줌싸기 시합에서 모두 패한다. 이에 공부에 흥미를 잃은 문도령이 하늘로 올라가 장가를 가려고 하자 자청비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124) 극적 아이러니(dramatic irony)는 관객이 영화 속에서 한 명 혹은 다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 사실이 결국 밝혀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기대감이 생겨나 관객의 주의를 미래로 향하게 만든다, 줄리노, 앞의 책, 26면.

125) 줄리노, 위의 책, 35면.

문도령은 공비에 낮차하고 부부님께 글을 쓰고 ‘불러줍센’ 부짚네다.

문도령 부친 문국성은 회답하기를 ‘서수왕 말갓말애길 구허여시매 혼정 오랑 장겔 가라’ 허엿수다.

응 혼 글을 받은 문도령은 소장님께 가 솔르고 나고 가젠 홉네다.

짐도령도 눈칠 알안 소장님께 간

“저도 문도령 장개가는 디 참석하고 오겠습네다.”

문도령이 다른 여자와 혼인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 서당을 나서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무심헌 문도령아 연삼년을 혼 방에 살아도 남너귀별 문 허는 문도령아, 나는 집으로 감쭈다.’

짐도령이 자청비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퀀스 1의 극적 아이러니가 해소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경본풀이>의 극적 의문인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가 제시된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결합은 녹록치 않다. 문도령과의 결합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해당 결합이 극적 긴장감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도령은 자청비 방으로 간 보난 자청비가 천하일색이라 들이는 맛앗아 주안상을 받아 놓고 혼 두 잔을 허단 보난 문도령은 술에 홉뻑 취하고 손을 주악주악 나몰아가난 자청빈 통시 강 올쿠덴 허연 나왔단 들어갈 땐 종이에 먹으로 글을 써되, ‘나는 부부님 허락 엿이는 못들쭈수다’ ㄹ 혼 글을 문도령신디 내몰아두언 곱아불엿수다.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복숭아씨 두 알을 남겨두고 복숭아꽃이 피면 자청비를 만나러 오겠다는 글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거짓 텔레그래핑<sup>126)</sup>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이 인용문은 미래에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러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생성하지만 문도령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세경본풀이> 전체를 아우르는 극적 의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시퀀스 2에서는 극적 아이러니를 해소하고, 극적 긴장감을 만들며, 텔레그래핑 기법을 사용하여 상정한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극적 의문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어 2막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 3) 시퀀스 3

126) 관객에게 이야기의 진행 방향을 거짓으로 알린 다음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줄리노, 앞의 책, 23면.

시퀀스 3에서 주인공은 1막의 끝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시도를 벌이고, 문제 해결에 있어 제일 쉬운 길을 선택하며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소되길 바르게 된다.<sup>127)</sup> 1막의 끝에서 상정된 문제는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이다. 주인공인 자청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쉬운 방법은 문도령이 말한 대로 기다리는 것이다.

주청비는 그 도실씨를 엿돌 알레레 싱그고 고장이 필 딜 지드립네다.  
주청빈 지드려도 문도령은 아니오고 무심은 점점 바빠지고.

시퀀스 2에서 문도령은 복숭아씨 두 개를 남겨놓고, 두고 간 복숭아씨를 심어 꽃이 피면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꽃이 피어도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는다. 거짓 텔레그래핑으로 밝혀지는 순간이다. 더 이상 문도령을 기다릴 수 없는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 마침 문도령을 만나고 왔다는 정수남이를 따라 신산(神山)으로 올라간다.

“예, 쇠 아옴바리 물 아옴바리에 신산곶을 도올르고 냇을 흐단 보난 문국성 문도령이 하늘옥황 선녀들과 바둑장귀 두는 거 귀경 흐단 보난 쇠 아옴 물 아옴은 물 그리완 문 죽어십니다.”

“정수남아, 그영흐민 문국성 문도령이 바둑장귀 두는 걸 나도 가민 보아질카이?”  
“거 미슨 말썸이우파? 우리 쌍놈도 강 귀경 실피흐영 온디, 상제님은 더욱 잘 귀경흡네다.”  
“흐진, 나 그디 돌아다 도라.”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의심하지 않고 정수남이가 말하는 대로 문도령이 옥황선녀들과 바둑장귀를 둔다는 곳으로 향해 간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문도령을 직접 만나려 감으로써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길 바라고 있다.

신산으로 올라간 자청비는 정수남이의 여러 장난을 기지로 모면하고, 정수남이는 이에 화가 난다. 그리고 자청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독자들은 이미 정수남이 자청비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뿐만 아니라 이 극적 아이러니는 따라다니는 원인(dangling Cause)<sup>128)</sup>이 된다.

이젠 정수남이가 용심이 난에 주청빌 죽일팔로 둘러간다.

자청비를 죽이러 들어가는 정수남이의 모습은 독자들의 머릿속에 결과에 대한 궁금증

127) 줄리노, 앞의 책, 36면.

128) 따라다니는 원인은 계획이나 경고, 협박, 그리고 희망 혹은 두려움, 또는 예언 등의 표현으로, 관객들의 머릿속에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지만 즉각적인 대답은 제공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줄리노, 위의 책, 25면.

을 유발하지만 즉각적인 대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앞으로의 내용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제 독자는 자청비가 정수남이의 손에 죽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자청비는 정수남이의 살해 위협을 기지로 모면함으로써 독자의 예상이 반전을 통해 빗나간다.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닌 위협에 맞서는 자청비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반전은 어느 한 쪽으로 고정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다양한 가치와 기준을 긍정할 때 생<sup>129)</sup>기는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 못된 주숙, 아맹하민 나 독립에서 좀을 잘 수가 있느냐?”

통설대를 빼어 들고 정수남의 원귀로 질르고 누단귀로 빼여내면 죽여두고 물을 심어 타명 정벌을 읽는구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문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정수남이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문도령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 자청비의 쉬운 선택은 정수남이의 겁탈 위협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기지로 겁탈의 위기에서 벗어난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죽임으로써 우호적 관계로 설정된 부모와의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자청비의 부모는 “그 종은 우리 식굴 맹영 살리는 종인디, 어서 나 종으로 살려오라”며 자청비를 다그치고, 자청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된다.

‘자청비와 문도령은 결합할 수 있을까’라는 <세경본풀이>의 극적 의문은 잠시 유보된 채,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살려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가 새로운 문제로 상정된다.

#### 4) 시퀀스 4

시퀀스 4에서는 주인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음이 밝혀진다.<sup>130)</sup>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신산으로 올라간 자청비는 문도령은 만나지 못하고, 가족의 종인 정수남이를 살해하게 되고, 그 결과 부모로부터 쫓겨난다. 문도령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우호적인 관계마저 파멸하기에 이른다.

죽은 정수남이를 살려오는 것만이 자청비가 부모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되돌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릴 수 있는 꽃이 가득한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된다. 시퀀스 3의 말미에서 자청비는 “서천꽃밭 꽃을 타당 정이었던정수남일 살려내져” 하며 길을 떠나기 때문에 독자들은 시퀀스 4가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겪게 될 이야기를 그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일과 같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상정하며 극적 긴장감을

129) 김동건, 「토끼전의 인물 형상과 개방성」, 『판소리 연구』 20, 판소리학회, 2005, 160면.

130) 줄리노, 앞의 책, 36면.

나타낸다.

이러한 극적 긴장감이 해소되는 과정이 시퀀스 4라고 할 수 있다.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청비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상징적 공간<sup>131)</sup>이며 이승이나 저승 또는 천상 계와도 구분되는 특수한 공간<sup>132)</sup>이라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야 한다. 특수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므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서천꽃밭 주인대감에게 서천꽃밭을 어지럽히는 부영이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한다. 기지를 발휘해 부영이를 잡은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의 인정을 받고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할 것을 제안 받는다. 이에 자청비는 과거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말로 혼인을 유보한다. 따라다니는 요인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언젠가는 혼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 갈등은 시퀀스 7에서야 해소된다.

우여곡절 끝에 정수남이를 살릴 꽃을 몰래 훔쳐 온 자청비는 죽은 정수남이를 살려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부모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일상이었던 자청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자청빈 정수남이 드란 집으로 완

“어머님아 어머님아 정이엿인정수남이 살려와시메 말씀서.”

“남도나고 듨도 들었져. 사람을 어떻 죽였당 살리느냐? 느냥으로 드랑 나고가라.”

아방왕이 돌려가고

“아바님아, 아바님아 정이엿인정수남이 살려왔수다. 말씀서.”

“지집년이 남도나고 듨도들었져. 어떻 사름을 죽이곡 살린덴 말이나? 꼴보기 싫다. 느냥으로 나고가라”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려왔지만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첫 번째 극점이다. ‘문도령과 결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극적 의문은 자청비가 일상을 상실함으로써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따라서 극적 긴장감은 증가하게 된다.

## 5) 시퀀스 5

시퀀스 5는 첫 번째 극점에서 새롭게 발생한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인공의 노력<sup>133)</sup>이 드러나는 곳이다. 자청비는 첫 번째 극점에서 부모와의 우호적 관계를 상실하고 만다. 정수남이와의 사건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부모와의 우호적 관계를 회

131)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9면.

132) 이수자, 앞의 논문, 190면.

133) 줄리노, 앞의 책, 37면.

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정수남이를 살려와 일상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자청비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유보되었던 극적 질문인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를 재상정 한다.

시퀀스 5는 새로운 인물과 기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곳으로서, 자청비는 청태국 마귀할망을 만나서 문도령과 재회할 기회를 마주한다.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던 자청비는 청태국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마귀할망을 만나게 되고, 마귀할망의 수양딸이 된다. 이 마귀할망은 때마침 문도령의 혼사에 쓰일 배를 짜고 있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혼사에 사용할 배를 대신 짜주겠다고 이것을 문도령을 만날 기회로 이용한다.

무심한 문도령아 나를 상봉하러 오키엔 하여 두언 연삼년을 지드려도 붉은 돛 한번 못보고 어 느제민 상봉하료? 오희 글을 놓완 배를 먼 차난

문도령은 배를 보고 자청비를 기억해 내고 자청비를 만나러 청태국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자청비는 어찌된 영문인지 문도령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 이는 문도령을 기다림으로써 벌어진 첫 번째 극점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자청비의 목적이 문도령과의 결합이 아니라 문도령을 응징하는 것으로 전복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청비야, 이 문올라 나 문두령이여.”

“문두령이 뜰밧건 문틈으로 손을 내몰아 봅서”

문두령은 문틈으로 손을 내 무난, 귀신 생인을 곱갈라보젠 자청비는 바놓으로 문두령 송까락을 찢러본다. 그영후난 문두령은

“아가기여!”

훤명 송까락을 확 빼연 보난 자주피가 불끈 난다.

“에이, 부정훤 넌 훤군!” 문두령은 훤셋배를 7전 옥황으로 도올라간다.

하지만 문도령 역시 자청비를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는 없다. 3년을 기다려 재회하게 된 문도령과 자청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고 자청비는 이러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수양어머니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이다.

시퀀스 5는 자청비가 문도령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친부모로부터 쫓겨난 자청비는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이다. 돌아오겠다는 문도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청비는 문도령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문도령이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혼인을 하였는지, 혼인을 하였다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이다. 자청비가 이러한 정보를 획득한 상태여야만 문도령과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청비는 청태국 마귀할망의 집에서 문도령과 마주함으로써 문도령의 생사, 혼인 유



무,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즉, 시퀀스 5의 긴장감은 해소되었지만 주 긴장축인 극적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화가 난) 문도령과 자청비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여전히 위험 수위가 높은 새로운 분규를 낳게 된다.

## 6) 시퀀스 6

시퀀스 6은 작품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주인공이 선택하고 기대하였던 결과들이 모두 사라지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됨으로써 결국 주인공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극적 의문에 대한 답이 제공<sup>134)</sup>되는 시퀀스이다. 시퀀스 6에서는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단행했던 결정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자청비가 문도령이 속한 공간인 하늘옥황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을 대면하게 된다.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손쉬운 방법들은 자청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자청비는 결국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요 선녀들 저 선녀들, 어드레 가는 선녀가 됩니까?”

“하늘옥황 문국성 문도령이 자청비 만나러 간 문 아니 올라주어비난 심매뱅이 나아놓고 ‘자청비 먹는 물이 약이엔’호연 그 물을 질레 오랍쑤다.”

“그영호민 자청비 먹는 물은 내가 질어주커메 나를 혼디 돌아다 줘서.”

“결랑 그영 흡서.”

자청빈 이녁 먹는 물을 질어주난 선녀가 자청빌 허벅바위레 앞전 하늘옥황으로 올라가는구나.

하늘로 올라간 자청비는 중의 행색으로 마침내 문도령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청비는 문도령이 사는 뒷문 맞은편에 있는 팽나무 위에 올라가 노래를 지어 부르며 자신이 문도령을 찾아왔음을 밝히고 있다.

“돌아 돌아 붉은 돌아 계스낭기 붉은 돌아 저 돌은 문도령을 알건마는 이 내 몸을 문도령을 몰르고 문도령도 나를 모르니 이런 답답함이 어디 시명 이런 답답함을 어느 누가 알랴!”

이 노래를 들은 문도령은

“돌도 곱긴 곱다마는 초싱돌이 반돌이여 저 돌이 아맹 곤들 자청비만이사 고랴!”

드디어 자청비와 문도령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자청비와 문도령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극적 의문이 해소되는 지점인 듯 보인다. 하지만 자청비와 문도령은 정식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도령에게는 혼인을 약속한 서수왕 셋째 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문도령의 어머니는 하늘옥황으로 서수왕 셋째 딸을 불러들인다. 자청비와 서수왕 셋째 딸에게 문도령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백탄숯불 위

<sup>134)</sup> 줄리노, 앞의 책, 38면.

에 올려 놓은 칼선다리를 건너라는 시험을 제안한다.

“아무라도 이 칼선도릴 바람 하늘옥황 문선왕에 강 허배흐민 나 매누리가 분맹흐다”

바로 두 번째 극점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독자들은 자청비가 문도령과 재회하기만 한다면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그 예측은 칼선다리를 건너라는 문도령의 어머니의 말에 반전된다.

서수왕 뜰애기광 주청빈 실죽실죽 뒤물러스는구나.

“서수왕 딸애기부며 몬저 이 칼선도릴 바람 올라가라.”

“아이구, 난 죽음은 죽었주 이 백탄숯불에 짓별경혼 칼선도릴 밟 수가 엇수다.”

문선왕의 어머니는 문도령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서수왕 셋째 딸에게 먼저 칼선다리를 건너갈 것을 제안한다. 발강게 달구어진 칼선다리를 올라가라는 것은 어려운 임무이다. 이 임무를 수행해야 문도령과 혼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도령과 정식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자청비는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독자들은 이 지점에서 극적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옥황상제님아, 저를 사리커진 비나 혼주제 누리와 줘서.”

혀여가난 고향착만이 혼 구름이 동실동실 터 오터니만 겁비가 혼주제 오는구나.

그영흐난 칼싼도리가 식언, 주청빈 그 칼선도릴 바람 활딱 옥황으로 올라가는 게 그만 발뒤꿈치가 약싯 비연, 피가 볼꽃 나는구나.

자청비는 문도령을 얻기 위해서 옥황상제에게 축수를 드려 칼선다리를 건너고야 만다. 그러나 자청비는 칼선다리에 밟을 다친다. 칼선다리를 건너는 것이 밟을 다칠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청비는 하늘옥황에 올라 문도령을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는 듯했지만 문도령과 정식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겨루기를 해야만 했었고, 결국 승리하고 만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매우 원하지만 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극적 의문을 상기한다면, 자청비가 일련의 사건을 어렵게 해결하고 원하던 문도령을 얻게 되는 것<sup>135)</sup>으로 보아 자청비가 마침내 극적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퀀스 6은 그 자체로 독자에게 또 다른 가능한 결말의 힌트를 제공한다. 문도령과 결합한 자청비는 하늘옥황에서 편안하게 문도령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 습니다’라는 진부한 결말을 거부한다.

135) 문도령과 주청비는 혼인입장을 흐는구나.

흔 해 쯤 살아지난 주청비가 씨부무신디 말을 후되,  
“저는 이젠 인간이 능력 살고프우다.”  
“미싱걸 후명 살티야?”  
“물맹질 차명 살쿠다.”  
“어서 아맹이나 후라.”  
주청비는 씨부무안티 하직 인술 후고 문두령광 혼디 인간으로 느려온다.

자청비는 신으로 좌정할 기회가 더 많은 하늘옥황을 거부하고 문도령과 함께 인간세계로 내려온다. 인간세계로 내려온다는 것은 <세경본풀이>의 결말에 대한 힌트인 것이다.

## 7) 시퀀스 7

끝을 의미하는 3막의 첫 번째 시퀀스인 시퀀스 7은 앞에서 설정된 다른 이야기 축과 따라다니는 원인들이 새롭지만 더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주인공에게 기존의 목표와는 상반된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sup>136)</sup> <세경본풀이>의 따라다니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부모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와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이다. 이 따라다니는 원인들이 해소되는 부분이 바로 시퀀스 7이다.

인간세계로 내려온 자청비는 시부모에게 말한 대로 물명주를 짜면서 살아간다. 아름답고 부지런한 자청비를 흠모하던 동네청년들은 문도령을 살해하게 되고, 자청비는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다니는 원인인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혼인할 수 있을까’가 해소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획득하여 문도령을 살린 자청비는 하늘옥황으로 올라가 시부모에게 자신이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한 사실을 밝힌다.

“아바님아 아바님아, 저는 문도령을 살려내젠 서천꽃밭 주인대감 말쑤똥애기신디 암창개를 들었습네다. 이 일을 어떻게민 좋구가?”  
“에이구 설론 얘기가 나 아들을 살리젠 암창개까지 들었구나. 기특후고 착후구나.”  
칭찬을 하여두고 아들신디 말을 후되  
“문국성 문두령아, 내 말을 들으라, 선보름이랑 주청비광 살곡, 후보름이랑 죽은매누리영 살라.”

‘자청비가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따라다니는 원인은 문도령이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함께 살려 서천꽃밭으로 가면서 해소된다. 하지만 문도령이 자청비를 잊게 됨으로써 자청비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36) 줄리노, 앞의 책, 39면.

“아바님아 아바님아, 문두령이 주인대감 말쑥똥에 가난, 연삼년이 되어도 소식 하나 엇입니다. 펜지를 허난 오라십디다마는 물을 거스로 탄 오란 문을 올랜 흠디다마는 나 문 아니 올았수다. 오직 날을 미와사 물을 거스로 탕 올 겨우파?”

“그영 허나때나 문 올라주카푸네 무사 문 아니올아주ంది?”

“저는 의정엇인 사념을 살 수가 엇수다. 아바님이 저 살을 도래를 닦아줍서.”

문선왕이 말을 허되

“에이구 설룬 나 메누리야, 오곡씨를 누리와 주커메 씨나 골랑 얻어먹영 살라”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자청비는 자신을 잊은 문도령과 정리 없는 삶은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이에 문선왕은 자청비에게 오곡씨를 건네주고, 자청비는 오곡씨를 받아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친부모를 찾아간다.

자청비는 진정으로 가서 어멍 아방왕의 이제7지 살아온 역사를 다 곱고, 허난,

“에이구! 설룬 얘기야, 느 살려온 종 드랑 가라.” 허는구나.

따라다니는 요인인 ‘자청비가 부모와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가 해소되는 순간이다. 자청비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마침내 부모와 화해한다.

일반적으로 시퀀스 7은 계속 높아지는 위기감과 더욱 격양되는 진행 속도가 특징이며 그 결말 역시 뜻밖의 전개를 보이는데 <세경본풀이> 역시 문도령의 사망, 자청비와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혼인, 문도령의 환생, 문도령과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혼인으로 이어지며 그 위기감이 계속 높아진다. 결국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자의적 이별, 즉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인간세계로 돌아가는 뜻밖의 전개를 보이며 부모와 화해한다.

## 8) 시퀀스 8

시퀀스 8은 거의 예외 없이 이야기의 결말을 내포한다.<sup>137)</sup> 즉,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퀀스 7에서 자청비는 문선왕으로부터 오곡씨를 받는다.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자청비가 오곡씨를 받았다는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자청비가 세경신으로 좌정하였다라는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시퀀스 8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수남이와 세경땅으로 오곡씨를 고르러 간 자청비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조화를 부리고, 부탁을 들어주는 노인들에게는 복을 줄뿐 아니라 인간에게 경배를 받는 신이 되게 한다.

137) 줄리노, 앞의 책, 39면.

주청비는 저애를 부련, 아옴 장남에 광난이징 주고 아옴 쇠엔 병 앵일 썬와부난 아옴 썬 이웃 밧 데레 와짓근와짓근 돌력퀴멍 돌아나부난 밧은 갈아놓았자 씨를 못골르게 되었구나.

“그영후민 족양 살아집네까? 이 밧 닷말지기에 다숫바리 나도록 썬 골라내엿수다.”

“그영후여시민, 할오바님은 제석천왕으로 들어상 일년 열두돌 고스지널 때 제석천왕으로 청후 건 큰 상 받으멍 샅서. 할마님이랑 제석지왕으로 들어상 상을 받으서”

위의 인용문을 통해, 자청비가 문선왕에게서 오곡씨를 받아온 것뿐만 아니라 풍농과 흉농을 관장하고,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능력까지 함께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세경신의 모습을 완벽히 갖춘 것이다.

시퀀스 8은 가까스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긴장이 해소되며 거의 언제나 에필로그 혹은 피날레를 포함<sup>138)</sup>하는데 <세경본풀이>에서는 에필로그에 가서야 완벽하게 긴장이 해소된다. <세경본풀이>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인 자청비, 문도령, 정수남이 모두 세경신으로 좌정하기 때문이다.

상세경 문도령 중세경 주청비 하세경 정수남이 세경태우리도 정수남이가 후라.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과 세경태우리가 되어 세경신으로 좌정하고 이야기는 끝이 난다.

결국 <세경본풀이>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극적 의문을 통해 세 인물이 세경신으로 좌정하기까지 이야기를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역동적이며 극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3. 자발성: 영웅의 여행(the hero's journey)

<표 5>는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의 여행과 <세경본풀이>의 영웅의 여행을 비교한 것이다.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출발, 입문, 귀환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동일하게 거치지만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명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승을 만나 준비를 한 뒤에 진정한 영웅의 여행을 시작한다.

하지만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인 자청비는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자청비의 여행에서는 자청비가 소명을 거부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세경본풀이>는 주인공인 자청비의 자발성(自發性)이 부각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성장하고 변화하

138) 줄리노, 앞의 책, 40면.

게 만드는 구조가 ‘영웅의 여행’에서 명확하게 구현된다고 할 때, <세경본풀이>를 ‘영웅의 여행’으로 분석함으로써 <세경본풀이>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명력을 가진 이야기임을 밝힐 수 있다.

	조셉 캠벨	크리스토퍼 보글러	<세경본풀이>
출발	일상세계 모험에의 소명 소명의 거부 초자연적인 조력 첫 관문의 통과 고래의 배	일상세계 모험에의 소명 소명의 거부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첫 관문의 통과	<세경본풀이> 신이한 탄생 일상세계 모험에의 소명  첫 관문의 통과 새로운 목적
입문	시련의 길 여신과의 만남 유혹자로서의 여성 아버지와의 화해 신격화 홍익	시험, 협력자, 적대자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시련  보상	시험, 협력자, 적대자 하늘옥황으로의 접근  혼인
귀환	귀환의 거부 불가사의한 탈출 외부로부터의 구조 귀환 관문의 통과 두 세계의 스승 삶의 자유	귀환의 길  부활 영약(靈藥)을 가지고 귀환	귀환의 길  귀환 관문의 통과 부활 영약을 가지고 귀환 능력의 발현

<표 5>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의 여행’과 <세경본풀이>의 ‘영웅의 여행’ 구조 비교

### 1) 신이한 탄생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과 달리 신이한 출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비정상적인 탄생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탄생에서부터 영웅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곧 영웅의 여행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 자청비의 부모인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혼인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없어 근심이 이를 데가 없었다.

짐진국 대감님광 조진국 부인님이 열다섯 시오세에 부배간을 무어 근삼십이 근당후여도 일신 서리 었어 호호 근심 홉테다.

그러던 어느 날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에게 상주절 대사가 찾아오고 부처님께 시주를 드리면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대사가 원하는 대로 시주를 준비하였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준비한 시주가 모자라게 된다.

소서중이 나오고 수록채 물품들을 부처님 장대를 내어 놓완 문 저우려 보완  
 “아은 아웁근 매기우다”  
 대서중이 말을 후대,  
 “오늘 오는 도중에 서개남 금법당 소서중을 만납디강?”  
 “예”  
 “그 때문에 혼근이 축났쑤다.”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시주를 하고 원하던 아이를 얻지만 시주가 한 근이 모자라 여자아이를 얻게 된다. 불공을 드려 자식을 얻었지만 그 시주가 모자라 여자아이가 되었다는 자청비의 탄생은 신이하다고 할 수 있다.

## 2) 일상세계

자청비는 15세가 될 때까지 여종 정술더기의 손에서 자라난다.

“자청비를 열다섯 시오세ㄱ지만 뽕충당에 두랑 강 질루라.”  
 정술더긴 주청빌 두란 뽕충당에 두러간다. 뽕충당에 두러가고 주청빌 열다섯 시오세ㄱ지 잘 슬퍼 질릅네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자청비가 15년을 살아가는 동안 자청비의 일상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영웅을 새로울 것이라고는 없는 일상 세계로부터 낯선 미지의 특별한 세계로 데려다 놓는<sup>139)</sup>것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자청비의 일상이 전혀 새로울 것 없다는 것은 이제 자청비가 낯선 세계로의 모험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 3) 모험에의 소명

이 단계는 일반적인 ‘영웅의 여행’에서 영웅이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고, 이에 도전하거나 모험을 시작하는 것으로 단계로 모험에의 소명을 제시받은 영웅은 이제 더 이상 일상 세계의 안락함에 무한정 머물 수 없다.<sup>140)</sup> 즉 자청비가 일상 세계의 안락함을 떠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모험에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까지 사랑을 받으며 부모의 슬하에서 지내던 자청비의 일상 세계를 흔들어 모험으로 이끄는 요인은 하늘옥황 문국성의 아들인 문도령과의 만남이다.

“어드레 가는 도령님이우짱?”  
 “나는 글공비 가는 문도령이우다.”

139) 보글러, 앞의 책, 54면.

140) 보글러, 위의 책, 55면.

“우리 오라방도 석돌전부터 글공빌 가젠 호여도 벗이 엇언 못감쭈다. 우리 오라방짱 혼디 강 공비호기 어평호우짱?”

글공부를 하러 간다는 문도령의 말을 통해 자청비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글공부가 모자라다’라는 결핍을 깨닫게 된다. 15년 동안 정술더기의 손에서 자라 난 자청비는 그 동안 글공부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김진국 대감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바님아 지집주소은 공비를 못호는 법이우까?”  
“공비 못호는 법이사 엇주마는 공빈 호민 미싱 것에 씨느니?”  
“계민 부무님네 돌아가시민 축지방을 누게 빌영 썰 거우짱?”

15세의 자청비는 축지방을 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문을 통해 자청비는 자신의 인생에 글공부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글공부를 하기 위해 문도령을 따라 나선다. 즉 부모와 정술더기의 보호를 자발적으로 떠나 ‘서당’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입문하게 되는 것이다.

소명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캠펠과 보글러의 영웅과는 달리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자발적’으로 모험을 시작한다.

#### 4) 첫 관문의 통과

자청비는 서당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문도령과 한 방에서 잠을 자며 3년 동안 글공부를 하게 된다. 영웅은 첫 관문의 통과를 이루어 처음으로 특별한 세계로 완전히 진입하<sup>141)</sup>기 때문에 자청비가 본격적으로 모험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서당으로 완전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도령과의 겨루기를 통해 자청비의 우월함을 증명해내야 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여러 번의 겨루기를 하여 모두 승리한다. 본격적인 모험에 오르기 위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초시험을 보는데 문도령은 줌덜래여농난 꾸박꾸박 줄멍 시엄을 보안 초시엄에 털어지고, 짐도령은 아무 걱정 엇이 이레 돌아누영 썩썩 저레 돌아누영 썩썩 줌을 실패 자농난 초시엄에 합격이 되었쭈다.

각곳 심백에 문도령은 짐도령안티 털어집네다. 글짓기 심백을 호여도 지고, 활쓰기 심백을 호여도 지고, 씨름을 호여도 지고, 오좁싸기 심백을 호여도 지고 문도령은 범수에 짐도령안티 지엿쭈다.

문도령과의 겨루기를 통해 자청비는 지적, 체력적으로 문도령에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

141) 보글러, 앞의 책, 58면.



명한다. 이제 자청비는 ‘글공부가 모자라다’라는 결핍이 더 이상 결핍이 아님을 인지하게 된다.

### 5) 새로운 목적

자청비는 ‘서당’에서 이미 글공부라는 결핍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모험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은 영웅으로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명을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승을 만나 준비를 한 후에 비로소 진정한 영웅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자청비는 자신의 결핍을 인지하고 자의로 영웅의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새로운 결핍 혹은 새로운 목적이 상정되어야 한다.

집→서당/ 글공부라는 결핍 해소

집←서당/ 배우자라는 결핍 발생

자청비는 ‘서당’에서 이미 글공부라는 결핍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청비에게는 새로운 결핍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자라는 존재의 결핍이다. 서당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운 자청비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울 배우자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한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던 문도령이 서수왕 셋째 딸과 혼인을 하러 하늘옥황으로 돌아가려하자, 자청비는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 때 주청빈 버드낭짚을 훔타 내연 손뿌리에 주지피를 붙끈 내완 글을 써되

‘무심혼 문도령야 연삼년을 혼 방안에 살아도 남녀귀별 문 호는 무도령야, 나는 집으로 감쭈다.’

자청비의 정체를 알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자청비를 따라 나선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집에서 자청비와 동침하려고 하지만 자청비는 이를 거부한다. 문도령은 ‘복숭아씨를 심어 꽃이 피면 자청비를 상봉하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하늘옥황으로 돌아간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을 뿐 결합은 하지 않는다. 자청비에게는 아직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하여 줄 배우자가 결핍된 상태이다. 이러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청비는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다.

### 6) 시험, 협력자, 적대자

서당으로의 입문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자청비는 새롭게 발생한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또다시 여행을 떠나야 한다.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영웅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전과 시험에 들게 되고 협력자와 적대자를 만들게 되며, 특별한 세계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한다.<sup>142)</sup> 첫 관문을 통과하며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을 모두 획득한 자청비에게 새로운 시험, 협력자, 적대자가 소개되고, 특별한 세계의 규칙이 제시된다.

서당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온 자청비에게 일상은 더 이상 과거의 일상이 아니다. 하늘옥황으로 돌아간 문도령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지만,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을 모두 획득한 자청비의 일상은 빨래나 하러 다니던 15세의 자청비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새로운 일상에서 자청비는 적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집안의 종인 정수남이다.

정수남이는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정수남이는 이를 이용해 자청비를 농락하다가 살해하려 들지만 자청비는 기지를 발휘해 정수남이에게서 벗어난다. 정수남이가 꾀뾀하다고 생각한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해하고 돌아온다. 적대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자청비는 자신의 세계를 견고히 하려고 하지만 특별한 세계의 규칙이 이를 묵과하지 않는다.

이 특별한 세계의 규칙을 가르쳐 주는 산신이라는 인물은 자청비에게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증간에 오난 산신님이 나시고 말을 흐되,

“어명흐는 느 우으로 놀팍내가 난다.”

주청비가 말을 흐되,

“오는 질레 몰밭에 순작이 붉혀 죽었수다.”

“어디서 헛소리 말라, 느 뒤에 엄부력 총각이 피 별경게 나명 돌아오람다.”

주청비가 몰우티서 핏떡하게 느려스고

“과연 잘 못했습네다. 두란 간 종놈이 행실이 부족흐연 죽여두언 오는 질이우다, 살려줍서.”

산심님이 경을 읽어 그 생죽산일 털어준다.

자청비는 산신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적대자인 정수남이를 살해한 것을 사실대로 부모에게 말하지만 부모는 자청비를 용서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인 것도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규칙을 깨닫게 된다.

정수남이를 살리려고 찾아간 서천꽃밭에서 자청비는 앞으로의 여행을 도와줄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가기 위해 남자의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 시베리아의 샤먼은 모험에 대비해서 새나 사슴, 즉 샤먼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며, 자기 망령의 본체인 짐승을 상징하는 마법의 의상을 걸친다. 그가 든 지팡이 역시 그를 돕는 협력자 중 하나이다.<sup>143)</sup> 따라서 자청비의 남자의 옷은 협력자로 해석할 수 있다.

자청비는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인간계에서 서천꽃밭으로의 공간 이동을 감행한다.

142) 보글러, 앞의 책, 59면.

143) 캠벨, 앞의 책, 130면.

일단 관문을 통과한 영웅은 기묘할 정도로 유동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이루어진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영웅은 이곳에서 거듭되는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sup>144)</sup> 이제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서천꽃밭이라는 특별한 세계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가 가진 규칙을 숙지해야 한다. 서천꽃밭에 속하지 않은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속한 인물의 동의가 없이는 입성할 수 없다. 서천꽃밭을 어지럽히는 부엉이를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자청비라는 것을 알게 된 서천꽃밭 주인대감은 자청비에게 부엉이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며 자청비를 서천꽃밭으로 초대한다. 즉 서천꽃밭에 속한 인물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세계로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공간에 속한 인물들은 그 공간에 속한 인물의 동의 없이는 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규칙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관문을 넘어야만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그 관문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서천꽃밭에서 자청비는 서당에서 획득한 육체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부엉이를 잡게 되어 서천꽃밭 주인대감이라는 관문수호자는 협력자로 치환되지만, 자청비의 서천꽃밭 내의 이동은 아직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천꽃밭에 속한 인물과 결연을 맺어야 하며, 이는 혼인으로 표상된다.

“도령님 덕택으로 생일 문 심어졌수다. 그 은공을 다 갚을 수가 었수다. 우리집 말쑤똥에 장개 들기 어떻후우파?”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한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함께할 때 비로소 서천꽃밭 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의 도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 번성꽃, 환생꽃, 멸망꽃 등을 획득하여, 정수남이를 되살려 집으로 돌아오지만 자청비의 부모님은 자청비를 쫓아낸다.

“아바님아, 아바님아 정이엿인정수남이 살려왔수다. 말씀서.”

“지집년이 남도나고 듨도들엿져, 어떻 사름을 죽이곡 살린덴 말이나? 꼴보기 싫다. 느냥으로 나 고가라.”

이것은 인간세계의 규칙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리는 영역은 인간세계가 관장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청비가 서천꽃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입성하여 획득한 환생꽃 등의 능력은 서천꽃밭이라는 관문을 넘지 않은 자청비의 부모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리된 세계를 넘나들 수 없는 자청비의 부모는 오직 인간세계의 규칙만을 따를 뿐이다.

<sup>144)</sup> 캠벨, 앞의 책, 128면.

뒤이어 자청비는 청태산 마귀할망, 중의 옷과 같은 협력자를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특별한 세계의 규칙을 인지하게 된다.

### 7) 하늘옥황으로의 접근

한 명의 적대자와 여러 명의 협력자를 만나서 특별한 세계의 규칙을 인지하게 된 자청비는 드디어 하늘옥황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 자청비의 삶에 결핍되어 있던 문도령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이다.

주청빈 이녁 먹는 물을 질어주난 선녀가 주청빈 허벅바위레 앉전 하늘옥황으로 올라가는구나.  
하늘옥황 문도령집 올레레 가난, 주청빈 중의 행색으로 문도령 집안으로 들어간,  
“소승 절이 뱀네다. 권제 삼문 내어 줌서.”  
늦인득이정하님이 나오란,  
“시주 받음서.”  
후난, 주청빈 말을 후되,  
“시주랑 맹심후영 놓서. 훈방울이라도 혈호민 맹 털어지꼭 복 털어집네다.”  
그영 후연 시주를 받는다, 주청비가 시주 받는 찰릴 좁아부난 쏘이 알레레 잘잘 혈읍네다.  
“이 중 저 중 괴씸흔 중, 그 쏘, 당신냥으로 문 좇영 가소.”  
늦인득이정하님은 들어가고, 주청비는 앉아두서 그 쌀을 방울 방울 좇이명, 윗눈으로 집안을 힐  
끗힐끗 슬퍼 봄네다. 슬퍼 보난 문도령은 뽕충당에 쏘구나. 주청빈, 날은 어둡고 후연, 이젠 문  
도령 사는 뒷문 바른 폭낭우터 올라간 놀래를 지언 불르는구나.

자청비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에 입성할 때, 그 공간에 속한 인물의 동의를 없이는 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하늘옥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늘옥황에 속한 인물의 동의를 얻어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에 자청비는 협력자인 중의 옷을 통해 선녀들의 도움으로 하늘옥황에 입성하고, 문도령의 집까지 들어가게 된다.

캠벨과 보글러의 영웅에게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은 영웅이 가장 상대하기 힘겨운 적의 수뇌부가 있는 곳, 특별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 동굴 가장 깊은 곳<sup>145)</sup>을 의미하지만 자청비에게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달하여야 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 8) 혼인

영웅은 동굴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면 두 번째 주요 관문을 건너게<sup>146)</sup> 된다. 자청비의 두 번째 주요 관문은 문도령과의 혼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옥황에 입성한 자청

145) 보글러, 앞의 책, 61면.

146) 보글러, 위의 책, 같은 면.

비는 문도령과 재회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정식적인 혼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장애물이 극복되고 도깨비가 퇴치되었을 때 영웅이 치르는 마지막 모험은 승리한 영웅과 세계의 여왕인 여신과의 신비로운 혼례로 표상<sup>147)</sup>되는데,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은 여성이므로 남성과의 혼인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자청비가 문도령과 혼인한다는 것은 자청비가 이 여행에서 승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청비가 문도령과 혼인하여 여행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의 관문을 더 넘어야 한다. 문도령은 서수왕 셋째 딸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청비가 문도령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서수왕 셋째 딸이 문도령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도령의 어머니는 자청비와 서수왕 셋째 딸에게 문도령과 혼인을 위한 관문인 ‘백탄숯불 위의 칼선다리 건너기’라는 시험을 제시한다.

문도령 어머님은 백탄숯불을 삼만이 호계 살란 그 우테레 칼싼드릴 호여놓고 말을 호되  
“아무라도 이 칼싼드릴 바랑 하늘옥황 문성왕에 강 허배호민 나 매누리가 분맹호다.”

서수왕 셋째 딸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자청비는 하늘에 축수를 드려 관문을 통과하고 며느리로 인정을 받는다. 자청비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여 문도령과의 혼인으로 그동안의 여행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 9) 귀환의 길

문도령과 혼인함으로써 보상을 받은 자청비는 더 이상 하늘옥황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자신이 인지한 모든 결핍을 해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자청비는 자발적으로 인간 세계로 내려가기를 희망한다.

흔 해 쯤 살아지난 주청비가 씨부무신디 말을 호되  
“저는 이제 인간이 노령 살고프우다.”

“미싱걸 호명 살티야?”

“물맹질 차명 살쿠다.어서 아맹이나 하라.”

주청비는 씨부무안티 하직 인술 호고 문도령광 혼디 인간으로 노려온다.

자청비가 귀환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자신에게 결핍으로 여겨지던 문도령은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보상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속한 인간세계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자청비가 하늘옥황으로의 장소 이동을 감행한 것은 오직 문도령을 만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청비는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 인간세계로 귀환한다.

147) 캠벨, 앞의 책, 144면.

## 10) 귀환 관문의 통과

인간 세계로 돌아온 자청비는 동네청년과의 사건이라는 귀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인간 세계로 돌아온 자청비는 배를 짜면서 생활한다. 자청비가 착하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동네청년들은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데려다가 살 궁리를 한다. 동네청년들의 꾀에 속아 넘어간 문도령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청비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을 찾아온 동네청년들을 응징한다.

“요 우터 무쇠방석이 쏘수다. 요 방석을 누리왕 맞입서.”

청년 으나문이 들어도 그 방석을 누리 몬 누리우난 주청빈 7만이 보단,

“작산 사름들이 거 미싱것 흠이우파? 엠서 내 누이와내저.”

주청비는 배차단 배를 막대기로 탁 거시완 질로 성장 누리와진다. 그영호연 주청빈 징심을 호건 먹영 갑센 호연 징심을 호였수다. 징심은 무쇠주배길 혼 도고릴 호고, 그 디 는쟁이 주배길 댓개 호연 들이쳤스다. 주청빈 무쇠주배기 혼도고릴 푸어단 농명,

“이거 우리 영감님 먹는 음식이우다. 먹어 봅서.”

호난, 청년들은 주배기 호나 씹영 니가 불어지는 놈, 니염이 밀어지영 피가 나는 놈, 호여가난, 주청비 보단,

“거 미신 음식을 그영 먹엄수가? 엠서, 나 먹는 거 보왕 먹음서.”

주청빈 주배기 도고릴 확 등기여 농완 무쇠주배긴 쏹쏹 밀려가명 는쟁이주배길 거리명 호나 거령 폭삭폭삭 두 개 거령 폭삭폭삭 먹어가난, 청년들은 겁이 난에 매딱 돌아나는구나.

자청비는 이미 동네청년들을 물리칠 방법을 알고 있다. 관문수호자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몰래 뒤쫓는 동물의 마음을 읽는 사냥꾼처럼 적대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웅은 관문 수호자의 생각을 간파하거나 외양을 모방함으로써 그들을 통과할 수 있<sup>148)</sup>기 때문이다. 자청비는 동네청년의 마음속에 들어가 무쇠를 다루는 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손쉽게 동네청년들을 통과한다.

## 11) 부활

이 지점에서 자청비는 발전된 인격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의 자청비는 인간으로서 여러 협력자의 도움으로 서천꽃밭과 하늘옥황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협력자의 도움이 없는 공간이동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청비가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자청비는 새로운 인격으로 재탄생한다.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간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한 달에 한번은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이 약속은 문도령을 한 달에 15일씩 나누어 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서천꽃밭으로 간 문도령은 자청비를 잇고 3

<sup>148)</sup> 보글러, 앞의 책, 106면.

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에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문국성 문도령아 응도 무심홀 수가 시랴, 선보름 살건 후보름 살꼭  
후보름 살건 선보름 살랜 그만이 당부호고 보냈건만 소식 혼변이 엇이니 나의 팔제런가 나의 스  
주런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도령을 원망하고,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청비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임무의 수행이나 노력의 결실은 언제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결핍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주도하였던 자청비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새로운 통찰을 깨달은 자청비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으로써 일상 세계의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된다.<sup>149)</sup>

#### 11) 영약을 가지고 귀환

영웅의 여행은 특별한 세계에서 일종의 영약, 보물 혹은 교훈을 습득해 가지고 올 때에만 그 의미를 획득한다.<sup>150)</sup> 자청비는 새로운 통찰을 습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 옥황이라는 특별한 세계에서 오곡씨라는 일종의 영약을 가지고 인간 세계로 귀환한다.

“아바님이 저 살을 도래를 닦아줍서.”

문선왕이 말을 하되,

“에이구! 설룬 나 메누리야, 오곡씨를 누리와 주커메 씨나 골랑 얻어먹영 살라, 혼정 누리가라.”

자청비는 친절로 가서 어멍 아방왕의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를 다 갖고, 혼난

“에이구! 설룬 얘기야, 느 살려온 종 드랑 가라.” 하는구나.

자청비는 오곡씨를 획득한 후 마침내 친부모에게 돌아간다. 자신이 속해있던 바로 그 세계로의 귀환이다. 동굴 가장 깊은 곳에서 겪는 시련에서 무엇인가를 획득해 돌아오지 않으면 영웅은 모험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sup>151)</sup> 자청비는 하늘옥황이라는 동굴 가장 깊은 곳에서 일련의 시련을 겪고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영웅의 여행’이라는 구조에 대입해 볼 때, 영약을 가지고 귀환한 자청비는 더 이상 모험을 지속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지만 자청비는 자신의 여행을 멈추지 않는다. 자청비의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자청비가 해결해야 할 일

149) 보글러, 앞의 책, 67면.

150) 보글러, 위의 책, 68면.

151) 보글러, 위의 책, 68면.

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 12) 능력의 발현

자청비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속해 있던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의 집에서 정수남이를 데리고 세경땅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자청비는 영약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경본풀이>이라는 제목이 가진 의미, 즉 ‘인간인 자청비가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이야기’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이 세경땅에서 자청비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인다. 자청비와 정수남이에게 점심을 주지 않은 두 노인에게는 조화를 부려 화를 입히고, 점심을 흔쾌히 내어 준 두 노인에게는 복을 내린다.

아읍 장남에 광난이징 주고 아읍 쇠엔 병앵일 썩와부난 아읍 쇠 이웃 밧테레 와짓끈와짓끈 돌력  
귀명 돌아나부난 밧은 갈아놓앗자 씨를 못골르게 되였구나.

“그랏도 누리옵서, 겹질도 누리옵서 우리 심심소일이나 하게.”

“그랏도 나게 맏서, 부실이도 되게 맏서, 감비역도 되게 맏서, 지미 지게 맏서.”

“할아버님은 제석천왕으로 들어상 일년 열두돌 고수지낼 때 제석천왕으로 청호건 큰 상 받으멍  
삼서. 할마님이랑 제석지왕으로 들어상 상을 받으서.”

위의 인용문을 통해 자청비는 인간세계에 오곡씨를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오곡씨를 틔우는 땅의 흥농과 풍농을 관장하는 능력도 획득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능력까지 획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 III. 인물로 본 <세경본풀이>

#### 1. 지혜로운 영웅이 되어가는 인간: 자청비

##### 1) 미를 탐하나 정리와 신의를 중시

자청비의 성격은 <세경본풀이> 초반에 드러난다. 자청비는 여러 가지 성격이 뒤섞인 인물이다. 우선 자청비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자청비의 부모와 문도령 모두 자청비를 곱다<sup>152</sup>)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청비의 미모가 출중함을 알 수 있다. 자청비는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에 관심을 보인다.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여종 정술더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정술더기야 는 어땡흐난 손발이 고와 점시니?”  
“주천당 연하뫼에 간 스답을 호여가난 손발이 고와점쑤다.”  
“나도 강 스답호민 손발이 고와지느냐?”  
“예, 곱꼭말꼭마쑤!”

자청비는 손발이 고운 정술더기가 부럽다. 자청비는 빨래를 하는 것이 고운 손발을 만들어 준다는 정술더기의 말을 믿고 빨래를 하러 간다. 이 대화에서 자청비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청비가 가진 아름다움이라는 욕망의 크기가 타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을 만큼 크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문도령과 이별한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정수남이의 말에 정수남이를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수남아, 그영호면 문국성 문도령이 바독장귀 두는 걸 나도 가민 보아질카이?”  
“거 미신 말쑤이우파? 우리 쌍놈도 강 귀경 실피호영 온디, 상제님은 더욱 잘 귀경호네다.”  
“호건, 나 그디 돌아다 도라.”

문도령을 만나려는 욕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타인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 모습이 나타나는 위의 인용문은 자청비의 순수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순수함은 부잣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티 없이 자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청비는 욕망은 있으나 순수한 소녀로 표상된다.

자청비가 가진 기본적인 성격은 선한 것으로 보인다. 자청비의 선한 성격은 여러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가 처음으로 문도령을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sup>152</sup>) 조진국 부인: “낭군님아! 애기 붉서 오죽 곱쑤광!”, 문도령: “그 애기씨 얼굴은 곱다마는 무심새는 구똥 곱으구냐.”

자청비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애기씨! 물이나 혼 박새기 떠 줘서, 먹엉 가져.”

주청비는 박새기에 물을 거러 버드낭쌌을 흘타놓완 안내엿쑤다. 문도령은 그 물을 반안 먹으멍 “그 애기씨 얼굴은 곱다마는 무심새는 구둑 곱으구나.”

주청비가 말을 흐대,

“도령임은 혼 일 알곡 두 일 물른 도령님이로구나. 먼 집에 청총멜 탕 급히 들러온 때 물을 반안 급히 먹으민 물체 걸가 걱정되언 니염으로 쪽쪽 물을 빨아먹도록 낭쌌을 흘타 놓앗쑤다. 각긔 뵤에 약이 셔도 물채엔 약이 엇입니다.”

자청비는 처음으로 만난 타인이 물 한 바지를 청하자 ‘걱정이 되어’ 바가지에 나뭇잎을 띄우는 행위를 한다. 이로써 자청비가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청비는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아프다는 정수남이를 위해 자신의 말을 내어주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혼참 가단 정수남인 돌코지에 발을 차는 것츄록 흐연

“귀말이 7곳간 더 못가쿠편.”

엄살을 부려간다. 주창빈 말을 흐되,

“계건 어서 이 물을 타라.”

이젠 정수남인 물을 타고 주창빈 그 뵤 징심을 지고 흐연 신산고질 오르는구나.

“정수남아 이레 오랑 혼디 점심을 먹게, 무사 먼 디레 간 먹엄시니?”

위의 인용문을 통해 자청비는 상하관계를 떠나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애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는 순수함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애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청비는 순수함과 선함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정수남이와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흐를날은 주청비가 놉으 집이 놀레 간 보난 종놈들이 관낭도 선동 놀낭도 선동 흐여다가 놀놀이 놀었구나.

“우리집이 종놈은 음통곶은 보리밥에 검삼 곶은 개미장에 핏섬곶이 짓먹으멍 미싱겉 흐염신고!”

다른 집의 종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집의 종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자 자청비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또한 분수도 모르고 자신의 무릎에서 잠이 든 정수남이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기도 한다.

“이 못된 주숙, 아맹호민 나 독립에서 좀을 잘 수가 있느냐?”

자청비는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는 쉽게 분노한다. 분노할 뿐만 아니라 ‘담뱃대를 빼어 들고 정수남이의 왼 귀로 찌르고 오른 귀로 빼어 내어 죽여 두<sup>153)</sup>’는 직접적인 응징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자 협박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몰아 저 몰아, 누가 질을 짬형 집일 가민 느도 살곡 나도 살주마는 그영 못호민 내 칼로 느도 죽곡 나는 날로 주살을 홀로라.”

위의 인용문을 통해 자청비가 순수함뿐만 아니라 잔인함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자청비는 타인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지만,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신의 말이 관철될 때까지 협박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청비의 양면적 성격은 〈세경본풀이〉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자청비가 가지는 세계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 자청비의 세계관은 크게 정리(情理)와 신의(信義)로 나눌 수 있다. 주인공인 자청비의 언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는 〈세경본풀이〉 초반에서부터 자신이 올바른 도리(정리)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준다.

“공빈 호민 미싱 것에 씨느니?”

“게민 부모님네 돌아가시민 축지방을 누게 빌영 썰 겨우짱?”

서당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겠다는 자청비에게 자청비의 부모는 공부의 목적을 묻는다. 자청비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축지방을 쓰겠다고 답을 한다.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예를 다하여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믿는다. 축지방을 쓸 능력을 획득하여 부모님에게 예를 다하는 것이 자청비가 믿는 올바른 도리인 것이다.

이는 자청비가 문도령과 하룻밤을 보내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문도령이 술에 흠뻑 취하고 손을 주악주악 내몰아가난 주청빈 통시 강 올쿠덴 호연 나왔단 들  
어갈 땐 종이에 먹으로 글을 써되

“나는 부모님 허락 잇이는 문도령 소원을 못들겠쑤다.”

153) 통설대를 빼어 들고 정수남의 원구로 질리고 누단귀로 빼여내연 죽여두

응 혼 글을 문도령신디 내몰아두언 곱아불엿쑤다.

자청비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다른 남자와의 동침을 할 수가 없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정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후 자청비는 문도령과 결혼하지만 이는 부모님에게서 쫓겨난 이후의 일로서 부모님의 허락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시점이다. 따라서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축지방을 써 예의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정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자청비는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다. 서천꽃밭에 간 지 3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번 없는 문도령에게 자청비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받아본 문도령은 그제야 자청비에게로 돌아온다.

“아바님아 아바님아, 문도령이 주인대감 말쑤똥에 가난, 연삼년이 되어도 소식 하나 엿입니다. 편지를 혼나 오라십디다마는 똥을 거스로 탄 오란 똥을 올랜 흙디다마는 나 문 아니 올았쑤다. 오직 날을 미와사 똥을 거스로 탕 올 겨우짜?”

허겁지겁 돌아온 문도령을 바라보는 자청비는 마음이 무겁다. 말을 거꾸로 타고 돌아오는 문도령이 3년이 지나도 조강지처를 찾지 않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혼인을 하여 부부로 맺어진 조강지처를 버려두는 것은 정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부 중 한쪽이 사랑을 상실한 채 미움만 가득한 관계는 다른 한쪽의 사랑이 건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의미할 뿐이다. 이에 자청비는 ‘올바른 도리’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한다. 부부라는 이름을 가진 허울뿐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자청비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올바른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청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매우 중요시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하늘옥황으로 올라간 문도령을 기다리기 시작한다.

문도령은 도실남씨 두 방울을 놓안 글을 씨되  
'이 도실씨를 싱건 고장이 피민 주청비 상봉후레 오겠쑤다.'  
문도령은 터나가고 주청빈 줌을 자단 깨여난 방에 간 보난 문도령은 엿고 그영 혼 글만 남았고  
나.  
주청빈 그 도실씨를 엿돌 알레레 싱그고 고장이 필 탈 지드럽네다.

돌아오겠다는 문도령과의 신의를 지키려는 자청비의 모습은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꽃이 피면 돌아오겠다는 문도령의 말을 믿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지만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는다. 문도령은 신의를 지키지 않았지만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문도령 뿐만 아니라 자청비는 부모님과 신의도 소중히 여긴다. 집안의 종인 정수남이를 살해한 후에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자청비의 부모는 화를 내며 종을 살려오라고 자청비를 다그친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라 시리, 그 종은 우리 식굴 맥영 살리는 종인데, 어서 나 종으로 살려오라.”

주청빈, 이망훤민 어떻게 저만훤민 어떻게! 서천꽃밭 곳을 타당 정이엇인정수남일 살려내져.

자청비는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들어가서 환생꽃을 구해온다. 결국 정수남이를 살려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자청비의 부모는 자청비를 내쫓는다.

“아바님아, 아바님아 정이엇인정수남이 살려왔수다. 말씀서.”

“지집년이 남도나고 듣도 들었져, 어떻게 사람을 죽이꼭 살린덴 말이나? 꼴보기 싫다. 느냥으로 나고가라.”

자청비는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지만, 부모는 종인 정수남이만을 집으로 들일 뿐 자청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수남이가 관련된 부모와의 사건에서 자청비는 약속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애정이라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청비는 신의를 버리지 않는다.

자청비가 신의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약속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 간 서천꽃밭에서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을 하게 된다.

“도령님 덕택으로 생일 문 심어졌수다. 그 은공을 다 갚을 수가 엇수다. 우리집 말쑤딸에 장개 들기 어떻게우파?”

“감수훈 말쑤이우다마는 제가 과거보레 가는 중이난, 과거 보기전인 가속 생각이 엇수다.”

“그영훤긴 장개랑 가곡 과거훤영 오랑 정 섞영 사는 게 어떻게우파?”

“결랑 어서 기영 흡서.”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과 혼인한 자청비는 셋째 딸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다.

“부인님아 부인님아 내가 과거훤양 오도록 하다 툰 무심 먹지 말고 잘 살암시민 우리가 일지후 제 웃임웃이명 살 날이 돌아옵네다.”

“낭군님아 낭군님아 과거훤영 올 때??지 나를 잊지 말곡 몸 건강히 맹경 읍서.”

자청비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면 과거에 급제하여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도 자청비를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후 자청비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인다.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돌아간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에게 자신이 과거급제를 하여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나는 과거에 낙방이 되었수다. 그영호매 날 믿지 말곡 지드리지 맙서.”  
“에이구! 서방님아, 혼돌에 혼번만이라도 보아지민 좋수다.”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파기되었으니 자신을 기다리지 말라는 자청비의 말에,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은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여 달라고 부탁한다. 자청비는 이미 혼인한 아내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늘옥황 문선왕에게 자초지종을 고한다. 이에 문선왕은 자청비에게 다음과 같은 묘안을 제시한다.

“아바님아 아바님아, 저는 문도령을 살려내젠 서천꽃밭 주인대감 말쑥말쑥애기신디 암창개를 들었습네다. 이 일을 어떻흐민 좋구가?”  
“에이구! 설론 얘기야, 나 아들을 살리젠 암창개??지 들었구나. 기특호고 착호구나.”  
칭찬을 하여두고 아들신디 말을 호되  
“문국성 문도령아, 내 말을 들으라 선보름이랑 주청비광 살고, 후보름이랑 죽은매누리영 살라.”

자청비는 자신의 남편인 문도령을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15일씩 나누어 살게 된다. 자청비는 자신의 남편을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나누어 사는 데 전혀 불만이 없다. 오히려 자청비와는 얼굴이 다른 문도령이 서천꽃밭에서 쫓겨날까봐 방안을 제시한다.

문도령은 주청비가 궁니 틀어준대로 주인대감 집일 간 하였수다. 주인대감은 말을 하되, “계민 우리 말쑥말쑥애기가 내여준 본매본장을 내여놓아 봅서.”  
문도령은 7전 간 상냥알래기 반착을 내여놓난 맞추와보난 붓짜이 맞는구나.  
“이젠 우리 사위 분맹호다. 말쑥말쑥애기방으로 들어가라.”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에게 문도령을 보냄으로써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인 문도령과 헤어지는 것보다,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모습을 보이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청비는 신의를 지킨다고 하여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인 문도령을 서슴없이 보내는 행동을 한다.

위에 열거된 일련의 행동들로 보아 자청비는 정리와 신의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이라는 욕망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보다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정리와 보상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신의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자청비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 2) 지혜로운 영웅이 되어가는 인간

모든 훌륭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고, 배우고, 독립적인 개별자가 되기 위해 투쟁하고, 끝내 죽게 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존재 방식을 담은, 인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한다.<sup>154)</sup> 거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장하고 배우는 존재이기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청비는 <세경본풀이>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독립적인 개별자가 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주인공인 자청비는 <세경본풀이>의 영웅이다. 영웅은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인물 모두에게서 배울 바를 취하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되고자 한다.<sup>155)</sup> 따라서 주인공이 영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점이 있는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결점은 완벽하지 못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출발점으로서 인물이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다.<sup>156)</sup>

앞서 자청비의 성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청비의 순수함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은 잔인함에 대비된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점은 자청비에게 가야만 할 곳을 부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자청비는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먼저, 자청비는 자신의 잔인함과 교활함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청비는 자신을 살해하려는 정수남이를 기지를 발휘해 따돌린다. 그러나 정수남이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모습에 화가 난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죽이고 산을 내려오다가 산신을 만나게 된다.

증간에 오난 산신님이 나시고 말을 하되,

“어떻히는 느 우으로 놀핍내가 난다.”

주청비가 말을 하되,

“오는 질레 몰밭에 순작이 붉혀 죽었수다.”

“어디서 헛소리 말라, 느 뒤에 엄부력 총각이 피 별경게 나명 돌아오람다.”

주청비가 몰우티서 핏떡하게 느려스고

“과연 잘 못했습네다. 두란 간 종놈이 행실이 부족호연 죽여두언 오는 질이우다, 살려줍서.”

산삼님이 경을 잃어 그 생죽산일 털어준다.

154) 보글러, 앞의 책, 75면.

155) 보글러, 위의 책, 74면.

156) 보글러, 위의 책, 83면.

자신에게 피 냄새가 난다는 산신의 말에 자청비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메추리가 죽었다며 거짓말을 한다. 이에 산신은 자청비를 꾸짖는데, 자청비는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뉘우친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잔인함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교활함에 대한 잘못을 산신에게 밝히고 죄를 용서받는다. 이로써 자청비는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뉘우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한다.

또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원망하던 자청비는 이제 자신의 처지를 타타기 시작한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하늘옥황으로 떠나간 문도령을 기다리던 자청비는 돌아오지 않는 문도령을 원망하며 보낸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후 청태산 마귀할망의 수양딸이 된 자청비는 문도령을 원망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무심한 문도령아 나를 상봉하러 오키엔 흥여 두연 연삼년을 지드려도 붉은 늦 흥번 못보고 어는제민 상봉하료?’

자청비는 3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문도령을 무심하다며 원망한다. 기다려도 볼 수 없는 문도령을 기약 없이 기다린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난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15일을 살려 간 문도령이 3년 동안 연락이 없자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국성 문두령아 응도 무심홀 수가 시라, 선보름 살건 후보름 살곡 후보름 살건 선보름 살랜 그만이 당부호고 보냈건만 소식 흥번이 엇이니 나의 팔제런가 나의 수주런가?’

자청비는 문도령의 무심함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더 안타깝다. 이미 문도령이 무심하다는 것을 아는 자청비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부하여도 소식이 없는 문도령, 어디론가 떠나기만 하면 3년은 소식이 없는 문도령의 실체에 대해 자각을 하게 된다. 자청비는 더 이상 타인인 문도령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강한 응징을 하던 자청비는 이제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긴다.

“우리집이 종놈은 읍통골은 보리밥에 검삼 곶은 개미장에 찻섬골이 짓먹으며 미싱걸 흥염심고!”

“이 못된 주숙, 아맹흥민 나 독무렵에서 줌을 잘 수가 싯느냐?”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정수남이를 살해하였지만 자청비는 죄책감이 전혀 없다. 자청비는 <세경본풀이> 전반을 통해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무



자비한 응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곡씨를 가지고 인간세계로 다시 돌아온 자청비는 자신과 정수남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노부부를 응징하지만 그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저 발가는디 강 씨나 골라내쿠멍 굴아보라, 아옴 쇠에 아옴 장남에 숭시 타는 걸 보멍 미안후 연 그냥 넘어갈 수라 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련의 사건을 겪은 자청비가 인간을 살해하기까지 하던 잔인함을 버리고 측은지심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웅은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지식과 지혜도 습득한다. 대부분 스토리의 핵심은 영웅과 정신적 스승 사이의, 혹은 영웅과 연인 간의, 심지어는 영웅과 악한 간에 발생하는 배움에 관한 것이다.<sup>157)</sup> <세경본풀이> 초반에 자청비가 여러 인물들과의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완전하지 못한 성격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잔인함과 교활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타인을 용서하며, 인정을 베푸는 성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의 이러한 변화는 1930년대 대중소설인 『짚레꽃』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자기희생을 실현하는 교육받은 신여성의 ‘모던결’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 이면서도 대중독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인물설정<sup>158)</sup>과도 동일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자청비라는 인물은 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 현재적 진실에 충실한 성격: 문도령

### 1) 목표의식이 결여된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움

문도령이라는 인물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등장인물을 만남으로써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성격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경본풀이> 전반에 나타난 문도령의 성격은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럽다’로 요약할 수 있다.

문도령의 행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성격은 목표의식의 결여이다. 문도령은 큰 뜻을 품고 하늘옥황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서당에 글공부를 하러 가지만, 글공부는 물론 활쏘기, 씨름, 오줌 싸기 시험에서 모두 자청비에게 지고 만다. 이에 문도령은 하늘옥황에 편지를 보낸다.

157) 보글러, 앞의 책, 80면.

158) 김중수, 「1930년대 대중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 -『짚레꽃』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60면, 2006.

각곳 심백에 지여 농난 문도령은 공부에 낮착하고 부무님께 글을 써고 불려줍센 부짚네다.

3년 동안 자청비를 이길 수 없었던 문도령은 공부에 실망하고 하늘옥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 하늘옥황에서 큰 뜻을 품고 인간세계로 내려온 것에 비하여 문도령의 노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상대를 이길 수 없자 되돌아가는 모습에서 문도령이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문도령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행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문선왕과 자청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으로 보아 문도령은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러달라’는 문도령의 말에 문선왕은 문도령에게 장가를 들라고 한다.

‘서수왕 말쫓뜰애길 구후여시매 혼정 오랑 장겜 가라’

배필을 구하였으니 하늘로 돌아와 장가를 들라는 말에 문도령은 하던 공부를 접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 서수왕 셋째 딸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라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의 대화를 통해 문도령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타인의 말에 순종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문국성문두령님, 어명신디 강 예수이나 짓경 읍서.”

“미시거영 예수를 짓경 읍네까?”

주청빈 문두령신테레 예수짓길 말을 곱아간다.

하늘옥황에서 자청비와의 사랑을 마침내 확인한 문도령은 자청비의 어머니에게 수수께끼를 내라는 제안에 ‘왜’라는 질문이 아닌 ‘무슨’이라는 질문을 한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원하는 대로 수수께끼를 내고, 문도령의 어머니는 자청비의 수수께끼에 문도령이 자청비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차례로 하게 된다.

“어머님, 게민, 나 서수왕 말쫓뜰신디 장개 안가쿠다. 속안 사름광 살쿠다.”

마침내 문도령은 서수왕 셋째 딸이 아닌 자청비와 혼인하겠다고 말을 꺼낸다. 문도령이 자청비와 혼인하겠다는 마음이 애초에 있었더라면, 하늘옥황에서 자청비와 재회한 후 바로 자신의 부모에게 혼인 의사를 밝혔어야 한다. 하지만 문도령은 자청비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 부모에게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방에서 자청비와 좋은 시간을 보낼 뿐이다. 자청비가 부모에게 수수께끼를 내라고 한 후에야 자청비와의 혼인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결국 자청비의 뜻대로 문도령이 행동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문도령과 자청비는 혼인하여 인간세계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문도령이 동네청년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자청비는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가야한다. 자청비가 어쩔 수 없이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혼인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문선왕은 문도령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문국성 문도령아, 내 말을 들으라, 선보름이랑 주청비광 살곡, 후보름이랑 죽은매누리영 살라.”

문도령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혼인까지 한 자청비를 두고 어떠한 반항이나 죄책감의 표현도 없이 서천꽃밭으로 내려간다. 자신의 의견은 피력하지 않은 채 자청비와 문선왕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문도령의 모습에서 순종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문도령의 다혈질적인 성격도 확인할 수 있다. 자청비를 까맣게 잊었다가 자청비가 수놓은 베를 보고 자청비가 생각이 난 문도령은 자청비를 만나러 청태국으로 내려온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고, 자청비는 문도령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바늘로 문도령의 손가락을 찌러 본다. 바늘에 찌린 문도령은 화를 낸다.

문도령은 문틈으로 손을 내밀은 귀신 생인을 곱갈라보젠 주청비는 바늘로 문도령 손가락을 찌러본다. 그영후난 문도령은

“아가기여!” 후영 송까락을 확 빼연 보난 자주피가 불끈 난다.

“에이, 부정헌 년 후군!” 문도령은 혼삿베를 7전 옥황으로 도올라간다.

문도령은 3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자청비가 바늘로 자신의 손을 찌르자 따갑다며 화를 낸다. 문도령은 피가 나는 손가락을 보며 자청비를 ‘부정한 년’이라고 욕하며 돌아가 버린다. 자신에게 해를 가한 자청비에게 너무나 화가 난다. 문도령은 분한 마음에 하늘옥황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하늘옥황에서도 그 화가 가시지 않는다.

“하늘옥황 문국성 문도령이 주청비 만나레 간 문 아니 옴아주어비난 심배뱅이 나아놓고 ‘주청비 먹는 물이 약이엔’ 후연 그 물을 질레 오람쭈다.”

문도령은 하늘옥황으로 돌아가서도 그 화가 식지 않아 병이 나고야 만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문도령의 다혈질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도령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음만 앞서고 행동은 따라오지 않

는 덤병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도령과 3년을 동문수학한 자청비가 짐도령이 자청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의 집으로 달려가면서 급한 마음에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문도령은 용심이 나고 제게 옷을 입었 나오젠 혼 게 바지 혼 굴에 양다릴 질르고 팡팡 누려지멍  
제우 옷을 입어 주청비네 다불러 갑네다.

문도령은 자청비를 놓칠까봐 급하게 옷을 입는데, 마음이 급하여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한다.

이렇게 급한 성격은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함께 살러 가서 3년 동안 자청비를 잊고 살다가 자청비의 편지를 받게 된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깜짝 뜬난 문도령은 어가급절에 물을 탄 게 물안장을 거스르 지원 거스로 물을 타두서 집으로  
다불러오멍

자청비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자청비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한 마음에 말안장을 거꾸로 엮어 타고 간다. 문도령이 자청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의 존재는 상실된다. 이것은 문도령이 한가지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단순함과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청비와 문선왕의 말에 순종적이지만 다혈질이기도 하고, 단순하지만 급한 성격의 문도령은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덕스러움은 <세경본풀이>의 결말까지 이어진다.

순종적이던 문도령은 자청비가 오곡씨를 받아 세경땅으로 떠난 후에는 자청비가 생각이 난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낸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은 이미 기억에서 지운지 오래이다.

“이 불효 막심혼 놈아, 전체소박혼 죄다. 이제부편 죽은 메누리신디랑 가지말라.”

“예, 주청빌 만나게 호여줍서.”

자청비와 문도령이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은 하늘옥황에서의 1년, 인간세계에서 동네청년들이 문도령을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이다. 이 기간은 3년은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문도령이 함께 한 시간은 3년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함께 한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은 문도령이 자청비를 자신의 삶에서 상실한 그 순간 잊혀진다. 3년 동안은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을 원했으나 이제는 자청비를 원하는 것이다.

“자청비는 세경땅에 오곡씨를 골랑 얻어먹으려 느려갔지.”

“그영후건 나신디도 오곡씨 내여줍서.”

〈세경본풀이〉 전반에 나타난 문도령은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럽다. 자청비를 원하는 듯하다 서수왕 셋째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하늘옥황으로 돌아가고, 서수왕 셋째 딸과 혼인을 하는 듯하다가 자청비와 혼인을 한다. 그리고 자청비와 행복하게 혼인생활을 하는 듯했지만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3년을 생활하며 자청비를 잊은 듯하다가 다시 자청비와 생활하겠다고 말한다.

〈세경본풀이〉 전반에서 문도령은 문선왕이 부르면 하늘옥황으로, 자청비가 원하면 인간세계로 그리고 문선왕과 자청비가 명하면 서천꽃밭으로 이동하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에 문도령은 이제 하늘옥황도, 인간세계도, 서천꽃밭도 아닌 세경땅으로 가기를 원한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된다. 순종적으로 보이던 문도령이 자발적이 되는 순간이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문도령의 성격은 나약하지만 다혈질적이고, 부모와 자청비의 의견에 따르는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럽다. 공부를 하겠다고 하였다가 공부를 포기하고 하늘옥황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의 명령대로 서수왕 셋째 딸과 혼인하겠다고 하였다가 자청비와 혼인을 하고, 혼인은 하였지만 다른 여성에게 가버리며, 마음만 앞서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에서 문도령의 변덕스러움이 드러난다.

## 2) 현재적 진실에 충실한 성격

일반적으로 약속을 지키거나 어기는 것은 세계 모든 종류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로서, 약역이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죄악 한 가지는 바로 약속을 깨는 것이다.<sup>159)</sup> 〈세경본풀이〉에서 끊임없이 약속을 깨는 인물은 의심의 여지없이 문도령이다. 문도령은 자청비와 두 번의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격은 딜레마에서 내리는 선택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곧 그의 사람됨이다.<sup>160)</sup> 문도령이 마주하게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은 모두 혼인과 관계되어 있다. 문도령은 자청비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도, 문선왕이 정해준 배필인 서수왕 셋째 딸과 혼인을 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마주하게 된다. 문도령은 자청비와 서수왕 셋째 딸 사이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문도령은 서수왕 셋째 딸과 혼인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늘옥황으로 돌아가

159) 오슨 스콧 카드, 김지현 역, 『캐릭터 공작소: 베스트셀러 작가 오슨 스콧 카드의 소설 창작 노트』, 황금가지 2013, 188면.

160) 백기, 앞의 책, 532면.

지만 자청비에게 증표를 남긴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문도령이 자청비와 한 약속을 지키려면 서수왕 셋째 딸과의 혼인을 취소하거나, 자청비에게 기다리지 말라는 편지라도 보냈어야 한다. 그러나 문도령은 3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수양어명은 문도령시드레 흥셋배를 내어놓난, 문도령은 짝 패와 받,  
“이거 누게 혼 물품이우파?”  
“우리집의 수양딸.”  
“수양딸이 누게우파?”  
“주청비.”  
“주청비 어디 싶수가?”  
“저 동녘 방에 싶수다.”  
“나 혼변 만나게 흥여 줘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문도령은 신의 혼사에 쓰일 베에 수놓인 글을 보고 자청비를 기억해 내고 자청비를 만나러 하지만 자신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

밤중만인 문도령은 주청비 방을 찾아가고,  
“주청비야, 이 문올라, 나 문도령이여.”

그저 ‘문을 열라’고 당당히 말할 뿐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다. 혹은 그것이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약속은 문도령이 문선왕과 자청비와 한 약속이다. 문도령은 한 달에 15일은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살고, 나머지 15일은 자청비와 살기로 약속한다.

“문국성 문도령아, 내 말을 들으라, 선보름이랑 주청비랑 살곡, 후보름이랑 죽은매누리영 살라.”

문도령은 한 달을 반으로 나누어 자청비와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공평하게 15일씩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문도령은 서천꽃밭으로 간 이후 3년 동안 소식이 없다. 두 번째로 자청비와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자청비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문선왕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다.

번번이 약속을 깨는 것은 치명적인 죄악이다. 특히 보상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약속을 지키고야 마는 자청비에게 감정이입을 한 독자들은 문도령이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결국 이 분노는 문도령을 자청비의 여정을 가로막는 적대자로 해석하는 도구가 된다.

주인공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악역<sup>161)</sup>이라고 할 때, 자청비를 끊임없이 변화하게 만드는 문도령이야말로 <세경본풀이>의 악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역은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문도령이 현재적 진실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자청비에게 기다리라는 것도, 자청비를 보고 싶다는 것도, 자청비를 잊은 것도 현재 문도령이 마주한 상황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자청비를 두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 자청비가 보고 싶어서 자청비를 찾으러 온 상황, 그리고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함께 있느라 자청비를 잊은 상황은 이를 방증한다. 문도령이 마주한 상황에 충실한 결과인 것이다.

### 3. 교활하고 코믹한 장난꾸러기: 정수남이

#### 1) 근심걱정 없는 교활함

정수남이의 근심걱정 없는 성격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말과 소를 각 아홉 마리씩 내어 주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라고 한다. 그러나 정수남은 마소를 나무에 묶어 놓고 잠이 들어 버리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말과 소는 이미 죽어 있다.

해는 보난 서산에 지고 이만흐민 어명흐린 가축을 짊어지고 집으로 오는 도중 몸이나 곰양 거주긴 습통 죽곶으로 가다 보난 올랭이가 물에 앉안 이레 하을 저레 하을 하을하을 히염구나.

말과 소는 죽었고, 해놓은 나무는 없지만 정수남은 아무런 고민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욕이나 하려고 한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준 가축도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정수남은 그저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한다.

목욕을 하러 간 곳에는 오리가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다. 정수남은 오리를 잡아서 자청비의 눈에 들고자 하지만, 정수남의 모습에서는 오리를 잡으려는 계획은 전혀 없다. 덮을 놓거나, 유인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황구도끼를 던져 오리를 맞추려고 한다.

올랭이가 말을 안들으난 황구도칠 들런 마치난 올랭이는 푹딱 도치는 춤방!

하지만 오리도 잡지 못하고, 황구도끼도 잃은 상황이다. 이것은 계획정이 없는 정수남이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수남에게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지가 있다. 자청비가 내어준 가축뿐

161) 윌리엄 에이커스, 구정아·김영덕 역, 『시나리오 이렇게 쓰지 마라: 당신의 시나리오가 퇴짜 맞는 100가지 이유』, 서해문집, 2011, 60면.

만 아니라 몸에 걸친 모든 것을 잃고 알몸으로 돌아온 정수남이는 자신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문도령이 장기두는 것을 구경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댄다.

“문국성 문도령이 하늘옥황 선녀들광 바둑장귀 두는 거 귀경후단 보난 쇠 아옴 몰 아옴은 몰 그 리완 문 죽어십디다.”

이 지점은 정수남이가 자청비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경본풀이〉에서 나타난 정수남이의 교활함은 자청비를 속이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정수남이가 산에서 본 문도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 자청비는 점심을 싸고, 정수남이는 말을 준비하여 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마친다. 정수남이는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낸다.

정이었던 정수남이가 말안장을 지우는데, 솔찌기 안장 쏘곶에 구쟁기 탁살을 놓완 말안장을 지 완,

정수남이는 말안장에 소라 껍데기를 놓고 말안장을 올린다. 자청비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안장에 올라앉자 말은 아파서 날뛰다. 어리둥절한 자청비에게 정수남은 말이 날뛰는 이유가 고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고사를 지내게 한다. 그리고 그 고사음식은 계획대로 정수남이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정수남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산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방도를 생각해낸다. 무거운 점심을 들고 가던 정수남이는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귀말이 7곳간 더 못가쿠펜.”

이에 자청비는 정수남이에게 말을 내어 주고 자청비는 그 무거운 점심을 지고 산을 올라가게 된다. 정수남이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된다. 정수남이는 자청비를 속임으로써 자신의 식욕을 채우고, 육체적인 피로를 풀 수 있었다. 즉 정수남이는 타인인 자청비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종하는 교활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정수남이의 성격은 근심걱정 없이 단순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유리한 대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교활함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코믹한 장난꾸러기



영웅의 여행에서 장난꾸러기로 표현되는 인물은 악의 없는 장난을 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에너지와 변화에의 욕망을 구현한다.<sup>162)</sup> 다시 말해, 문제를 야기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sup>163)</sup> 장난꾸러기는 문제를 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촉매제 캐릭터가 된다.<sup>164)</sup>

〈세경본풀이〉에서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바로 정수남이다. 자청비의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인물, 자신은 전혀 변화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바로 정수남이다. 〈세경본풀이〉 전반에서 자청비를 변화하는 주요 인물은 문도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도령은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미세하게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정수남이 하나뿐이다.

정수남이는 자청비의 신분, 욕망, 신체를 대상으로 자청비를 희롱함으로써 자청비의 일상에 문제를 야기한다. 정수남이는 자청비의 신분을 가지고 희롱을 시작한다. 정수남은 자청비가 자신이 먹을 점심을 짜게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자청비가 그 점심을 먹지 못하고 정수남이의 점심을 조금 달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상제님 먹단 음식은 종이 먹는 법이우다, 종이 먹단 음식은 개가 먹는 법이우다. 상제님 개될 쿠가?”

양반이 종이 먹던 음식을 먹으면 개가 된다는, 자청비를 종보다 못한 개로 비하하며 희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정수남이는 문도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자청비의 욕망을 가지고 자청비를 희롱한다. 정수남이는 자청비에게 물을 마시려면 자신과 똑같이 옷을 벗고 우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한다. 목이마른 자청비는 어쩔 수 없이 정수남이처럼 옷을 벗고 우물로 들어간다.

조청비는 물 그라와놓난 옷을 벗언 꼭정동으로 거울을 즐라매고 업터지연 물을 먹어가는구나.  
정수남인 조청비 옷을 한탈낭 우테레 지쳐두언 사그마치기로 물통테레 팡팡 바둑 띄우명  
“오 거, 하늘 옥황 문국성 문도령 삼천궁녀광 노뎀호는 거우다. 오 건 문국성 문도령이 바둑장귀 두는 거우다. 귀경 실피 흡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에 들어간 자청비에게 정수남이는 우물 속이 바로 문도령이라고 말을 한다. 이것은 자청비의 욕망을 알고 있는 정수남이 자청비를 희롱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청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저 하인

162) 보글러, 앞의 책, 128면.

163) 보글러, 위의 책, 131면.

164) 보글러, 위의 책, 131면.

으로 여겼던 정수남이를 두려워하게 된다.

우물에서 나온 자청비는 정수남이에게 자신의 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정수남이는 다음과 같이 자청비의 몸을 만지겠다는 요구를 한다.

“옴서, 상제님 좃통이나 혼번 뭉직아 보저.”

자청비 집안의 하인으로 자청비보다 신분이 낮은 정수남이는 자청비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온다. 즉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채 남성이 가진 신체적 우위(힘)를 보여주며, 자청비를 희롱하며 자청비의 일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정수남이가 드러내는 다른 한가지 특성은 코믹성이다. 이야기에서 말하는 코믹성은 웃기는 장면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인물의 괴짜 성향을 과격하게 밀어붙이면, 그 별난 특성 자체가 희극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 극작가 벤 존슨은 이런 코미디를 기질 희극이라 칭한 바 있다. 오직 한 가지의 욕망이나 기질만이 두드러지는 인물로 익살을 자아내는 방식을 뜻한다. 구두쇠, 건강 염려증 환자, 위선자, 겁쟁이 등의 특질은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씩 공유하고 있는 법이지만, 그 특질을 심하게 부풀리면 캐릭터는 신뢰를 적당히 잃고 코믹해진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속성 하나가 극단적으로 두드러지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코믹성이 발현되는 것이다.<sup>165)</sup>

이러한 희극성은 정수남이가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속성이지만, 정수남이의 극단적으로 과장되게 음식을 먹는 모습(대식)은 희극성을 나타낸다. 정수남의 대식은 여러 상황에서 발견된다. 다음은 정수남이의 대식 모습을 설명한 부분이다.

“우리집이 종놈은 음통골은 보리밥에 검삼 골은 개미장에 핏섬골이 짓먹으멍”

종놈 정수남이는 죽은 무쉬들을 송콧으로 매딱 뱃기멍 울밋불을 최질런 지더두서 익어시나 혼점 설어시나 혼점 먹단 보난 쇠 아옴 뭉 아옴을 뭉 먹었구나

“상제님 먹을 징심이랑 춤그르 닷되에 소금 닷될 농왕 범벅을 호곡, 종 먹을 징심이랑 논쟁이 닷되에 소금 혼춤 농낭마냥 호영 범벅을 호영 글읍서.

정수남인 주청비 먹단 범벅을 그저단 출래로 호연 그 범벅을 뭉 먹었구나.

독 한 마리광 술 혼동일 지만 음짜 뭉 먹어놓거

정수남은 일상생활에서 밥을 ‘마구 먹고’, 소 아옴 마리 말 아옴 마리를 한 번에 먹을

<sup>165)</sup> 카드, 앞의 책, 236~237면 참조.

수 있으며, 참가루 닛 되, 소금 닛 되로 만든 범벅과 메밀계 닛 되에 소금을 한 줌 넣은 범벅을 한 번에 먹을 수 있고, 닭 한 마리와 술 한 동이는 송두리째 모두 먹을 수 있는 대식가의 모습을 보인다.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속성인 식욕이 두드러져 대식의 모습을 보이는 정수남이를 통해 정수남이라는 인물은 어느 정도 신뢰를 잃게 되며 따라서 정수남이라는 인물은 코믹성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코믹성은 정수남이의 근심걱정 없는 교활한 성격과 만나 인물을 더욱 독특하게 한다.

#### 4. 관문수호자와 정신적 스승: 기타 인물<sup>166)</sup>

##### 1) 관문수호자

영웅은 예외 없이 모험에의 노정에서 장애물에 직면한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입구의 관문에는 통과할 자격이 안 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문지기가 있다. 그들은 영웅에게 위협적인 얼굴을 하지만 제대로 납득시키기만 하면 극복하거나, 통과하거나, 심지어는 협력자로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sup>167)</sup>

##### (1) 서천꽃밭 주인대감

서천꽃밭 주인대감은 정수남이를 살리려는 자청비가 환생꽃을 구하기 위해 떠난 장소인 서천꽃밭을 지키는 인물이다. 인간계도 아니고 천상도 아닌 장소를 지키는 서천꽃밭 주인대감은 자청비의 능력을 시험한다. 서천꽃밭을 어지럽히는 부영이를 잡는 것이 서천꽃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인 것이다. 서천꽃밭 주인대감이 관문수호자인 것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천꽃밭디 부영새가 혼쌍이 살명 꿀밭에 하근 제외를 줘네다. 이제 생이 혼마리 남았는디, 요 걸 잡아주민 은공을 갚으쿠다.”

성공한 영웅은 관문 수호자를 위협적인 적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협력자와 새로운 힘이나 성공이 다가올 것임을 알려주는 초기의 지시자로서 파악하는 것을 배운다. 공격을 감행하려는 듯 나타난 관문 수호자가 사실은 영웅에게 은전(恩典)을 베풀 수 있다.<sup>168)</sup> 서천꽃밭 주인대감은 부영이를 잡아주면 은공을 갚겠다는 말을 직접 함으로써 관문수호자는 물리쳐야 할 대상이 아니고 결속해야 할(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야 할) 대상<sup>169)</sup>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후 자청비는 죽은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

166) 이 기타 인물들에 대한 성격묘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인물들이 단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아, 성격을 제외한 역할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167) 보글러, 앞의 책, 104면.

168) 보글러, 위의 책, 107면.

169) 보글러, 위의 책, 같은 면.

을 다시 방문하게 되고, 원하는 환생꽃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자청비가 서천꽃밭 주인대감과 결속한 후, 도움이 되는 협력자(서천꽃밭 주인대감)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문도령의 어머니

하늘옥황으로 올라간 자청비는 문도령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문도령의 어머니가 준비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청비가 염원하던 문도령과의 혼인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이다. 문도령의 어머니는 백탄숯불을 섬처럼 피워서 그 위에 칼선다리를 놓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아무라도 이 칼선도릴 바랑 하늘옥황 문선왕에 강 허배호민 나 매누리가 분맹하다.”

문도령과 혼인하기 위해 서수왕 셋째 딸과 칼선다리 건너기 시험을 치르게 된 자청비는 칼선다리를 건너 하늘옥황 문선왕에게 가서 허배를 하고, 며느리임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록 혼인은 하였지만 며느리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있다.

문도령과 혼인한 그날 저녁, 문도령의 어머니는 또 다른 시험을 낸다. 그것은 자청비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다.

“자청비아, 문도령광 문선왕의 쾌자를 지영 입지라.”

자청비는 문도령과 문선왕의 쾌자를 지어 등에는 봉황새, 아래웃자락에는 연꽃, 왼쪽 주머니엔 소나무, 오른쪽 소맷자락엔 동백나무수를 놓아 입는 사람의 건강을 비는 뜻이라고 문도령 어머니에게 말을 한다. 이에 자청비의 시부모는 자청비를 자신의 며느리로 완전히 인정한다.

“내 매누리가 분맹하다. 기특하고 착실하다.”

칼선다리 건너기와 쾌자 짓기라는 관문을 통과한 자청비는 시부모라는 협력자를 얻게 되었다.

## (3) 동네청년들

자청비는 인간세계에 속한 인물이지만 천상계에 속한 문도령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 자격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관문을 통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문도령과 혼인한 자청비는 인간세계로 내려오지만 새로운 인간세계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다. 문도

령을 살해하고 자신과 함께 살려는 목적을 지닌 동네청년들을 쫓아내야 자의로 선택한 인간 세계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자청비는 문도령이 살해당한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동네청년들을 기지를 발휘해 쫓아낸다.

앞선 관문에서는 관문수호자가 자청비에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번의 관문수호자들은 자청비의 일상을 위협하기 때문에 앞선 두 사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관문수호자는 영웅을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관문수호자를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몰래 뒤쫓는 동물의 마음을 읽는 사냥꾼처럼, 적대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sup>170)</sup> 즉 자청비는 동네청년들의 생각을 미리 간파하여 쫓아낸 것이다.

“요 우터 무쇠방석이 쏘수다. 요 방석을 누리왕 앓입서.”  
청년 오나문이 들어도 그 방석을 누리 몬누리우난 주청빈 그만이 보단,  
“작산 사름들이 거 미싱것 흠이우파? 엠서 내 누리와내저.”  
주청비는 배차단 배클 막맹이로 탁 거시완 질로 성장 누리와진다.

자청비는 무쇠수제비 한 함지를 떠다가 놓으면서,  
주청빈 무쇠주배기 혼도고릴 푸어단 놓멍,  
“이거 우리 영감님 먹는 음식이우다. 먹어 봅서.”  
흐난, 청년들은 주배기 하나 씹멍 니가 붙어지는 놈, 니염이 밀어지멍 피가 나는 놈, 흐여가난,  
주청비 보단,  
“거 미신 음식을 그영 먹엄수가? 엠서, 나 먹는 거 보왕 먹음서.”  
주청빈 주배기 도고릴 확 동기여 놓완 무쇠주배기 송송 밀러가멍 논쟁이주배길 거리멍 하나 거  
령 폭삭폭삭 두 개 거령 폭삭폭삭 먹어가난, 청년들은 겁이 난에 매딱 돌아나는구나.

무쇠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동네청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도망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청비는 인간세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 2) 정신적 스승(賢老)

꿈, 신화, 각종 스토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원형 중 하나가 대개 영웅을 돕거나 가르치는 긍정적 인물인 정신적 스승이다. 영웅을 가르치고 보호하며 재능을 부여하는 모든 인물에서 표현된다.<sup>171)</sup>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다. 가르침과 훈육이라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영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정신적 스승은 보통 어떠한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일시적

170) 보글러, 앞의 책, 106면.

171) 보글러, 위의 책, 91면.

으로 영웅을 도와주는 자이다. 그것은 마법의 병기, 중요한 열쇠나 단서, 신비로운 영약이나 음식, 혹은 생명을 좌우하는 한 마디의 충고일 수도 있다.<sup>172)</sup>

또한 영웅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영웅이 지나치게 비자발적이거나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으면 모험 속으로 내몰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스승은 모험을 계속 하도록, 영웅의 엉덩이를 가볍게 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173)</sup> 요약하자면 정신적 스승은 영웅에게 여행에 필요한 동기, 영감, 길잡이, 훈련, 권능을 제공한다.<sup>174)</sup>

### (1) 산신

자청비는 하인 정수남이를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신을 만난다. 피 냄새가 난다는 산신의 말에 자청비는 말이 메추리를 밟아서 피 냄새가 난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에 산신은 자청비를 크게 혼내고 자청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어디서 헛소리 말라, 느 뒤에 엄부럭총각이 피 벌경케 나명 돌아오랴.”  
“과연 잘 못했습니다. 두란 간 종놈이 행실이 부족하면 죽여두언 오는 질이우다, 살려줍서.”

산신은 자청비에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가르침을 준다. 자청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자 산신은 경을 잃어 자청비를 정화한다.

산신님이 경을 잃어 그 생죽산일 털어준다.

이를 통해 산신의 역할은 자청비에게 인간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자청비의 부모(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은 자청비의 부모라는 역할에서 드러나다시피, 자청비가 영웅이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데 모든 도움을 주는 인물들이다. 자청비의 부모는 여성인 자청비가 서당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였을 때 아무런 반대 없이 자청비가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지집주속인들 무사 공빌 못흐느니? 어서 흥여지건 흥여 보라.”

172) 보글러, 앞의 책, 93면.

173) 보글러, 위의 책, 96면.

174) 보글러, 위의 책, 103면.

그러나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살해하고 서천꽃밭에서 구해 온 환생꽃으로 정수남이를 살려 집으로 데리고 오자 자청비의 부모는 자청비를 집에서 쫓아낸다.

“지집년이 남도나고 들도들었져, 어땡 사름을 죽이꼭 살린덴 말이나? 꼴보기 싫다. 느냥으로 나고가라.”

자청비의 부모는 자청비가 성장할 때까지의 지원과 도움을 주었지만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청비를 쫓아내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3) 청태산 마귀할망

자청비는 부모에게서 쫓겨난 후 떠돌아 다니다 청태산 마귀할망을 만난다. 청태산 마귀할망은 자청비를 일시적으로 보호한다. 오갈 데 없는 자청비에게 청태산 마귀할망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자청비랑 우리집의 수양딸로 삼아시민 즐키여.”

갈곳이 없는 자청비는 이후 청태산 마귀할망의 집에서 수양딸로 살아가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다. 배를 짜며 수양어머를 도우며 살아가던 자청비는 청태산 마귀할망을 통해 다시 문도령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자청비가 문도령을 내쫓은 것을 알게 된 청태산 마귀할망은 자청비를 쫓아낸다.

“그영 하니 느 난 부미도 내조쫓았지? 들어오는 복을 막게로 치는 격이니, 나 눈에도 꼴 보기 싫다. 어서 아무디나 떠나라.”

청태산 마귀할망의 역할은 자청비 부모의 역할과 흡사하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다. 청태산 마귀할망은 자청비에게 일시적인 안전을 제공하였지만 모험 속으로 다시 내모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4) 상주절 대사

문도령을 쫓아버렸다는 이유로 청태국 마귀할망에게 쫓겨난 자청비는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된다. 삼도전 거리에 나와 있던 자청비는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상주절로 올라간다. 상주절 대사는 자청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머리 깎양 중의 행색을 흡서.”

상주절 대사의 말에 따라 자청비는 중의 행색을 하고 인간 세상으로 시주를 받으러 내

려오다가 하늘옥황 선녀들을 만나 하늘옥황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청비는 중의 행색을 하라는 상주절 대사의 도움을 통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상주절 대사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5) 남자의 옷, 중의 옷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총 네 번 옷을 갈아입는다. 다시 말해 변신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한 번은 중의 행색이고 나머지 세 번은 모두 남장이다. 〈세경본풀이〉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다른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마법의 병기와 다름없다.

자청비가 여자의 옷을 벗고 처음으로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문도령을 만났을 때이다. 문도령과 함께 서당으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정황상 남자가 될 필요가 있다.

부무님께 타나는 인스하고 남복 입성 곁아입고 다불려갑네다.

자청비는 남자의 옷을 통해서 서당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얻게 된다. 남자의 모습으로 문도령과 함께 서당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서당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자의 모습으로 3년 동안 생활하기도 한다. 이 남장이라는 마법의 병기는 단순한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신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의 두 번째 남장은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서 환생꽃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 인간 세상에서 서천꽃밭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자청비가 집을 떠나 서당으로 공간을 이동할 때 사용하였던 마법의 병기가 다시 한 번 필요한 것이다.

주청빈 남주 입성으로 곁아입고 물을 타고 서천꽃밭테레 돌려간다.

남자의 옷을 통해서 서천꽃밭으로 들어간 자청비는 남자의 모습으로 서천꽃밭 주인대감의 신의를 얻고,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의 사랑을 얻는다. 신의와 사랑을 얻은 자청비는 자신이 원하던 환생꽃을 가지고 인간세계로 돌아오게 된다.

자청비의 세 번째 변신은 중의 모습이다. 청태산 마귀할망에게서 쫓겨난 자청비는 상주절로 올라가서 상주절 대사와 상의한 후에 중의 의복을 입는다. 즉 중으로 변신한다.

대서님이 곶는대로 머리 깎안 중의 행색을 호명 인간테레 권제 받으레 느려오단 보난



중의 행색으로 인간세계로 내려온 자청비는 하늘옥황 선녀들을 만나 하늘옥황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원하던 문도령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인 하늘옥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허락은 중의 모습이라는 변신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청비의 마지막 변신은 문도령이 동네청년들에게 살해당한 후 이루어진다. 살해당한 문도령을 구하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가면서 또 한 번의 변신을 감행한다.

이젠 자청비는 동니 청년들을 문 제추하고 남주 입성 곁아입고 물을 둘러타고 서천꽃밭으로 들어가는구나.

자청비는 남성으로 변신하여 서천꽃밭으로 다시 한 번 향한다. 서천꽃밭이라는 공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환생꽃을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 서천꽃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남자의 옷을 착용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자청비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의 출입을 허락하는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청비에게 두 가지 의복을 통한 변신은 자신이 속한 일상적인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로 입성할 수 있는 허락을 의미하는 마법의 병기인 것이다.

#### (6) 문선왕

문도령의 아버지인 문선왕은 자신의 부인이 낸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한 자청비를 자신의 며느리로 인정한다. 자청비가 칼선다리를 건너 문선왕에게 허배하였을 때, 문선왕과 문도령을 위해 쾌자를 지어왔을 때 한 말을 통해서 자청비를 자신의 며느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 매누리가 분맹하다. 기특하고 착실하다.”

문선왕은 관문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경본풀이>에서 단 한 번도 문선왕 자신이 자청비를 시험한 적은 없다. 자청비를 시험한 사람은 문선왕의 부인이다. 문선왕은 문선왕의 부인이 낸 문제를 모두 풀어낸 자청비를 문선왕 자신의 며느리라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선왕은 관문수호자가 아니라 조력자의 모습에 더 가깝다.

문선왕은 자신이 며느리로 인정한 자청비가 더 이상 문도령과 살지 않겠다며 살 방도를 내려달라고 청하자 방안을 마련해 준다.

“애이구! 설론 나 매누리야, 오곡씨를 누리와 주커매 씨나 골랑 얻어먹영 살라. 혼정 누리가라.”

자청비에게 신비로운 영약인 오곡씨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문선왕이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7)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은 자청비가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으로 입성하는데,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획득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남성으로 변신한 자청비가 서천꽃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천꽃밭 주위를 돌며 배회하고 있을 때 서천꽃밭 주인대감 첫째 딸, 둘째 딸은 자청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은 자청비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말꽃뜰에긴 나간 보난 천하일색 귀동조로구나. 쳇눈에 무심에 드는구나.  
“도령님아 도령님아 미신 일로 왔다갔다 하염수과?”

자청비의 사정을 알게 된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은 서천꽃밭 주인대감에게 자청비가 화살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마침 서천꽃밭을 어지럽히는 부엉이를 처리하고 싶었던 서천꽃밭 주인대감은 자청비를 서천꽃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한 자청비에게 꽃밭을 안내함으로써 자청비가 원하는 목적인 환생꽃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말꽃뜰은 주인대감신디 가고,  
“사인 과거보레 가명도 꽃귀경을 못후연 가게 되난 썩썩후덴 곱암썩다. 꽃귀경 시겨줍서.”  
“야, 경후민 꽃이 다치지 아니홀카?”  
“나 다치지 말게 괴양 귀경 시겨 줄쿠다.”  
“계건 아맹이나 후라.”

주청비광 말꽃뜰아긴 꽃귀경을 가고, 돌아본다.  
“이 꽃은 미신 꽃이우파?”

위의 인용문과 같이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은 서천꽃밭 주인대감을 설득하여 자청비가 서천꽃밭을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서천꽃밭을 안내하면서 각 꽃들의 용도와 이름을 설명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의 설명을 바탕으로 필요한 꽃을 획득하게 된다.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두 번째 방문한 서천꽃밭에서도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의 안내 없이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과 함께 있을 때만 꽃이 피어있는 서천꽃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주인대감 말꽃뜰얘기는 서방님이 오난 반가움이 이를 배가 읍서지고 고장구경을 나고간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자청비 혼자서는 서천꽃밭을 돌아다닐 수가 없다. 이것은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환생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천꽃밭 주인대감이라는 마법의 병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 딸의 역할은 자청비가 꽃에 관한 지식을 전하여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역할과 직접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마법의 병기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경본풀이〉에서 정신적 스승, 즉 자청비에게 필요한 동기, 영감, 길잡이, 훈련, 권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인물들은 총 7명이다. 각각의 인물은 각각 자청비에게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권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인물	역할	목적
산신	스승	잘못의 지적과 용서
짐진국 대감, 조진국 부인	보호자	자청비를 보호하고, 영웅의 여행이라는 기본을 준비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부여
청태산 마귀할망	보호자	자청비를 짧은 기간 동안 보호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부여
상주절 대사	길잡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조언
남자의 옷, 중의 옷	마법의 병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권능부여
문선왕	조력자	새로운 권능부여
서천꽃밭 주인대감 셋째딸	스승, 마법의 병기	새로운 사실을 알려 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권능부여

〈표 6〉 정신적 스승의 역할과 목적

즉, 〈세경본풀이〉에서 위에 언급된 7명의 인물들은 주인공인 자청비에게 스승, 보호자, 길잡이, 마법의 병기 등과 같이 각각의 방식으로 정신적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주인공 자청비가 새로운 인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V. 결론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의 큰곳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로서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장편이며, 뛰어난 작품” 평가되고 있다. 〈세경본풀이〉는 ‘주인공 자청비가 일련의 수난을 극복하고 세경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주로 ‘제의적 연행방식’을 통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스토리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놀이성이나 연극성을 찾을 수 있다. 무가 속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위, 사건의 전개는 하나의 극적 장면을 연상케 한다. 연극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해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공간적 유형과 마치 ‘~인 것처럼 하다’라고 하는 가상의 사건 또는 행위 양식들이 제주 무가에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무가의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장성과 ‘~인 것처럼 하다’라는 이야기성은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고에서는 서사무가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인 〈세경본풀이〉를 ‘굿’이라고 하는 전체적 연행과정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행과정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텍스트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차용해 〈세경본풀이〉의 구조를 분석하고, 인물을 성격과 역할로 나누어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독립적인 텍스트로서의 무가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제주도 무속의 특징을 설명하고, 스토리텔링의 문자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스토리텔링과 제주 무가와와의 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자의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분석의 틀로 사용한 아크플롯, 시퀀스 어프로치, 영웅의 여행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III장과 IV장은 본격적인 〈세경본풀이〉 분석이다. III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세경본풀이〉를 분석하였다. 아크플롯은 이야기의 보편성을, 시퀀스 어프로치는 역동성과 극성을, 영웅의 여행은 자발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구조 분석의 결과 〈세경본풀이〉는 제시한 분석의 틀에 적합한 이야기임을 증명하였다. 아크플롯을 통해 〈세경본풀이〉가 보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환이라는 소통 방식을 표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퀀스 어프로치를 통해 ‘자청비가 문도령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극적 의문에 대해 극적 긴장감, 극적 아이러니, 따라다니는 요인, 텔레그래피이라는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가 적절히 결합되어 답변을 제공하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웅의 여행을 통해 〈세경본풀이〉를 자청비의 자발성을 부각시키며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하는 영웅의 모습을 완성시키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어 감정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이야기임을 증명하였다.

IV장에서는 <세경본풀이>의 인물을 인용문을 통해 성격과 역할로 나누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여, 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주인공인 자청비를 미를 탐하지만 정리와 신의를 중시하는 성격을 가진, 지혜로운 영웅이 되어가는 인간으로 해석하였다. 문도령은 목표의식이 결여된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현재적 진실에 충실한 신격으로, 정수남이는 근심걱정 없는 교활한 성격을 가진 코믹한 장난꾸러기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인물의 역할만이 중요시되는 등장인물은 관문 수호자와 정신적 스승이라는 역할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기존의 논의는 굿의 연행과정이라는 제차의례의 맥락에 그 초점을 맞추어 신화적 요소가 가진 내적인 의미 규명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연행과정과는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로서의 <세경본풀이>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으로 먼저 작품을 분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였고, 그 틀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세경본풀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사무가들도 새로운 이야기로 조명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자료

이달춘, <세경본풀이>,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2. 단행본

권승태, 『3막의 비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서연호 · 김현철, 『한국연희의 원리와 방법』, 연극과 인간, 2006.

서정남, 『영화서사학』, 생각의 나무, 2004.

신아영, 『스토리텔링과 영화』, 연극과 인간, 2011.

이화형, 『민중의 꿈, 신앙과 예술』, 푸른사상, 2014.

장주근, 장주근 저작집 간행위원회 편,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민속원, 2013.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최혜실,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6.

황신웅, 『스토리텔링 교육을 아우르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보고서, 2011.

로버트 맥기, 고영범 · 이승민 역,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황금가지, 2002.

마이클 티어노, 김윤철 역,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우라, 2008.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 역, 『시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오슨 스콧 카드, 김지현 역, 『캐릭터 공작소: 베스트셀러 작가 오슨 스콧 카드의 소설 창작 노트』, 황금가지 2013.

윌리엄 에이커스, 구정아·김영덕 역, 『시나리오 이렇게 쓰지 마라: 당신의 시나리오가 퇴짜 맞는 100가지 이유』, 서해문집, 2011.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크리스토퍼 보글러, 함춘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무우수, 2005.

폴 조셉 줄리노, 김현정 역, 『시퀀스로 풀어라』, 황매, 2009.

페터 비에리, 문항심 역, 『삶의 격』, 은행나무, 2014.

페터 손디, 안동집 역, 『현대 드라마의 이론』, 탐구당, 1989.

### 3. 논문

강상대,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연구」, 『한국문예창작』 6, 한국문예창작회, 2007.

강정임, 「『세경본풀이』의 전승양상 및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강진옥,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구비문학회, 2005.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구은모, 「『세경본풀이』와 운영전의 인물비교 연구, 여성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권복순, 「자청비의 세계구조와 양면성 고찰」,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길태숙, 「<구렁덩덩신선비>, <세경본풀이>, <밭매기노래>에 나타난 남편찾기와 결합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16, 열상고전연구회, 2002.

김기국, 「스토리텔링의 이론적 배경 연구, 기호학 이론과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회 2007년 춘계학술발표회, 2007.

김동건, 「토끼전의 인물 형상과 개방성」, 『판소리 연구』 20, 판소리학회, 2005.

- 김동윤, 「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양상 연구: 자청비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1, 한국비평문학회, 2009.
- 김병주, 「여성신화 「세경본풀이」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한국심리학회, 2010.
- 김선희, 「「세경본풀이」 연구: 분석심리학적 접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수복,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위한 『질마재 신화』 공간 분석」, 『한국문예창작』 7-2, 한국문예창작회, 2008.
- 김은정, 「자청비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 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종수, 「1930년대 대중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 -『찔레꽃』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 김재용, 「무속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비평학회, 2009.
- 류정월, 「「세경본풀이」와 제주도 농업관 -신화의 특수성에 관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3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 류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 박덕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활성화를 위한 시론」, 『한국문예창작』 7-1, 한국문예창작회, 2007.
- 배진섭, 「제주도 12본풀이의 '놀이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극 실행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배진희, 「<세경본풀이>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송태현, 「신화와 문화콘텐츠 - 제주신화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송효섭, 「본풀이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4, 한국기호학회, 1998, 143면.
- 신동훈,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51, 비교민속학회, 201.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2006.
- 양민주,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男裝)의 기능과 의미-여성영웅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
- 염원희, 「무속신화의 여신수난과 신직능의 상관성 연구」, 『한국무속학』 20, 한국무속학회, 2010.
- 오세정, 「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남성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오정미,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2006.
- 이수자, 「제주도 무속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영지,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의 적층양상」, 『배달말』 42,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8.
-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채영, 「원형서사의 스토리텔링 전환 전략 연구 : '춘향' 원형서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임명숙,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 임보연, 「<세경본풀이>와 <양산백전>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의미연구」, 『고황논집』 44,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
- 장희주, 「박자와 한배로 본 제주도 무가(巫歌)의 유형과 특징」,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7.
- 조현설, 「제주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조현희, 「『세경본풀이』의 연구: 양산백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좌혜경, 「주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 30-1, 한국민속학회, 1998.
- 정인혁, 「『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연구 - '中'세경 자청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학회, 2008.
- 정진희, 「풍농의 원리: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28, 국문학회, 2013.
-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최원오, 「곡물 및 농경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2006.
- 최영숙,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함복희, 「설화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여성신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황은진, 「<세경본풀이>의 교육적 효용과 활용방 안 연구 -서사구조와 여성상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shaman epic  
〈SeGyeongBonpuri〉

Song, Young Eun

A major in Korean Cultur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Korean language and cultur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framework of analysis of the shaman epic 〈SeGyeongBonpuri〉, and to examine the story itself by analysing its structure and characters using the new framework of analysis. 〈SeGyeongBonpuri〉, in general, is one of the shaman epics, which is narrated in the shaman ceremony, KeunGut, in Jeju island. It is appreciated as "the longest and outstanding story among shaman epics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the new framework of analysis, I have list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Jeju's shamanism and the meaning of storytelling. And I have related those two ideas with the fact that in those two notions there are story, place to perform and interactivity. Thus, I have proved that shaman epics can be analyzed by storytelling tools which are so called "classical structure."

Given this, I have analyzed the story by its structure and character; I used the concept of classical structure for structure analyzing which is archplot, hollywood screenwriting structure (so called 3acts and 8sequences) and the hero's journey, while I used the words and action of the story for character analyzing.

As a result, I have found out that 〈SeGyeongBon〉 fully follows the classical structure. Throughout the archplot I have proved that 〈SeGyeongBon〉 has the universality for the story itself, while representing communication method, which is 'giving and receiving.' With sequence approach, I have verified the dynamics of 〈SegyeongBon〉 structure. The story suggests the dramatic questions which are 'How Jacheongbi can bear the fruit of love with Mundoryeong?', or 'Can Jachengbi bear the fruit of love with Mundoryeong?' The structure is designed to answer the dramatic question by providing dramatic tension, dramatic irony,

dangling causes and telegraphing. Finally, I have demonstrated that the story matches the concept of hero's journey except the protagonist shows her spontaneity, which allows providing a satisfying emotional identification with the protagonist to the readers.

For the character analyzing, I have categorized the protagonist JacheongBi as a multi-faced round hero character who gives the importance to fulfilling one's duty and loyalty, while classified Mundoryeong as a flat villain who is capricious and full-blooded. I labeled Jeongsunami as a flat trickster with highlighted the comicalness who is simple and vulgar. Also, I have categorized other characters of the story into two categories; 'the wise old man or wise old woman' and 'threshold guardians.'

\*key word: Shaman epic, <SeGyeongBonpuri>, Jacheongbi, Mundoryeong, Jeongsunami, Archplot, Sequence Approach, the hero's journey, story, structure.

